

#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

2012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





## 머 리 말

---

최근 청소년의 욕설, 비속어 남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올해 국립국어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문화 정립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언어 개선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섯 차례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청소년의 언어 사용 현장을 관찰 카메라로 밀착 취재하여 실태를 소개하는 동시에 개선을 위한 대안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한국방송공사에서 한글날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언어 개선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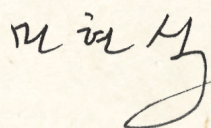
이와 함께 국립국어원에서 개최한 ‘2012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와 청소년 단체에서 운영한 언어 개선 프로그램들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수기 공모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유관 단체 등에서 보낸 수기는 총 153편으로 청소년 언어 개선에 대한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심이 높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심사는 청소년 전문가, 국어학자, 문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두 차례에 걸쳐 해 주셨는데, 수기의 작품성과 활동 프로그램의 독창성 등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총 18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수기에서 나타난 참신하고 기발한 언어 개선 활동들을 널리 알리고자 학생 12명과 교사 6명이 제출하여 수상한 작품 18편을 엮어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는 수기뿐만 아니라 언어 개선 활동 사진, 보고서, 설문 결과 등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청소년 언어 개선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수기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언어 개선 수기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은 청소년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각급 학교와 유관 단체,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언어 개선 활동을 펴는 데 이 책자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19일

국립국어원

원장 

머리말..... 3

우리 학급의 고운 말 온도계 ..... 8

목포 북교초등학교 6학년 전대산  
대상

나의 언어생활, 이렇게 달라졌어요. .... 10

충주 용원초등학교 6학년 김예진  
최우수상

보이지 않는 무기, 무기를 없애는 말 ..... 12

부천 부곡초등학교 6학년 이원재  
최우수상

작은 노력이라는 물을 언어라는 나무에 뿌리면 ..... 14

부천 부곡초등학교 6학년 양유경  
우수상

언어생활 반성문..... 16

대구 남동초등학교 6학년 윤서영  
우수상

언어는 내 마음..... 18

대구 남동초등학교 4학년 진예림  
우수상

은은하지만 깊게 다가간 우리의 윤슬 프로젝트 ..... 22

서울 한영고등학교 2학년 최중현  
대상

바보동(바른말 보호하기 활동)..... 28

인천 인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강주영  
최우수상

욕(辱)의 욕(欲)을 뿌리치다..... 33

인천 부개여자고등학교 2학년 유지연  
최우수상

미소를 만드는 사람들.....	37
논산 신희여자중학교 3학년 김지은 우수상	
달라진 나의 삶.....	42
대전 그라시아스음악학교 1학년 이정아 우수상	
‘욕 스파이’가 욕을 물리쳐드립니다!.....	45
서울 경희여자중학교 2학년 장혜연 우수상	
에이, 선생님! 친구들끼리 무슨 존댓말을 써요?.....	50
부천 부곡초등학교 교사 이명섭 대상	
응답하라 윤슬 프로젝트 .....	55
서울 한영고등학교 교사 김소라 최우수상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이라는 .....	65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이 되길 바라며... 거제 옥포중학교 교사 이영미 최우수상	
Farewell, Bad Words! .....	89
– 성포 CLEAN Project를 전개하며... 안산 성포고등학교 교사 김신표 우수상	
청소년의 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데 .....	98
인천 북인천여자중학교 교사 장덕자 우수상	
작은 실천으로 만드는 바른 말 세상을 꿈꾸며 .....	107
충주 용원초등학교 교사 장문각 우수상	



# 초등 부문

01 대 상

우리 학급의 고운 말 온도계

목포 북교초등학교 6학년 | 전대산

02 최우수상

나의 언어생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충주 용원초등학교 6학년 | 김예진

03 최우수상

보이지 않는 무기, 무기를 없애는 말

부천 부곡초등학교 6학년 | 이원재

04 우수상

작은 노력이라는 물을 언어라는 나무에 뿌리면

부천 부곡초등학교 6학년 | 양유경

05 우수상

언어생활 반성문

대구 남동초등학교 6학년 | 윤서영

06 우수상

언어는 내 마음

대구 남동초등학교 4학년 | 진예림

# 우리 학급의 고운 말 온도계

목포 북교초등학교 6학년 전 대 산

지금은 누구나 욕을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교 안에서는 물론 학교 밖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욕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들이 욕하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하는 내 얼굴을 후끈거리게 만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오죽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런 욕을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알고 남보다 잘하는 것을 마치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랑 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기도 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 세상에 자랑 할 것이 따로 있지 욕을 많이 알고 욕을 잘하는 것을 여러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다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6학년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학급회의 시간에 욕을 하지 않는 학급을 만들자고 주장 하였다. 하지만 친구들은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욕을 못하게 막느냐며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나는 그 친구들과 생각이 달랐다. 처음에 코웃음을 치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선생님께 왜 우리가 고운 말을 써야 하는지를 말씀 드렸다.

선생님께서서는 내 말을 다 들으시고 좋은 생각이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부탁에 따라 학급 뒤쪽에 고운 말 온도계 게시판을 새로 만들어 붙여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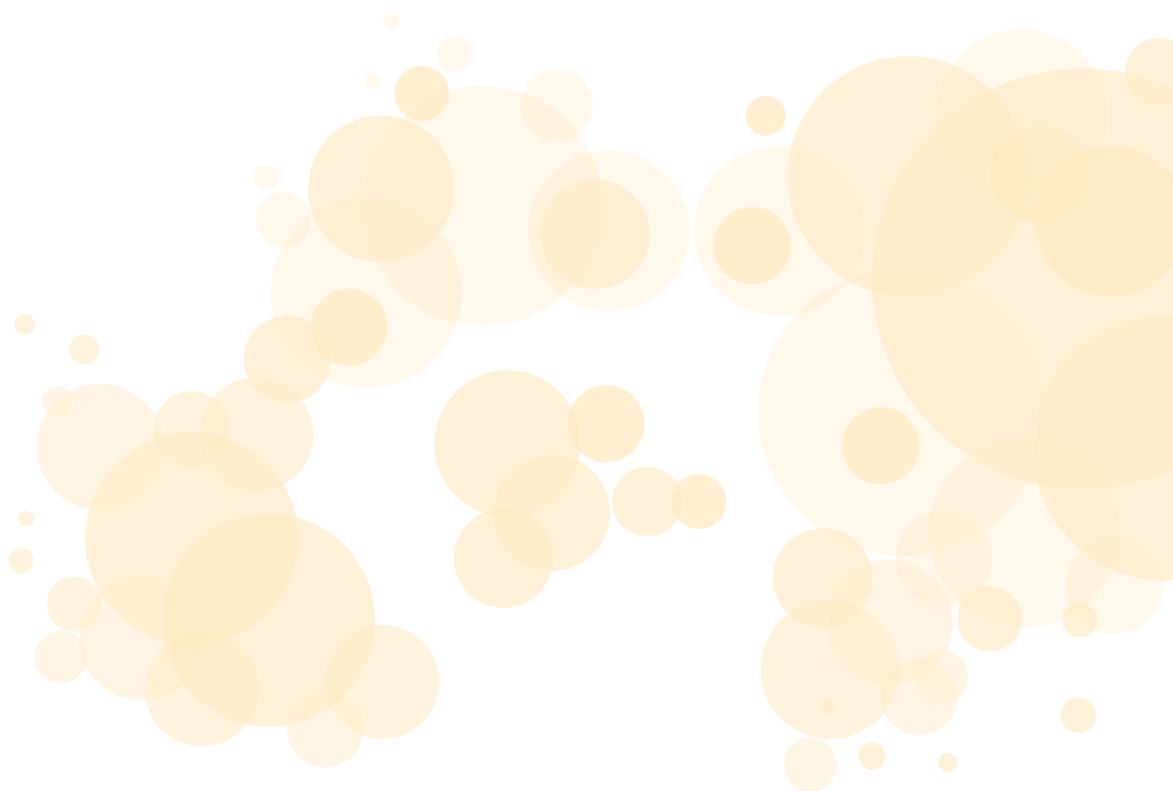
처음에는 모두 같은 온도지만 욕을 한 번씩 할 때마다 그 온도계 눈금이 하나씩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누가 욕을 가장 많이 하는지 누가 고운 말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설마 하면서 코웃음을 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시작한지 9개월이 지난 지금, 내가 선생님께 부탁해 만든 고운 말 온도계는 철없던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욕부터 하던 친구들이 욕하는 것을 참아내자 작은 일 하나로 복도에서 친구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던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보면 욕은 커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꾸는 데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욕은 입에서 나오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독이 묻어 있는 것 같다. 때로는 욕설이 폭력보다 무서운 것은 다른 친구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욕설을 하지 않는 마음 착한 친구들을 본받고 싶다. 어떤 친구들은 욕설을 통해 자신이 강한 것처럼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감추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도 고운 말 온도계를 교훈 삼아 앞으로 바른 언어 습관의 기본이 되는 고운 말 쓰기를 생활해 나간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만 같다.



# 나의 언어생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충주 용원초등학교 6학년 김예진

6학년이 되고 나서 나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은 6학년이 되면서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나의 언어생활이라고 생각한다.

3월에 담임 선생님께서 언어문화 개선 활동이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다. 언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 언어문화라는 말은 왠지 어렵게 느껴졌다. 거기에다 개선이라는 말까지…….

선생님의 설명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하는 대화 내용이나 사용하는 말 등이 언어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빈 종이를 한 장씩 나눠 주셨다. 자신이 사용하거나 알고 있는 욕을 모두 적으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욕을 적으라고 하셔서 정말 적어야 하는지 궁금했다. 잠시 고민을 한 후 내가 알고 있는 욕설, 사용하는 비속어 등을 적기 시작했다. 다 적고 나니 생각보다 많았다. 욕설을 다 적고 난 후, 선생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처음에 그렇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매일 같이 사용하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고쳐질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열심히 활동해 보기로 다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활동을 한 것 같다. 바른 언어 사용 다짐을 위한 서약식, 바른 말 지킴이, 바른 말 멘토·멘티, 어깨끈을 두르고 친구들과 함께 한 캠페인 활동, UCC 만들기, 표어 만들기, 포스터 그리기, 언어생활본 작성 등.

6학년이어서 그런지 다른 학년 동생들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모든 활동이 처음 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재미있고 즐거웠다. 특히나 활동을 하면서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내가 다른 학년 동생들에게 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특히 바른 말 지킴이와 바른 말 멘토 활동은 나 스스로 매우 뿌듯해하며 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동생들을 발견하면 욕설을 고치도록 도와주었고, 저학년 동생을 한 명 정해서 쉬는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서로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여러 번 대화를 나누다보니 금세 친해졌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달려와 자기의 실천한 바른 언어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과 4명이 한 조가 되어 점심시간에 급식소 앞에서 바른 말을 사용하지는 캠페인 활동을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1주일간 외칠 구호를 우리 스스로 정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들어가는 동생들에게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무척이나 쑥스러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나의 활동으로 욕설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더욱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외치는 구호를 따라하는 동생들이 많아졌다. 구호를 따라 외친다고 욕설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되었다.

가장 재미있었고 인상적이었던 활동은 UCC 제작 활동이었다. UCC는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들어본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UCC를 본 적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니 처음 조금 겁나기도 했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5월 한 달간 담임 선생님께서부터 카메라 사용 방법, UCC 제작 방법 등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대본도 작성하고, UCC에 사용할 소품을 만드는 등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 처음엔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지만 조금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여러 번 만들다 보니 한결 쉽게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든 UCC가 다른 학년 교실에서 상영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설레고 기분이 좋았다. 좀 더 잘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았지만 내 모습이, 그리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지는 우리의 다짐이 화면을 통해 나온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쉬는 시간 저학년 동생들이 나의 모습을 화면에서 봤다면서 달려와 아는 척을 할 때는 마치 연예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6학년이 시작되자마자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왜 예전에는 이런 활동이 없었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과 동생들이 예전보다 훨씬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땐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 역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예전보다 욕설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줄임말이나 인터넷 채팅 용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처음엔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쑥스럽고 창피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6학년 기간 동안, 그리고 졸업한 후에도 올해 실천했던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열심히 실천해서 나와 우리, 그리고 모두가 욕설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보이지 않는 무기, 무기를 없애는 말

부천 부곡초등학교 6학년 이원재



우리들은 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 무기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쓰는 학생들은 73.4%나 되고, 항상 쓰진 않는다는 학생들의 비율은 21.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중 94.6%가 그 무기를 사용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20명당 19명이 그 무기를 사용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 무시무시한 무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욕입니다.

욕이란 이름을 가진 보이지 않는 무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우리들,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욕이란 보이지 않는 무기를 쓰지 않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바로 존댓말입니다. 그 말을 서로 친구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에게 “안녕하세요? OO님?”이라고 말하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OO님!”, “시간 되면 좀 놀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존댓말을 쓰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곤 했습니다. 말을 편하게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점점 익숙해져갔고, 현재에는 친구들하고 존댓말 대화를 하고, 욕도 나오지 않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선생님께서는 운동에서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새로운 것을 개발하셨습니다. 바로 “존댓말 축구”라는 것입니다.

반말하면, 페널티키, 욕하면, 페널티키 그리고 퇴장 선언을 하는 규칙이 추가된 축구입니다. 좋은 축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 축구를 할 때, 우리는 매번 이런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패스해! 이 XXX야!”, “아, 이 XX가 돌았나?”, “야, 이 XX야. 똑바로 하라고!” 이렇듯 매번 욕을 넣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축구가 시행 초반 때는 페널티키가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로 존댓말을 쓰면서 축구를 합니다. 작년보다 훨씬 보기 좋은 축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언어문화 개선 UCC 공모전 대회를 한 것입니다. 그 대회는 존댓말을 써서 달라진 점이나 언어문화 개선 방법을 UCC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방법을 UCC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의 우리 학교의 존댓말 문화가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교 밖에서는 다시 욕이라는 무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욕 사용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마지막 문제는 학교 안, 학교 밖 상관없이 욕을 쓰지 말고 고운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 우리나라는 언어문화 개선에 한걸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 작은 노력이라는 물을 언어라는 나무에 뿌리면

부천 부곡초등학교 6학년 양유경

“그래서 싸우자고?”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내가 5학년일 때 우리 반은 하루라도 안 싸운 적이 거의 없었다. 그 때를 생각해보면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싸웠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알 것 같다. 원인은 바로 말, 언어인 것 같다. 말을 아무 생각도 안하고 막 내뱉어서인지 말 때문에 싸움도 많아졌던 것 같다. 싸움의 원인이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5학년 때 싸우는 애들을 지켜볼 때는 항상 말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6학년이 되어서도 그렇게 될 거 같았는데 6학년 때는 전보다 더 나은 언어의 좋은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6학년이 되자 우리 부천 부곡초등학교에서는 존댓말을 전교에서 쓴다고 하였다. 5학년 때는 우리 반이 제일 끝 반이어서 6학년과 같은 층이기 때문에 6학년 언니오빠들이 존댓말을 쓴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때는 마냥 존댓말 쓰는 언니 오빠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런데 전교가 쓴다고 하니, 거창하기도 하였지만 무언가 썩 내키지가 않았다. 전교가 쓰는 것이니 나보다 어린 애들한테도 존댓말을 써야 된다니, 웬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5학년 때에는 반말을 하면서 놀았던 친구들한테 존댓말을 써야 된다니, 완전 어색할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들었다. 나와 같은 생각이 들었던 친구들은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아니, 6학년이 된 전체 학생들이 나처럼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2학기가 되어도 어색함이 안 끝날 것 같다고, 그렇게 줄곧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게 손쉽게 깨져버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어어… 님, 숙제 다했어…요?” 이러면서 조금씩 더듬으며 말했는데, 학교에서 나오면 바로 반말 쓰고 “어휴, 상쾌하다.” 이랬는데 계속 쓰다보니까 어색하지도 않고 입에 계속 배여가지고 밖에서도 그냥 말하다가 존댓말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쉽게 바뀌어지는 것 같다. 존댓말 하나라는 노력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다. 그리고 존댓말을 쓰고 나서 제일 많이 바뀐 것이 있다. 바로 갈등과 싸움이 대폭으로 줄어들었다. 5학년 때는 특하면 싸워가지고 무언가 힘들기도 어렵기도 하였는데, 존댓말로 심한 말을 표현할 수가 없고, 싸운다고 해도 존댓말로 말하면 해결도 쉬워지고 화가 심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화해도 더 빨리 하는 것 같다. 5학년 때 지긋지긋하게 많이 보던 싸움을 6학년이 되니 이제 조금밖에 보지 못하니 무언가 좋기도 하다. 말에서 존대라는 단어를 붙이면 존댓말이 된다. 이렇게 작은 노력으로 한순간에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존댓말은 처음 보는 친구를 만나도 존댓말로 반말보다 더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말하다보면 어색하거나 더 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2학기가

된 요즘 들어 다른 반들은 조금 나태해진 건지, 반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반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아니, 많이 볼 수 있다. 다른 반과 같이 체육을 할 때 “야! 거기 공 잡아!” 이라는 반말이 자주 귀에 들어온다. 왜 안 쓰는지는 잘 모르겠다. 존댓말에 싫증난 건지……. 그렇지만 우리 반은 좀 특별한 건지, 우리 반 선생님께서는 특별한 포스가 있는 걸까, 우리 반 친구들이 바른 걸까, 우리 반은 학교에서는 존댓말을 계속 쓴다. 다른 반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만 지나가면 반말하다가도 급 존댓말을 쓰기도 한다.



그리고 존댓말을 씀으로써 나 자신이 많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6학년이 되기 전까지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조금 남들보다 심했었다. 그래서 친한 친구와도 툭 하면 말장난하다가 어쩔 때는 말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었다. 마음도 지금보다 빼뿔어진 것 같다. 그 때는 나 자신이 거의 염세적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존댓말을 쓰고 난 이후로 마음도 예전보다 더 단정해진 것 같고 염세적이었던 예전에 내가 지금은 긍정적, 낙천적이게 된 거 같다. 마음이 더 성장하니, 생각도 많아지니 글도 예전보다 더 나아져서 글짓기 대회에 나가는 것을 예전에는

꺼려하고 ‘글짓기 대회에 나간다고 해도 상 못 받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데 6학년이 되어서 나가니까 못 타보던 상을 타보기도 하였다. 그 때 정말 선생님 덕분에,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존댓말 덕분이라고도 생각한다. 존댓말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변했으니 말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것 같다. 언어가 노력하고 좋은 쪽으로 하면 자신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만약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 모두들 존댓말이 어색하고 자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도 어색하고 그랬지만 모두들 반말이 안 튀어나오게 노력하면서 존댓말을 입에 배기를 노력하였는데 6학년이 끝나가다 보니 우리 반 친구들도 다른 반 친구들도 나른해졌는지 밖이나 안에서도 조금씩 존댓말을 안 쓰는 경우가 있다. 물론 나도 조금 하기는 한다. 나와 모두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그랬으면 하는 바람도 살짝 가지고 있다.

존댓말을 시작할 때 하는 작은 노력을 물이라고 비유하면 언어는 나무인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무에 물을 주면 무럭무럭 자라나니까 물을 안 주어도 자라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미세할 뿐이니까 노력을 주면 언어도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학교 말고도 존댓말을 쓰는 학교들이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20 군데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전교에서 존댓말을 다 쓰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이 글을 존댓말 캠페인을 하지 않는 학교가 본다면 꼭 존댓말을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쓰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좋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마음과 노력도 결실을 맺으면 그 결과는 좋게 되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바로 나무에 열매가 생기는 것처럼…….

## 언어생활 반성문

대구 남동초등학교 6학년 윤서영



우리 학교는 올해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바로 잡기 위해 그리고, 학교폭력의 주원인이 되는 욕설을 줄이기 위해 청정언어 사용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 나는 요번 '학생 언어문화 개선'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했다. 먼저 교실 앞에 학급의 언어 약속을 게시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우리 반에서는 '친구에게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하기', '욕 사용 줄이기' 등을 했다. 그리고 학교 게시판에 붙여 놓았다. 그러니 뒤에서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무심코 튀어 나오는 욕설을 막을 수 있었다. 욕설을 할 때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학급언어약속을 보니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매월 학교에서 나누어 준 HOPE 공책을 쓰며 지난 나를 돌아볼 수도 있었고, 가족을 칭찬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가족도 화목해질 수 있었다. 1석 2조였다. 칭찬한 것뿐인데 친구와도 가족과도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기도 했다. 말을 듣는 친구가 기분 좋아해서 뿌듯하기도 했다. 평소에는 욕설을 하지 않으면 친구와 소외될까봐 욕설을 썼는데 내가 잘못 안 것인가 보다. 아직도 가끔 말꼬리에 습관적으로 욕이 튀어 나올 때가 있지만 전보다 훨씬 줄어든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모둠에서는 청정언어의 장점을 알게 되어 '하루에 욕을 5번 이상 말하면 맛있는 것 사기' 같은 규칙을 정해 적용해 보았다. 그냥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 친구들끼리 하니 반성도 되고 재밌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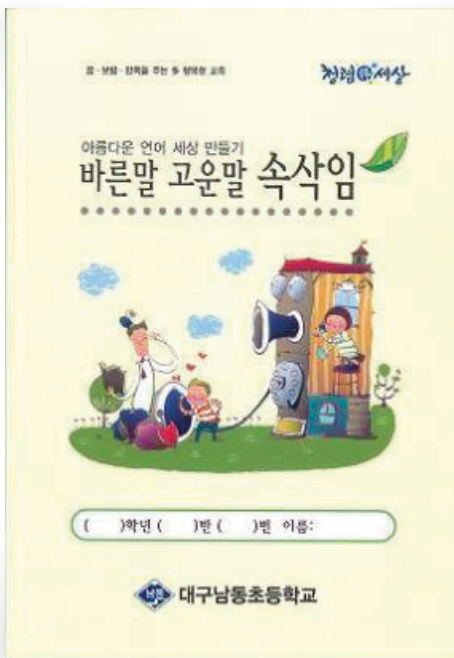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로 편지쓰기 대회를 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라서 친구에게 바른말로 내 마음을 전달하기가 처음에는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편지를 받은 친구가 좋아하니 나도 좋았다. 나도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욕설이나 이모티콘(ㅋ)같은 게 없어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말 진실된 친구의 마음을 들은 것 같아 매우 좋았다. 내가 언어문화 개선에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활동이다.

또, 방학 숙제로 ‘언어문화 개선 스크랩 자료 만들기’라는 숙제가 있었다. 귀찮은 일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 스크랩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욕사용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초등학생이 선생님께까지 욕설을 가한다는 뉴스를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욕이라는 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뉴스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 폭력의 원인이 욕설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그만큼 욕설은 친구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이외에도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언어생활 캠페인, 언어문화 개선 발대식, 예절 교실 등 많은 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나의 언어생활에 대해 반성도 많이 했고, 많이 배웠다. 사람은 말에서 향기가 난다고 한다. 앞으로 청정언어를 사용하면 친구들과의 사이는 물론 가족과도 더 행복해질 것 같다. 예전에 욕을 많이 썼던 나는 1년 사이에 청정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거친 욕보다는 아름다운 우리말인 바른 한글 청정 언어를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여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청정 언어를 사용하는 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 언어는 내 마음

대구 남동초등학교 4학년 진예림



우리 학교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도 학교로 뽑혀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이나 우리 학교는 언어문화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한다. 학교에서 「바른말, 고운 말 속삭임」수첩쓰기와 HOPE 공책을 전교생이 다 쓴다. 「바른말, 고운 말 속삭임」수첩은 일주일에 2번씩, 명언과 내가 오늘 잘했던 말, 잘못 사용한 말을 각각 2개씩 쓴다.

5월에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표어 공모전을 실시하였는데 내가 작성한 것이 뽑혀 학교 정문에 붙여져 있었다. 그 표어의 내용은 '언어는 내 마음, 바른 언어 나누자'이다. 내가 말했던 것이 교문 위에 있어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났다. 나는 욕을 사용하지 않아서 성공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친구들이 욕을 가끔 쓰고 있는데 왜 욕을 쓰는지 물어 보면 스트레스를 풀고 '다른 사람은 사용하는데 나는 사용하면 어때?'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 습관과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또 어떤 친구는 화가 날 때 욕을 사용하고, 또 어떤 친구는 욕을 써보라고 권유를 하였다. 그래서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학교를 마치고 하교를 할 때 중학생 언니, 오빠들을 보면 욕을 사용하는데 난 그것을 보고 느낀다. '욕은 자주 사용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좀 무섭다.'라는 것을. 저번에 교육장님께서 욕을 많이 사용할수록 살아가는 수명이 1초, 2초씩 사라지지만 바른 언어, 좋은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살아가는 수명이 1초, 2초씩 늘어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만큼 그만큼 보답을 하듯이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겠다. 또 욕을 사용하는 친구를 본다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싶다. '지금 너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떨까?'라고.



고운 말 쓰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즉 내가 생각한 언어문화 개선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잘못된 용어를 고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가방가'를 '안녕'이라고 고치는 것처럼 내가 잘못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면 종이에 내가 지금 쓰는 잘못된 용어를 적고 옆에 바르게 고쳐서 적는다. 그리고 잘못된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하루에 한 번 친구나 가족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다**. 칭찬은 누구나 기분이 좋게 만들고 즐거워진다. 칭찬을 해 주면 상대방과 친해지고 상대방도 칭찬을 해 줄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생각과 습관을 고치는 것이다**. 먼저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친구나 가족에게 칭찬을 해주고, 화요일에는 언어와 관련된 명언이나 속담을 알아보고, 수요일에는 욕을 사용하지 않고, 목요일에는 화를 내지 않는 날, 이렇게 계획표를 세워 실천을 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바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언어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한 언어문화 개선 방법을 잘 활용하면 친구들도 욕을 사용하지 않고 고운 언어를 쓸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적으면서 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었고 언어는 소중하다는 것과 고운 말을 쓰는 것이 언어를 사랑하고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는 욕은 당연히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며 고운 언어로 친구나 가족을 칭찬해주고, 언어에 대한 생각과 습관이 지금보다 나아지게 할 것이다.

나와 우리 학교 학생 전체가 잘못된 언어는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고 바른 언어는 얼굴을 웃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어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행복을 꽃 피우게 하는 것이다.



# 중·고등 부문

01 대 상

은은하지만 깊게 다가간 우리의 윤슬 프로젝트  
서울 한영고등학교 2학년 | 최종현

02 최우수상

바보동(바른말 보호하기 활동)  
인천 인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 강주영

03 최우수상

욕(辱)의 욕(欲)을 뿌리치다  
인천 부개여자고등학교 2학년 | 우지연

04 우수상

미소를 만드는 사람들  
논산 신희여자중학교 3학년 | 김지은

05 우수상

달라진 나의 삶  
대전 그라시아스음악학교 1학년 | 이정아

06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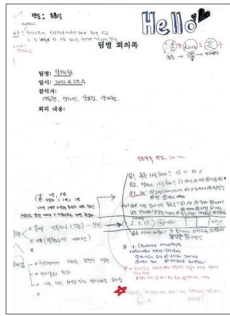
'욕 스파이'가 욕을 물리쳐드립니다!  
서울 경희여자중학교 2학년 | 장혜연

# 은은하지만 깊게 다가간 우리의 윤슬 프로젝트

서울 한영고등학교 2학년 최 종 현

윤슬 프로젝트. 한영고등학교 2012년도 문예부의 메인 프로젝트이다. 문예부는 한글을 다루는 동아리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을 써보고 한영의 얼굴인 교지를 작성하는 동아리로서 우리는 1년간 앞장서서 작게는 한영인, 나아가서는 청소년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윤슬. 햇빛이나 달빛 따위에 비치어 은은히 빛나는 물결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언어문화 개선의 급진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언어문화는 고착화되어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우리 동아리는 차근차근 다양한 활동을 장기적으로 실시하여 한영인들의 언어문화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프로젝트를 윤슬이라 명명하였다.



◀◀ 보고서 표지  
◀ 보고서 작성을 위한 팀별 사전 회의록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먼저 1학년들이 청소년 언어문화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우선 사회 곳곳에 퍼진 청소년 언어문화에 대한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교내 학생들의 실태도 설문지로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비속어, 언어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제기한 후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회, 정부, 학교의 측면으로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나를 비롯한 2학년 몇은 1학년들의 멘토가 되어 자료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었다. 이를 통해 은어와 욕설로 더럽혀진 청소년의 언어문화에 대해 우리 스스로도 자세히 알게 되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구상해보고 실천해봄으로써 교내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청소년의 언어문화는 현실 세계의 비속어, 은어 등에서만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요즘 사회에서는 가상공간에서의 청소년 언어문화도 많이 훼손되어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은어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플들을 자유롭게 달고 있다. 악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심하면 생명에까지 위협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상의 언어 역시 개선하고자 하였다. 내가 먼저 다는 댓글, 악플의 반대말, 착한 댓글인 선플 달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언어문화 개선의 새 바람과 의지를 담아 선플기자단을 창설하여 활동하기로 했다. 문예부 모두는 선플기자단이 되어 선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우리는 청소년들이 선플이라는 소재를 쉽고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했다.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은 입에 쉽게 달라붙는 멜로디를 가진 노래를 선플에 관련된 가사로 개사하여 선플송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 동아리에는 실용음악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친구가 김광진의 ‘행복을 만드는 노래’의 멜로디를 조금 더 따라 부르기 쉽게 코드를 바꾸고 선플에 관련된 가사로 개사하여 자체 선플송을 만들었다.

인터넷 예절 지키시나요 모르신다구요?  
 끝없는 악플 유언비어들 마음이 아파요  
 나만의 생각 남들의 생각 서로 함께 나뉘요  
 하지만 항상 잊지 말아요 악플 아닌 선플로  
 우리 함께 나뉘요 사랑의 말들을  
 서로가 존중해준다면 웃을 수 있죠  
 조그만 관심 작은 배려로 행복을 키워요  
 오늘부터 시작해봐요  
 선플 한번 달아봐요

누구나 한 번 들어보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가사 역시 외우기 쉽게 잘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 노래를 전교생의 귀에 익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매주 동아리 부원들이 돌아가면서 1학년과 2학년 반에 들어가 선플에 대해 소개하고 선플송을 직접 들려줬다. 나는 홍보 부팀장으로서 매주 월요일 각반에 들어가 선플송을 불렀다. 또한 일정기간 아침과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 전교를 돌아다니며 선플송을 불렀다. 점점 이 노래를 아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한번 들어보면 친근하고 중독성이 있다며 음을 흥얼거리는 것을 보며 매우 행복했다. 때론 의욕이 넘쳐 큰 목소리로 부르다 보니 시끄럽다는 선생님들의 핀잔도 들었지만 말이다. 전교생이 강남스타일보다 자주 들어 보았을 노래가 아마 선플송일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 언어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토론회의 첫 번째 시간인 ‘청소년 언어, 문제인가 문화인가?’에 참석하였다. 양명희 교수님과 강희숙 교수님은 문제라는 입장, 조아미 교수님과 길은배 교수님은 문화라는 입장을 취하셨다. 각 교수님들은 논문과 여러 통계들을 바탕으로 열린 토론을 펼치셨다. 길은배 교수님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 언어는 문화라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시던 도중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었던 우리 동아리에게도 직접 의견을 여쭙어보셨다. 우리는 이 토론회에서 많은 통계들을 얻을 수 있었고 청소년 언어의 문제라는 입장과 문화라는 입장 모두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 토론의 참여는 우리에게 청소년 언어문화에 대해 더 폭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영고등학교는 매년 ‘한맥제’라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틀간 전교생이 축제를 즐기는 한마당이다. 동아리들은 각자 준비한 활동들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갖는다. 전교생은 모든 동아리 전시회를 돌며 관람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달라지는 나. 빛나는 언어. 바로 알고, 다시 쓰기. ‘달빛바다’**라는 이름으로 전시회장의 한쪽 면을 꾸몄다. 이 전시는 앙케트 형식으로 지난 번 참가한 토론회에서 큰 인상을 주었던 ‘청소년의 언어는 문제인가 문화인가’라는 쟁점에 대한 한영인들의 의견을 묻는 코너, 선플기자단들이 직접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욕을 대신할 수 있는 말들에 대한 한영인들의 의견을 묻는 코너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내가 기획하고 정말 즐겁게 활동을 주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영인에게 선플송을 외우고 불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선플송 쟁반 노래방 행사를 진행하였다. 팀장인 나를 필두로 선플송 쟁반 노래방 행사를 기획한 6명의 학생들은 선플송 가사 400장을 인쇄하여 전교를 돌며 홍보하였다. 4명의 학생들에게 가사를 외우게 하고 세 번의 기회를 주어서 틀린 학생이 없는 경우 4명의 학생들 모두에게 간식을 제공하였다. 틀린 학생이 있는 경우 4명의 학생 모두 쟁반을 맞았다. 참가한 학생들이 모두 재밌게 웃으면서 게임에 참여하고 선플송의 가사와 멜로디를 자연스럽게 외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쟁반을 때리는 우리들도 쟁반과 참가자의 머리와 부딪히며 나는 소리에 희열을 느끼며 즐겁게 게임을 진행했었다. 많은 한영인들이 이 게임을 통해 선플송의 가사와 멜로디를 외울 수 있었다. 이런 참여들을 통해 윤슬 프로젝트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한영인들로 하여금 언어문화 개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한영고등학교에서는 매주 한 동아리씩 '나눔, 배려, 소통'의 문화를 키워 '언어, 문화,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한영 뉴웨이브'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뉴웨이브 기간 각자 테마를 정한 후 캠페인 및 여러 행사를 동아리 학생들이 기획하고 벌인다. 우리는 10월 9일 한글날이 포함된 주에 뉴웨이브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수련회 일정이 끼어 있는 관계로 그 다음 주에 '윤슬 프로젝트'를 테마로 뉴웨이브를 진행하였다. 뉴웨이브 기간 동안 우리는 메인 프로젝트인 윤슬 모양의 글자 틀에 한영인들의 발도장을 받았다. 손가락을 오므려 발바닥 모양을 찍고 손가락으로 발가락 다섯 개를 찍어서 발도장을 만들었다. 친구들이 손에 물감을 묻히길 꺼려했지만 언어문화 개선인 윤슬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하자고 설득하였고 기꺼이 도장을 찍어주었다. 여러 발도장들로 이루어진 윤슬을 보고 문예부뿐만 아니라 많은 한영인들이 윤슬 프로젝트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또한 한영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전시실 앞에서 한글에 대한 여러 상식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맞추는 '황금종을 울려라'라는 행사도 진행하여 한글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글씨체 뽑내기 대회도 개최하여 참여한 친구들로 하여금 한글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번 뉴웨이브 활동은 많은 한영인들이 한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언어문화 개선의 실천을 약속하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뉴웨이브 기간에 우리 동아리 부원들만의 힘으로 '선한 말, 선한 마음'을 주제로 한 '선플콘서트'를 기획, 개최하였다. 방학 때부터 기획팀들이 꾸러져 아이디어를 내고 고치고, 팀을 나누고, 연습하고, 대본 짜고 ..... 이 콘서트는 노래와 토크, 영상이 모두 어우러져 있다. 우리 동아리 부원들은 각자의 친구들에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을 배포했고,

이런 아이디어로 더욱 많은 한영인들이 관심을 보였고, 초대권을 달라는 친구들도 생겼다. 그 결과 100명 가까이 되는 한영인들이 참여한 채 선플콘서트는 시작되었다. 전체적으로 상처와 희망이라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상처톡에서는 말로 인해 상처 받은 친구의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처럼 구성해서 읽었다. 상처톡을 맡은 두 DJ들은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말들과 힘이 되는 말을 전해주었다. 상처톡이 끝나고 상처를 치유해 줄 노래 'WAY BACK INTO LOVE'를 '문예부의 대표적인 선남선녀' 공연팀 친구들이 불렀다. 공연팀 친구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자 집에서 드럼, 피아노, 기타까지 연습하며 우리의 진심을 전하고자 했다. 그 이후 한영인들이 직접 친구나 가족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전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막간을 이용하여 한영의 강남스타일이라 불리우는 선플송의 뮤직비디오를 상영하였다. 영상을 만드는 팀이 따로 있었지만 공연팀의 팀장 재호와 영상팀의 팀장 윤석이와 부팀장 준형이 그리고 토크팀의 팀장인 내가 함께 문예부의 마스코트인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는 사명 하나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며 함께 기획했다.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공연팀 친구들이 노래를 녹음하고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영상팀 친구들이 출연하여 굉장히 수준 높은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이 영상은 교내 언어문화 개선 경진대회인 UCC 부문에 출품할 예정이다.

그 이후의 희망톡은 나와 토크팀 이본이 함께 진행을 맡았다. 한영인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희망톡 역시 상처 받은 친구의 사연을 역할극으로 구성하여 문예부원들이 직접 대본도 쓰고, 연기하였다. 우리는 한영인들에게 직접 역할극의 주인공 '상현'이에게 희망을 주고 힘이 되는 말을 종이에 적은 후 희망비행기로 접어 무대에 날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콘서트에 참여한 모든 한영인들이 상현이에게 진심이 담긴 희망의 메시지를 날려주었다. 이본과 나는 종이비행기에 쓰인 말들을 읽고 모두가 웃으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재치 있는 입담을 벌이며 애를 썼다.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게 걱정했지만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매우 즐겁게 진행했다. 종이비행기 이벤트가 끝나고 희망의 노래로 '풍선'이란 곡을 공연팀 친구들이 불렀다. 마지막으로 선플송을 문예부원 모두가 부르고 이 콘서트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선플콘서트를 통해서 평소에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담긴 말을 통해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비속어가 담긴 차가운 말들보다는 희망의 단어들로 가득 찬 따뜻한 말들을 전할 수 있는 한영인이 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거기 온 친구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유쾌하게 웃으며, 마음속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털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선플 콘서트 이후 참여한 친구들의 호평이 쏟아졌다. 매우 재미있었다는 친구부터 감동으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았다는 친구들, 앵콜 공연을 원한다는 친구들까지 있었다. 무엇보다도 선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뜻 깊은 행사로 잘 기획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다.

사실 올해 초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이미 습관처럼 되어버린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고치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오면서 조금씩 뿌듯함을 느껴가고 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많은 학생들이 우리 윤슬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플송도 흥얼거리고, 선플이란 말도 해 보고, 언어문화

개선이라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처음에 껴던 색안경을 한영인들도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그게 색안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플기자단 모두가 자랑스럽다. 그런 인식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 상의 ‘언어문화 개선활동’ 게시판과 여러 행사들을 통해 올바른 언어생활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고치게 되는 계기로 삼아가고 있다. 이론적인 부분들을 청소년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이 직접 겪어 보지 않고 느끼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습관을 뒤집기란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언어로 인해 상처 받은 상처들을 다시 한 번 꺼내어 보게 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나오는 뿌듯함을 직접 느끼게 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의 나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욕을 내뱉는 아이였다. 말하는 문장마다 습관적으로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할 정도로 더럽혀진 언어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많이 바뀌었다. 무심코 내뱉은 은어나 비속어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내가 뱉은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미리 생각한다. 지난 번 학교에서 있었던 ‘언어문화 개선 표어쓰기’ 행사에서도 나도 모르게 좋은 문구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쓰고 있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이렇듯이 청소년이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올바른 언어문화 개선 활동이 진행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런 우리 청소년들의 노력에다가 어른들과 사회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의 언어문화의 뿌리인 성인과 미디어 매체 등의 사회이다. 먼저 성인들이 모범이 되어 올바른 언어생활을 가꾸어 나가고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에서 욕설과 저급한 언어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욕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순화된 말이나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면 아름다운 한글만이 존재하는 미래도 올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살아간 청소년들의 말에는 한글의 순수성과 아름다움만 묻어나올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 바보동 (바른말 보호하기 활동)

인천 인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강주영

## 1. 활동동기

“여고생이 욕을 하는 것이 가장 꼴 보기 싫다.”

학교 실험 수업시간, 실험이 끝난 후 자투리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실험 수업은 보통의 수업시간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험이 진행되는데 이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의 평상시 말버릇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여러 반의 실험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대화 중 거친 말(=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특히 여학생이 욕하는 것은 정말 싫다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선생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나를 포함한 많은 아이들이 거친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 평소 나의 말버릇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보통 때였다면 그냥 느끼고 말았겠지만 우리를 자주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신 선생님 말을 듣고 나니 ‘말’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했고 이번 기회에 말버릇을 고쳐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거친 말은 거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비록 좋은 사람이라도 첫인상이 거친 말을 쓰는 모습이라면 분명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다. 아직 우리는 사회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친 말을 사용해도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언어습관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현재의 자신은 물론이고, 미래의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습관이 굳어지지 않은 이 청소년 시기가 습관을 고치는 적절한 시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 2. 바보동 배경

이렇게 내가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하는 이유도 알고 굳게 마음을 먹고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번 입에 배어버린 말버릇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대화 중에 거친 말을 섞어 쓰고 있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대화 중 거친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내 언어습관을 고치려고 하니 자연스럽게 주변 아이들의 말버릇이 귀에 들어왔는데, 아이들 또한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험악한 분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거친 말을 섞어 쓰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고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자연스럽게 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었다.

우리 학교에는 기숙사가 있다. 방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마다 특색활동을 한다. 보통은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주로 학업과 관련 있는 특색활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 했지만 이 특색활동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설득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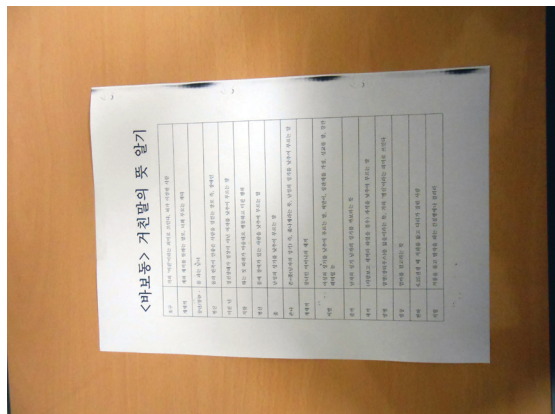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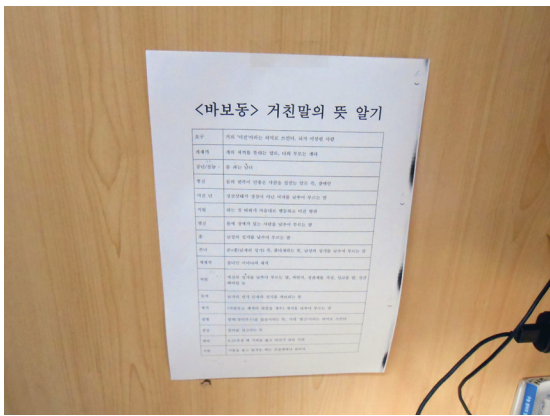
'바보동'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중의적 표현이다. 첫 번째 의미는 '바른말 보호하기 활동'이라는 특색활동의 목적의 줄임말이다. 두 번째 의미에는 이 활동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까라는 것을 담았다. 자기 주장이 강한 10대 사이에서는 거친 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우리가 바른말을 사용한다면 '다른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나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나 '나에게 향하는 거친 말에 똑같이 응수하지 않는 것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말에는 그 사람의 품격이 담겨 있다. 일시적으로는 바보가 된 기분이 들 수 있겠지만 고운 말을 씀으로써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품격 있는 바보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은 것이 '바보동'이라는 이름이다.

### 3. 바보동 활동

#### (1) 욕의 의미 알기

호구	거의 '미친'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뇌가 이상한 사람
개새끼	개의 새끼를 뜻하는 말로, 너희 부모는 개다
창년/창놈	몸 파는 남녀
병신	몸의 한쪽이 안 좋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즉, 장애인
미친 년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 여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
지랄	하는 짓 따위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미친 행위
병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
좃	남성의 성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
존나	존 = 좃(남자의 성기) 즉, '좃나게'라는 뜻, 남성의 성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
씨발	여성의 성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 씨반이, 성관계를 가질, 성교를 할, 강간해버릴 놈
좃까	남자의 성기 남자의 성기를 까보라는 뜻
새끼	(사람보고 새끼라 하였을 경우) 자식을 낮추어 부르는 말
염병	염병(장티푸스)을 앓을 이라는 뜻, 거의 '병신'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엄창	'엄마를 걸고'라는 뜻
찐따	6.25전쟁 때 지뢰를 밟고 다리가 잘린 사람
지랄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는 간질병이나 걸려라

바보동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욕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이다. 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욕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S양’이라는 친구가 있다. 나는 S양을 좋은 친구라고 평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절대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욕을 하지 않으니 대화가 혐악하게 되거나 서로가 기분이 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게 되고 그래서인지 S양과 대화를 하면 항상 즐거운 기분이 든다. 언젠가 내가 왜 너는 욕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S양은 욕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것을 들으면 저절로 욕의 뜻이 번역되어 싫다고 하였다. 이 대답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고, 바보동 활동의 좋은 방법이 되었다. 나를 포함해 욕을 사용하지만 정작 거친 말의 뜻은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이다. 거친 말에는 충격적일 정도로 혐한 뜻이 숨어 있다. 대부분의 거친 말은 부모님 또는 자신이나 성에 멸시를 뜻하는데, 이러한 뜻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거친 말을 하는 것은 부모님과 자신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거친 말의 뜻을 기숙사 이곳저곳과 우리 방 아이들의 책상에 붙였다.

(2) 격려제

두 번째는 거친 말을 사용할 때마다 주의와 격려를 주는 ‘격려제’이다. 처음에는 거친 말을 사용할 때마다 벌금을 받는 방법을 생각했다. 하지만 한 방원이 벌금제를 사용할 때 돈이 오히려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규칙을 어겨도 벌금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을 하게한다는 연구결과를 말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주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 방은

벌금제가 아닌 격려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격려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방원 중 누군가가 욕을 사용할 때 알아차린다.
- ② 다른 방원 모두가 욕을 사용한 방원을 걱정하고 염려한다.
- ③ 그 욕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구체적인 부정적 사례를 들어준다.
- ④ 거친 말을 대체할만한 고운 말을 제안한다.
- ⑤ 고운 말을 사용한다.

바보동 <첫 번째>	513호 이수민, 강주영, 최유리, 강한주, 김현민, 정진영
① 방원 중 누군가가 욕을 사용할 때 알아차린다.	K양 : 아 X발 존X 짜증나.
② 다른 방원 모두가 욕을 사용한 방원을 걱정하고 염려한다.	I양 : 아니, K양. 바보동 활동을 하자고 마음먹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욕을 하다니! C양 : 아직 바른말이 입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야. 앞으로 차차 나아지겠지. H양 : 거친 말을 사용하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 네가 거친 말을 사용한다면 입을 나쁜 영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해.
③ 욕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구체적인 부정적 사례를 들어준다.	K양 : 맞아 그렇게 굳게 마음먹었는데 거친 말을 사용하다니 부끄러워. C양 :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할 차례지? 아, 구체적인 부정적 사례를 들 차례야. 무엇이 있을까? J양 : 음, 딱딱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있을 법한 일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Y양 : 있을 법한 일? 그럼 이건 어때? 우리가 대학을 간다면 신입생 환영회를 할 거야. 그 때 잘생긴 선배 오빠가 저쪽 테이블에 있는데 우리가 거친 말을 고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씨X'이나 '젠장' 같은 말을 사용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창피하겠어? H양 : 맞아, 맞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나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인데 거친 말을 사용했다면 분명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겠지?
④ 거친 말을 대체할만한 고운 말을 제안한다.	Y양 : 그렇다면 방금 K양이 사용한 거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 물론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감정을 표현할만한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면 정말 답답할 거야. I양 : 존X는 이미 대체할 말이 있어. '굉장히'나 '엄청'이란 말을 사용하면 될 듯해. J양 : 그럼 씨X은? 이 말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하는 말이니 대체할 말이 있다면 거친 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많이 줄어들 거야. H양 : 글썄, 잘 생각이 안 나네. 좋은 생각 있니? C양 : 너희 연예인 이덕화 아저씨 아니? 언젠가 이 아저씨가 방송에서 '이런'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특유의 말투가 있어서 재미있게 느껴졌어. '씨X' 대신에 '이런'이란 말을 대신해보는 것은 어떨까? K양 : 좋은 것 같아. '이런'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인데다가 '씨X'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도 잘 맞는 것 같아.

⑤ 고운 말을 사용한다.

K양 : 내가 바보동의 첫 번째 주자가 되다니. 부끄럽지만 좋은 활동이었어. 앞으로는 절대 바보동의 주자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오늘 나온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할게.

#### 4. 소감

처음에는 언어습관 개선을 개인적인 실천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굳어버린 습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주위 아이들과 함께 언어습관을 개선하였다. 주위의 환경부터 바뀌니 저절로 거친 말이 튀어나오지 않게 되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고 지내는 방 아이들과 함께였기에 좀 더 쉽고 빠르게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또, 내가 먼저 제안하였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 말에 대해 조심하였고, 많은 친구들이 우리 방 아이들이 바보동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주었다. 이렇게 언어습관을 개선하는 데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건강한 신체에는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좋은 언어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면 바른 정신이 생기기 마련이다. 바보동의 목표와도 어울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고운 말이 입에 배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나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거친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거친 말을 사용하는 나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점이 매우 안타깝다. 많은 청소년들이 거친 말의 위험성을 느끼고 나로 시작해서 주변 친구들을 설득해 고운 말을 쓰고자 하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

# 욕(辱)의 욕(欲)을 뿌리치다

인천 부개여자고등학교 2학년 우지연

‘욕(辱)’은 참 이름을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한 번 입에 들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언어보다도 무의식 중 계속 사용하고 싶은 욕(欲)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내가 담배나 마약에 손을 대 본 적은 없지만, 욕(辱)을 사용하며 어찌면 그 중독성이 담배나 마약에 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가기도 했다. 욕(辱)에 대한 욕(欲)이 조금씩 스스로 통제가 힘들어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화에서 대화의 내용보다도 혀끝으로 욕의 맛을 음미하는 일에 치중함을 느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욕에 침식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비속어를 처음 접한 장소와 사용하게 된 장소 모두 학교였다. 많은 또래의 학생들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학교는 그 특성상 바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장소임과 동시에 그 반대의 지식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면을 가진 장소였다. 처음엔 눈살을 찌푸리다가도 새롭고 자극적인 언어의 신선함에 하나 둘 매료돼 버리는 학생들. 그렇게 학생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 점점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던 욕. 급기야 욕을 사용하는 학생을 세는 일보다 사용하지 않는 학생을 세는 일이 훨씬 더 빠를 정도가 되어버리자, 욕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다수’라는 변명 아래 죄책감을 없애주는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학교에서 욕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게다가, 마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맞추기 위해 음식에 첨가물을 넣듯, 한 번 욕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점점 더 거칠고 자극적인 언어를 원하고, 찾기 시작했다. 첨가물이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넣지 않으면 맛이 없다며 계속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 이 같은 풍경은 교실 안에서도 ‘욕’이라는 첨가물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게 몇 년간 이 같은 패턴이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것도 다른 학생들보다 완전히 제대로.

한 가지 내게 행운이었던 것은, ‘다수’에 가려진 ‘소수’의 욕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중 한 명인 승주가 내 친구였다는 점이다. 평소 “넌 다 좋은데 욕이 너무 많아.”, “말할 때 욕을 좀 줄여봐.” 라며 나를 나무라던 승주가 어느 날 종이 한 장을 들고 우리 반 교실로 뛰어왔다. ‘말의 힘 도전 21일!’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가자 선착순이야!”라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내 손목을 잡고 끄는 승주 탓에 얼떨결에 시청각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일본어 선생님께서 한창 무언가를 설명하시던 중이었고, 이미 다른 친구 몇 명이 뒷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라며 조용히 면박을 주었다. 잠시 후 고무줄로 된 팔찌 하나가 내 앞에 놓여졌다. 그제야 승주가 들고 온 안내장을 찬찬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 말의 힘 도전 21일!

최근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 진행되는 ‘말의 힘 도전 21일!’은 자신의 언어 습관의 개선을 원하는 부개여고인들에게 평소 언어습관을 반성하고 비속어에 물들지 않은 올바른 언어 습관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젝트로...〈중략〉...

### ▶ 도전 방법

1. 하루의 시작과 동시에 주어진 팔찌를 오른 손목에 착용합니다.
2. 욕을 1회 사용했을 경우 왼쪽으로 갈아 끼니다.
3. 2회 이상 사용했을 경우 도전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며 그날 당일 사용한 1회의 욕은 하루가 지나면 누적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또한 안내장과 거의 동일했다. 각자 오늘부터 책상에 놓여 있는 팔찌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 가지 추가된 사실은 선생님께서 SBS에서 방영되었던 실험다큐 ‘말의 힘’에서의 실험을 언급하시며 우리도 직접 실험을 통해 말의 힘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험 방법은 간단했다. 도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하루에 한 번, 두 개의 밥덩이에 각각 다른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와 같은 ‘배려하는 말’, 다른 하나는 “짜증나”, “싫어” 등과 욕설을 포함한 ‘배설하는 말’로, 과연 배려하는 말과 배설하는 말을 들은 두 개의 밥덩이 중 어느 밥덩이가 더 빨리 부패할까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설명을 마치고, 각자 ‘버릴 말’을 쪽지에 적어 냄으로써 활동을 시작되었다. 다목적실을 나서며 친구들은 “지연아, 네가 특별히 가장 힘든 ‘혼자만의 싸움’이 될 거 같은데?”, “지연이 벌써 말수가 적어졌어.”라며 벌써부터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나를 놀리기 시작하는가 하면, 승주마저 “너한테 완전 필요한 프로그램이잖아, 이거.”라며 웃었다. 겉으로 볼만 쉼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사실 그때 나는 친구들에게 여간 고맙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스스로가 욕에 침식당하고 있음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된 후였기 때문이다. 솔직히 당분간 욕을 하지 못할 나를 보며 내가 화가 나서 욕을 사용하고 싶도록 장난을 치는 친구들이 얄밟기도 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정말 확실하게 참아서 반드시 나 자신을 바꿔보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이렇게 나와 조승주, 유혜빈, 홍윤지, 이효주 다섯 명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고비는 첫날부터 내게 찾아왔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늘상 사용하던 언어습관을 바꾸려니, 서울 토박이인 연기자가 처음 사투리 연기에 도전하는 것 같이 마냥 어색하고 막막하기만 했다. 어색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처음엔 장난스럽게 국어책 읽는 듯한 투로 대화하며 재밌어하던 친구들도 조금씩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으로 욕을 걸러내고 다른 표현으로 갈아 끼우는 작업을 거치느라 말도



느려졌고, 그러다보니 대화에 흥이 나지도 않았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친구들과 수다 떨기’에 제약이 생겨버린 것이다. 첫날이라 아직 밥덩이 실험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설명을 들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넘겼던 실험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느껴지게 되기까지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활동 시작 이후 매일매일 적던 일지에는 그날 이렇게 적혀졌다. “외국어를 쓰는 것 같다.”

결국 삼 일째 되던 날, 승주를 제외한 우리 모두의 도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모두 둘째 날 2회 이상 욕을 사용해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21일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오히려 비속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결국 우리는 그 후로 21일간 주변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단 한 차례의 실패 없이 도전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도전이 중반 쯤 마무리되었을 무렵, 여전히 둘째 날 이후로 도전에 실패한 날은 없었지만, 거의 매일같이 한 번씩의 실수를 저질러 팔찌를 바꿔 끼게 되어 고민이었다. 이미 도전을 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나 대화는 많이 자연스러워졌는데, 놀랐을 때 나도 모르게 감탄사처럼 튀어나오는 욕이 문제였다. 인터넷 게임을 하다 실수했을 때, 방 안에서 큰 벌레를 봤을 때, 길 가다 넘어질 뻔 했을 때, 교과서에 실수로 다른 색깔 펜으로 필기했을 때……. 하루에도 몇 번 씩 위기가 찾아왔다. 여태까지는 운 좋게 넘겼지만,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 와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이 해당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이었다. 익숙해지기 전에는 그 상황에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것이다. 먼저 수첩을 한 권 들고 다니면서, 욕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뻔 했을 때, 사용하고 싶었을 때 세 개로 분류해서 그때그때 목록을 적었다. 며칠이 지나자, 한 분류당 열다섯 개 정도의 상황이 모였다. 앞서 언급한 상황들이 그 중 일부이다. 이제부터는 그 상황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방법은 예상 외로 단순했다. 일부러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조금 덜 예민하게 살도록 연습하는 과정을 가졌다. 게임을 할 때는 일부러 다섯 번 정도 지고 난 후 시작했고, 급할 땐 다른 색깔 펜으로 필기했다 쉬는 시간에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다시 필기 내용을 썼다. 이렇게 생활하기 시작하자 평소엔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입이 먼저 반응했던 놀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텀이 생겼고, 그 상황에서의 욕을 대체할 물을 정했다. 놀란 상황에서 욕이 나오려 할 때는 주먹으로 입을 가리거나, “앗!”과 같은 짧은 감탄사로 대체하려 노력했고, 실수로 욕을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입을 가리고 “앗!” 하고 정정했다.(물론 팔찌는 바꿔 끼웠다.) 남이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도전 막바지쯤에 되어서는 거의 완전히 버릇이 고쳐지게 되었다.

도전 마지막 날, 그간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을 참느라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단 한 명도 이제 욕을 써도 된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스스로도 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언어습관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직접 눈으로 ‘배설하는 말’을 들은 밥덩이가 ‘배려하는 말’을 들은 밥덩이보다 훨씬 더 빨리 씹는 장면을 확인했고, 결정적으로 이미 바뀐 언어습관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활동 중 동아리 후배 한 명이 내게 “어차피 어쩌다 욕을 사용했어도 그냥 안 했다고 하면 아무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해요?”라며 질문한 적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생님께서 옆에서 감시하는 것도 아닌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는 이런 방식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쉽게 성공을 안겨다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초반엔 함께 도전한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고, 기왕에 할 도전이라면 도전 기간 동안 확실하게 해서 나 자신을 한 번 바꿔보자는 의욕에서였다. 또 중반엔 내게 ‘말의 힘 도전 21일!’활동을 하도록 이끌어준 친구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서였고, 후반엔 그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다른 친구들로부터 들은 칭찬과 격려, 응원의 말에 보답하고 싶어서였다.



‘말의 힘 도전 21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지금, 아직까지도 나는 팔에는 고무줄 팔찌를 차고 호주머니에는 수첩을 넣고 다니며 생활하고 있다. 도전이 끝났다고 긴장을 풀고 다시 예전의 언어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앞으로 약 한 달간은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늦은 시작과 힘들었던 과정만큼 욕의 침식에서 벗어난 지금의 내 모습이 만족스럽고, 자랑스럽다. 또 한 가지 다짐한 점은, 도전을 하기 이전의 나와 같은 언어습관을 가진 친구를 만날 경우 눈치 보지 않고 지적해주는 것이다. 도전 막바지에 격려해주던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때서야 친구들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나의 언어습관을 좋지 않게 생각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친구 또한 나와 같은 착각을 하며 생활하다 보면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언어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승주가 내 손목을 잡아끌고 뛰던 그날이 지금 내게 미친 기분 좋은 영향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미소를 만드는 사람들

논산 싼뿔여자중학교 3학년 김지은

## 1. 우리들의 언어습관 의식하기

우리가 '말걸 바르기' 동아리를 만들게 된 것은 거칠어가는 우리들의 말을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자는 3학년 몇몇 친구들의 의지에서였다. 우리는 시처럼 아름다운 언어들 들으면 오글거린다고 말한다. 누군가 국어 시간에 자신의 느낌을 시의 표현처럼 비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면, 핀잔을 주어 발표한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래서 다시는 그 친구가 그와 같은 오글거리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한다.

오늘날 십 대 언어에 대한 근심이 언론을 비롯한 각양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에서까지 욕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자고 외치며 다큐까지 제작하며 나섰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일까? 좀 더 일찍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았다면, 지금과 같이 습관이 들어찰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그것을 떼어내는 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다.

얼마 전에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의 무리를 만났다. 버스를 기다리며 물려 있는 학생들이 도를 넘는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올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거리에 뿌려놓은 언어의 대부분은 어둡고 부정적인 내용들이다. 마치 범죄자들이 할 것 같은 무서운 표현들이다. 그런 현상은 교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그렇지 않은 친구나 누구라도 예외를 둘 수 없이 아이들은 자신의 말 뒤에 쉽게 욕설을 감탄사처럼 붙여 사용한다. 친구들은 스트레스 해소에 욕이 최고라고 말하며 정당화하기도 한다.

## 2. '말걸 바르기' 동아리와 함께 관찰하기

서슴지 않고 비속어와 은어가 난무하는 대화를 하는 내 또래 학생들을 보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뜨끔함을 느낀 적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십대의 얼룩진 언어문화는 현실보다는 가상세계인 온라인에서 더 과격하고 사용 빈도도 높다. 게임 창이나 소셜 네트워크가 욕설로 얼룩져 있는 것은 더 이상 예삿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욕설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말을 실감 하고 있는 요즘, 나는 이러한 세대에서 십대들이 언어문화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에서 학생회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12명의 친구들과 '말걸 바르기'라는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 우리는 2012년 5월 16일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친구들로 구성된 동아리이다.

민혜숙 지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동아리는 각 반의 반장들이 주체가 되어 구성했다.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 우린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들의 언어에 대한 반성과 우리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였다. 활동 방식은 한 주간 계획을 짰 후 그에 따른 실천을 하는 방법으로 전개하였다. 1학년 후배들은 초반에 의견을 내는 데 의기소침했지만 활동을 해나가면서 한 주 한 주의 시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맨 처음 계획했던 동아리 활동은 우리 학급 언어실태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 학급 언어실태 관찰일지를 만들어 일주일 동안 기록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만든 설문 내용을 학급 친구들에 돌려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질문 내용은 욕사용 횟수와 욕의 뜻을 알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었다. 반장들이 내온 통계자료를 다시 학년 부장들이 통계를 내었고 최종 통계는 학생회장인 내가 마무리했다.

### 3. '말걸 바르기' 동아리의 신문 만들기 캠프 열기

이러한 활동을 시작으로 우리는 신문 만들기를 하였다.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또 우리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조사하여 기사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하여 우리의 활동이 열기를 더할 때 우리 동아리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충남지부 전통전래예술원이 주최하는 '예절 교육'과 함께 신문 만들기를 하였다. 1박 2일을 하면서 함께 교육하고, 활동하면서, 머리를 맞대어 밥을 해먹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보람 있는 체험을 하였다.

신문 내용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욕 사용 실태와 욕을 줄일 방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직접 그린 언어문화 관련 만평과 포스터까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담았다. 아이들 모두 정말 기자가 된 것처럼 진지하게 활동했다. 여하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기사를 지도 선생님께서 최종 편집을 해주신 후 인쇄소로 보내졌다. 며칠 후, 인쇄가 되어 하나의 실물로 등장한 신문을 보면서 느꼈던 기분을 나는 잊지 못한다. 알을 품고 있던 어미 닭이 병아리를 보았을 때의 기분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언어 신문을 만든 후 우리는 전교생에게 신문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들이 만든 신문 기사를 통해 마음의 움직임이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우리는 관찰일지를 쓰기로 하였다. 관찰일지는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의 언어 사용의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관찰일지를 쓰면서 우리의 동아리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어 일거양득이었다.

### 4. 축제를 이용한 '말걸 바르기' 우리말 사랑 운동

관찰 일지를 꾸준히 쓰면서 우리 동아리에서는 다가오는 학교 축제 기간에 '한글을 T에 디자인하기' 콘테스트를 열기로 하였다. 8월 30일, 우리 학교 '백합축제' 테마방에서 '한글을 디자인해요!'라는 주제로

콘테스트를 열었다. 욕설 사용은 바르고 고운 말에 대한 인식 부족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콘테스트였다.

다른 재미있는 체험이 많아서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에 와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축제기간이 되자 우리 동아리 먼저 만석이 되었다. 6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한글 디자인 콘테스트에 참여하였다. 자리가 없어서 돌아간 친구들도 꽤 있었다. 콘테스트가 끝난 후 심사를 해서 총 5명의 학생에게 문화 상품권을 증정했다. 상을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콘테스트에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와 함께 학생 언어문화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지닌 친구들이 너무 고맷다.

## 5. '말걸 바르기' 주체로 운영한 인성 주간

축제가 끝난 후 우리는 인성 주간을 운영하였다. 우리는 먼저 '고운 말, 바른 말, 우리가 먼저 사용해요!',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요!'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만들었다. 예쁜 색깔의 종이로 화려하게 장식된 글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해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들이 디자인한 배지를 만들었다. '미소 짓는 말! 사랑을 짓는 말! 해요!!'라는 내용의 글과 민정이와 헤빈이가 디자인 이미지를 넣어서 우리만의 배지를 제작했다. 우리는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뿌듯했다.

인성 주간인 9월 3일부터 7일까지 우리는 일찍 등교하여 교문 앞에서 4명은 피켓을 들고, 나머지 8명은 배지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삼 일은 교내에서, 또 하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교외에서 진행되었다. 기분 좋았던 일은 우리가 제작한 배지가 인기가 많았다는 것이다.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도 배지를 더 받고 싶다고 찾아왔다. 우리는 신이 나서 캠페인에 더 적극적이었다. 우리가 초등학교 교문 앞에 서서 썬뿔여자중학교 말걸 바르기에서 직접 만든 배지라고 말하며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고 하면서 배지를 달아주자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하게 한 번씩 쳐다보았다. 초등학교 동생들도 일찍 등교하여 못 받은 친구들을 데리고 교문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이 있었다.

나는 논산이라는 소도시에서 우리 썬뿔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같아서 뿌듯하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들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마음만은 기쁨으로 한 가득 차 있었는지 다들 미소를 머금고 즐겁게 캠페인에 임했다. 나는 그런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 멋져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를 밝고 맑게 정화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타 지역행사에 가서 타 지역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의 배지를 나누어주면서 캠페인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 6. 우리 학교의 특별한 ‘언어 문화개선 국어수업’

이렇게 한 주에 걸친 9월 인성 주간을 활용한 캠페인을 마친 후 2학년은 국어 수업 시간에 ‘욕설 추방 광고문안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고, 3학년은 국어 수업 시간에 ‘언어문화 개선 표어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글짓기보다 짧은 메시지로 내용을 전달하는 표어쓰기에 친구들도 다들 의욕적으로 참여했다. 다들 즐겁게 참여한 덕분인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 그중 한 작품을 시상하기도 하였다. 상을 받을 줄 몰랐는지 우수한 아이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피어났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표어를 활용한 스티커를 만들어 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친구들이 낸 우수 표어와 디자인으로 스티커 제작사에서 스티커를 제작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앞서 말했던 배지와 함께 지역 축제에서 나눠 주며 캠페인을 한 번 벌이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지도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수업시간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욕이나 말로 인해 발생했던 일들을 수기로 쓰는 대회가 열렸다. 우리 동아리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서포터를 해주시는 지도 선생님의 덕분에 든든한 마음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

## 7. ‘말걸 바르기’ 동아리가 나에게 준 선물

내가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욕설 사용빈도가 줄어들었던 것도 들 수 있지만 우리말에 대한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방과 후 시간을 쪼개서 하는 동아리 활동이 성가시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난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솔직히 나는 영어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한마디로 문화 사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말걸 바르기’ 활동과 한글을 T에 디자인하기 콘테스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게 되었는데, 자료들을 통해 한국어가 옷의 패턴으로 디자인 되고 있으며 이미 그 위상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 언어가 위기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로 인하여 활동을 통해 나는 우리말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애착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이다 보니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심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 활동을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에게 언어 사용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체험을 했다.

지금까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잘된 점들을 꼽자면 일단 우리 반에서 욕설 사용량이 줄었다는 점과 욕설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점이다.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한 친구의 입에서 욕이 튀어 나올 때면 다른 친구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왼쪽 가슴에 달려 있는 배지를 가리키곤 한다. 그러면 욕을 하려던 친구는 아차 싶은 듯 췌쪽 웃어 보이며 바른말로 고치는 것을 보게 된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욕설 사용자 스스로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는 것 말이다. 나는 이러한 점으로 우리 동아리 활동은 반은 성공했다고 보고,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욕을 섞은 언어의 문제를 아예 근절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결심했다.

이 활동을 하는 동안 아쉬웠던 점은 활동이 우리 학교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9월 인성주간에 교외로 나가 캠페인을 벌이긴 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논산시 전체에 청소년의 언어문화가 바뀌기는 역부족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잠깐 어느 한 구석에서 시도한 캠페인으로 논산시 내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학생들의 언어습관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동아리 활동을 타 학교에까지 이어나가게 될 때 보안해야 할 점도 채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학교 학생회와 연합하여 학생 언어문화 개선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의 언어습관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면, 더 넓고 구체화된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 회의 때에 타 학교와 연합하여 활동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취약점이 보완된다면 동아리 활동이 더 활기를 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다른 계획은 시험이 끝난 후 11월에 우리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스토리를 이용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하려고 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띄워지게 된다. 바르고 고운 말 속에 담긴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니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긍정의 힘을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면 우리 동아리는 '미소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른다. 가는 말을 곱게 만들어 오는 말도 곱게 만드는 동아리! 이것이 바로 '말걸 바르기'인 것이다.

# 달라진 나의 삶

대전 그라시아스음악학교 1학년 이정아

2012년 3월, 꽃샘추위가 채 가시기도 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나의 첫 생일이었다. 생일 때마다 우리 반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작은 파티를 한다. 마침 그날은 담임 선생님이 출장 중이셔서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 대신 교장 선생님께서 손수 내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주셨다. 아주 크고 예쁜 케이크였다. 나는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려고 우리는 그 앞에 북적거리며 모여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나를 케이크 쪽으로 확 밀었다. 그 순간 내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말해서는 안 될 단어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3초의 정적이 흘렀다. 불길한 예감과 함께 뒤통수가 뜨뜻해지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았다. 맙소사, 내 뒤에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다. 마치 눈으로 찍은 사진처럼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당황하고, 또 너무 부끄러웠다. 그 뒤로 나는 다시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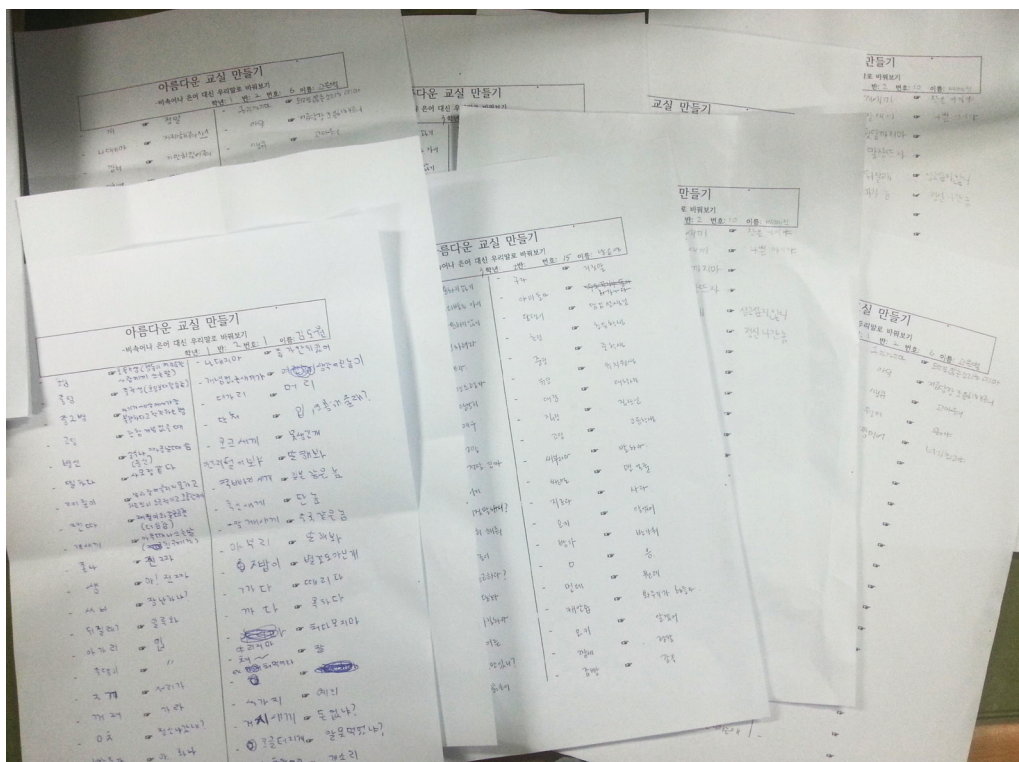
최근의 교실은 어른들이 듣기에 수많은 비속어와 은어들로 얼룩져 있다. 이제는 웬만한 비속어나 은어들은 한두 차례 듣고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함축적이고 암호화 되고 있다. 수업시간 도중에도 우리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고, 그런 말의 뜻을 모르는 선생님들은 영문을 몰라 하시거나 고개를 가우똥하신다. 나중에 우리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소통'이 화두에 올라 있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온갖 매체에서 매일 검색어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소통'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은어와 속어들이 우리 세대와 기성세대를 더욱 단절의 세계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먼저 비속어 사용이 왜 좋지 않은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비속어'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했다. 자극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뇌는 항상 흥분상태에 있고, 결국 감정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못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았다. 생각해보니 이상하기는 했다. 우리는 욕을 하면서 잘도 웃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욕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 깔깔대며 웃을 수 있던 것일까?

이런 점들에 대해 의문을 느낀 나는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비속어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뜻을 품은 친구 몇 명과 함께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욕은 개선해야할 문젯거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지기 싫다는

것이다. 누군가 한 명이 욕을 하면 그 욕이 서서히 공기 중에 퍼져 감염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미 욕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다짐 차원이 아닌 집단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고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들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비속어나 은어를 사용하면 1회당 500원의 벌금을 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호의 감시가 있을 때는 효과가 있어 보였지만 곧 흐지부지 되거나 서로 욕을 했니 안 했니로 싸우기도 했다. 결국 벌금을 걷어 좋은 곳에 쓰려고 했던 이 운동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실은 곧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또 우리는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대전 충청 우정청에서 주관하는 엽서쓰기대회에 출전해 보기도 했다. 엽서를 쓰면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알았다는 학생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다. 또 고마운 사람들에게 쓰는 글이었기 때문에 예쁜 단어를 많이 떠올려 볼 수 있었다.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모두 일시적인 대안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먼저 우리가 자주 쓰는 욕들을 정리하고, 그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순화시켜 보았다. 예를 들어 ‘좃나→매우, 많이’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보니 ‘왜 멀쩡한 우리말을 놔두고 그동안 그렇게 듣기 싫은 말들만 골라 썼을까.’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런 활동을 한 후에는 친구들이 ‘매우’나 ‘많이’를 강조하면서 말하고, 우리는 그런 작은 변화가 참으로 신기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꿈 찾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이 학교 전체로 뻗어나갔다. 또, 학교에서 있었던 명사 초청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앞선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명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 중 꿈을 실현하고 싶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보고, 그 종이를 내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내 방 침대 맞은편에 붙여놓고 수시로 봤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저 몇 자 적어 붙여놓은 그 종이가 내 생활을 바꾸어놓고 있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행동이 내 꿈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해서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생각 또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치 꿈을 적어놓은 그 종이가 나를 이끄는 것 같았다. 이렇듯 우리는 마음과 말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말이 달라지니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 말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나는 선생님께 ‘사랑합니다.’ 운동을 제안했다. 어느 날 내가 빵을 사먹으러 간 빵집에서 손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라고 인사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요즘 언어순화에 한참 관심이 많던 나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해주셨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만 했지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운동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지나가는 선생님들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만 했지 입 밖으로 꺼내보지 않은 탓이었다. 엄청 쑥스럽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선생님도 우리도 모두 웃음이 가득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쑥스러워서 웃고, 창피하고 머쓱해서 웃고, 또 기분이 좋아서 웃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 교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욕을 남발하는 친구들이 줄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감정표현에 서툴렀던 남학생들에게 일어났는데, 근래 들어 남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자연스럽게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감정 표현에도 더 이상 인색하지 않고, 서로 기분도 좋아지고, 학교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었던 운동이었다.

또,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친구들과의 관계이다. 나는 여학생이지만 입이 거친 편이어서 나를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달라지고 난 후, 더 많은 친구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나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두려움을 갖는 친구들이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 덕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방법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한 욕 개선활동은 나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었다. 예로부터 사람을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으로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것이 있다고 배웠다. 그런데 이제야 왜 그런 기준들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중 ‘언(言)’과 ‘서(書)’는 모두 말과 관련된 것이다. 바로 ‘언(言)’은 음성언어, ‘서(書)’는 문자언어였던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듯 사람의 말씨만 봐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한 사람의 마음과 가치관과 생각이 녹아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말씨’이고, 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욕 개선활동을 통해 정말 큰 것을 얻게 되었고, 말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욕 스파이’가 욕을 물리쳐드립니다!

서울 경희여자중학교 2학년 장혜연

중학교에 올라와서 한 가지 놀랐던 점은 욕설이었다. 우리가 ‘날라리’라고 부르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 중 반 이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사용했다. 알고 보면 상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는 욕설을 마치 좋은 뜻을 가진 형용사처럼 아무 단어에나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다. 처음에는 욕설을 사용하는 분위기에 휘말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욕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욕을 하는 친구들은 어딘가 질이 나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욕을 섞어서 말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욕설에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 샌가 나도 욕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욕의 의미 등을 보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 친구는 은어나 욕을 쓰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이 대화에 끼워 주지 않을까봐 욕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 번 쓰게 된 욕은 금방 고쳐지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욕을 많이 하는 친구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고, 국어 선생님께서도 욕을 고쳐야 하는 이유, 언어 순화를 성공한 학교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사실 욕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친구가 금방 언어 습관을 고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수업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욕을 고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1학년 2학기 중간 쯤, 담임 선생님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셨다. 방법은 이렇다. 하루에 3명씩 담임 선생님께서 조회시간에 ‘욕 스파이’를 비밀리에 정해주신다. 그 ‘욕 스파이’들은 반 친구들 중에 욕을 한 마디라도 한 친구들을 기억했다가 종례시간 때 욕을 사용한 친구를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욕을 사용했다고 지목된 친구들은 다음날 하루 종일 언어에 관련된 명언이 적힌 노란 브로치를 교복에 달고 다녀야 했다. ‘욕 스파이’ 세 명이 모두 지목한 친구는 그날 교실 청소도 맡아서 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눈에 잘 띄는 브로치를 달고 다니기가 너무 창피해서 말을 조심하게 되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욕 스파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믿지도 않았고 너무 우스워보였다. 역시나 욕을 습관처럼 쓰는 친구는 단골손님으로 지명되었다. 몇 번 브로치를 달고 하루를 보내면서 이 프로젝트와 창피함에 익숙해지는 친구도 있었다.

나의 경우는, 욕을 썼다고 지목받은 적은 없었다. 아무래도 지목 당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으로 나를 신경을 쓴 것 같다. ‘욕 스파이’는 해본 적이 있었다. 오히려 내가 ‘욕 스파이’가 되어 보는 것이 더 효과가 좋았다. 내가 스파이가 아닐 때는 ‘욕 스파이’의 존재를 잊게 되는데, 내가 스파이가 되면

하루 종일 말할 때마다 내가 친구들을 지목해야 하는 스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더 신경 쓰게 된다.

욕을 자주 썼던 친구들은 자신이 '욕 스파이'로 지정된 날에 본인이 욕을 사용했다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 친구가 자신의 욕설에 반성하는 것 같아서 뭐랄까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활동을 하고 나서의 느낌을 물어보았다.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이 활동 자체가 재미있었다는 친구도 있었고, 이것 이후로 욕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친구도 많았다. 욕의 첫 글자가 나오더라도 어디선가 스파이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작년엔 같은 반이 아니어서 이 활동을 하지 못했던 한 친구는 자신의 반에서도 하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욕 스파이' 프로젝트가 특별히 대단하지도 않고 복잡한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반 친구들의 말은 더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졌다. 그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는 친구가 있다. 1학년 때 욕쟁이로 매일 지목을 당했던 친구가 지금 같은 반 내 옆자리 친구이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와 대화를 해보면 말에서 욕이 차지하는 비중이 활동을 진행한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은 긴장해서 욕에 특별히 신경을 썼던 것 같지만, 지금은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서 욕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 간단하고도 재밌는 '욕 스파이'가 작년 우리 반 친구들의 언어 습관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나름 성공을 거두고 나서, 이것을 제안한 담임 선생님과 임원들, 같이 노력해줬던 친구들이 고맷다. 분명 친구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뒀을 것이다. 이렇게만 노력해도 고쳐질 수 있는 것을 왜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안 좋다는 욕 사용을 고칠 수 있었는데도 왜 아무 생각 없었나 한심하기도 했다. 그래도 나름대로 나에게 뿌듯하고 자발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려 한 우리 반이 기특해 보였다.

이 프로젝트 후에 지금 나는 또 다른 실험을 진행 중이다. 같은 반인 친구와 함께 나름대로 언어 순화 실험을 하고 있다. 보통 학생들이 욕을 쓸 때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기쁠 때처럼 감정이 격해질 때인 것 같다. 그 친구와 나도 욕을 습관처럼 많이 쓰지는 않지만, 흥분해 있을 때 느닷없이 욕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 그럴 경우에 서로의 말을 욕설이 아닌 다른 말로 바꿔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존x 기분 나쁘다.'라고 말했다고 쳐보자. 그럼 상대방이 '너무 기분 나쁘다.'라는 식으로 고쳐서 말해준다. 그렇게 하면 친구나 나나 금방 자신이 말을 너무 거칠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비슷한 상황에서는 다시



욕설을 쓰지 않는다. 이것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실험을 하기 전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된다.

‘욕 스파이’ 프로젝트와 친구와의 실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조금만 노력해도 욕을 사용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멋있다고 생각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사용한 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습관이 되어

버렸다면, 작년 우리 반 친구들이나 지금 나와 친구처럼 자발적으로 노력해 보았으면 한다. 그러면 어느 샌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될 것이다.



# 교사 부문

01 대 상

에이, 선생님! 친구들끼리 무슨 존댓말을 써요?

부천 부곡초등학교 | 교사 이명섭

02 최우수상

응답하라 윤슬 프로젝트

서울 한영고등학교 | 교사 김소라

03 최우수상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이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이 되길 바라며...

거제 옥포중학교 | 교사 이영미

04 우수상

Farewell, Bad Words!

— 성포 CLEAN Project를 전개하며...

안산 성포고등학교 | 교사 김신표

05 우수상

청소년의 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데

인천 북인천여자중학교 | 교사 장덕자

06 우수상

작은 실천으로 만드는 바른 말 세상을 꿈꾸며

충주 용원초등학교 | 교사 장문각

# 에이, 선생님! 친구들끼리 무슨 존댓말을 써요?

부천 부곡초등학교 교사 이명섭

“우리 반 규칙은 친구들끼리 존댓말을 쓰는 겁니다.”

3월 우리 반에 들어와 약간 긴장한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말도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친구들끼리만이 아니라 부모님, 동생들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해요. 그리고 올해는 전교생이 존댓말을 써야 해요! 멋지죠?”

이제는 거의 포기한 얼굴로 도대체 자신들이 왜 존댓말을 써야 하는지 이유라도 알려 달라는 아이들에게 나는 8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직한 2004년 나는 아이들과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다. 전세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전철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는데 전철 안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승객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넘치는 욕설과 비속어. 선생님이 있는데도 아이들은 큰 목소리로 사람들 귀를 괴롭게 했다.

“아이들 선생님이시죠? 아이들 말이 너무 험하네요. 말은 곧 마음의 거울이자 행동의 시작인데 안타깝습니다.”

이리 저리 아이들을 단속하는 나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들의 인성지도에 실패한 것 같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아이들은 말을 험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이런 저런 다툼을 벌이기 일쑤였다.

그 후 나는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말을 바꿔볼까? 말로 시작되는 그 다툼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부부 간에 존댓말을 써서 부부 싸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연예인의 인터뷰를 보고 아이들끼리도 존댓말을 사용하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그 결과 싸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 해 3월 첫 날부터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은 존댓말을 쓰게 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아이들의 평상시 말끝에 ‘-요’를 붙이게 하고 친구를 부를 때는 이름 끝에 ‘-님’을 붙이게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어 아이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사탕과 칭찬 스티커 등으로 긍정적 강화를 실시했고 존댓말을 잘 쓰지 않는 친구들은 3줄이 넘는 독서 명언을 외우게 했다. 사실 나도 이때는 지금까지 내가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게 할 줄 몰랐다. 그냥 말, 아이들의 그 험한 말이 너무 싫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다툼이 싫었다. 시간이 지나고 4월, 5월이 되자 우리 반 아이들은 존댓말이 습관이 되었다. 지나가던 선생님들도 우리 반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존댓말 쓰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고 한 마디씩 칭찬을 하셨다. 학교 주변 울타리 쓰레기 줍기에 나가도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환하게 웃으시며 아이들을 칭찬하셨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그 해 나는 싸움 때문에 아이들과 면담을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줄곧 나는 6학년 담임교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존댓말로 시작하는 친구 사이 때문에 생활지도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우리들의 존댓말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다. 어느덧 존댓말은 나를 표현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3년 전 부천 부곡초등학교로 전근을 와서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성공적인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경험을 다른 선생님들과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운명적이라고 할까? 한국교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2011년에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예산을 지원 받아 다양한 언어문화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그해 6학년 전체가 존댓말을 사용하여 언어문화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을 우리 학교에서 몰아냈다.

그리고 2012년, 우리 반, 우리 학년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존댓말을 사용하기로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 평소 나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 주시던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 교육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렘. 더욱이 2012년 경기도교육청 지정 언어문화 개선 부문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로 지정이 되었기에 나는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처음 시작한 일은 일단 선생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일이었다. 초등학교 교육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월부터 교직원 연수 및 회의 때마다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나의 경험과 방법들을 공유했다. 작년에 나와 함께 존댓말 사용을 교육하셨던 여러 선생님의 도움으로 선생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도 3회 실시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배부할 인성교육 자료집을 제작하였다(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1~3학년, 4~6학년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사실 바른말은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존댓말만 강조해서는 올바른 언어문화 개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실천 중심의 효경교육과 기초생활습관 지도, 동요 부르기와 독서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우선 바른 마음이 자리 잡도록 지도했다. ‘부곡 꿈바라기’라는 인성교육 자료집에는 2주마다 각자 자신들의 언어문화 개선 실태를 반성하는 ‘바름이 3사랑 실천 카드’가 있다. 그리고 주 1회 가정에서 실시할 다양한 ‘효경교육 목표표’를 제시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바른 마음을 키우도록 했다. 또한 자료집에는 주





‘사실 가끔 반말을 할 때도 있고 욕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을 그 일이 지금은 하고 나면 왠지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다’

어느 아이의 언어문화 개선 수기의 일부분이다. 지금까지 내가 아니 우리가 했던 언어문화 개선의 노력들이 100% 아이들에게 성공이고, 100% 아이들이 바른 말을 사용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바른 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잘못된 언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생겼다.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님, 도대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 보라구요!”

이런 대화 속에서 싸움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화를 내다가도 웃고 마는 아이들이 많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심하는 학교에게 우리 학교의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포기 하지 않고 아이들의 언어 지도에 노력하면 생각보다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반만 존댓말을 쓸 때는 그리 어렵지 않았던 일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 어려운 점이 많았다. 협조가 잘 되지 않는 반도 있었고 저학년 아이들은 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나고 나한테 따져 묻기도 했다. 포기하고 싶은 적도 사실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과 수업을 통해 변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포기하지 않은 것이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바른 말이 바른 행동이 되고 바른 행동이 올바른 성격이 된다.’는 것을 올해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점심시간.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장난치며, 존댓말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다. 그 모습이 참 예쁘다.



# 응답하라 윤슬 프로젝트

서울 한영고등학교 교사 김소라

윤슬 프로젝트 - '윤'이 나는 세상을 위한,  
'슬'기로운 언어생활 만들기

\* 기획 의도 : '윤슬'이란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이라는 순 우리말로 햇빛과 달빛은 언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한영인들의 작은 마음 하나하나를 의미하고, 비록 지금은 몇 명이 외치는 잔물결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언어개선에 대한 모두의 의지와 실천이라는 큰 파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고자 했음.

그런 의미와 함께 '윤이 나는 세상을 위한'의 '윤', '슬기로운 언어생활'의 '슬'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덧붙여 이름을 만들어 보았음.

- ▶ 윤슬 프로젝트의 3대 운동
1. 욕설과 언어폭력 추방
  2. 선플 달기
  3. 우리말글 사랑

## I. 개선 활동 기간과 활동 내용

※ 개선 활동은 학교 차원과 '선플기자단' 동아리(기존 '문예편집부' 동아리였으나, 올해 '윤슬 프로젝트'를 잘 운영하기 위하여 '선플기자단'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걸고 활동함) 차원 중심으로 이뤄졌음.

1. 활동 기간 : 2012년 3월 28일~2012년 12월

### 2. 활동 내용

활동 내용	활동 기간	활동 대상	담당자
학급 언어개선 이어달리기 활동 기획 및 지도	5월 ~ 12월	전교사, 1,2,3학년 전교생	김소라 기획 → 학교 부서 제안 → 학교장의 승인 → 담임 선생님들의 협조

활동 내용	활동 기간	활동 대상	담당자
선플기자단 창설 및 활동 지도	5월 ~ 12월	선플기자단, 1,2,3학년 전교생	김소라 기획 → 선플기자단과 함께 활동
'선플콘서트' 기획 및 공연 지도	8월 ~ 10월 17일	선플기자단, 1,2,3학년 전교생	김소라 기획 → 선플기자단과 함께 활동
축제기간에 언어문화 개선 부스 운영 및 지도	7월 ~ 8월 30, 31일	선플기자단, 1,2,3학년 전교생	김소라 기획 → 선플기자단과 함께 활동
다양한 캠페인 활동 기획 및 지도	9월 ~ 10월	선플기자단, 1,2,3학년 전교생	김소라 기획 → 선플기자단과 함께 활동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백일장, 표어 및 UCC 공모전 기획 및 운영	5월, 10월	1,2,3학년 전교생	김소라 외 공동기획 → 담임 선생님 협조
언어문화 조사 보고서 제작 지도	3월 ~ 7월	선플기자단, 1,2학년 전교생	김소라 기획 → 선플기자단과 함께 활동
언어문화 개선 토론회 참가의 체험학습 지도	7월	선플기자단	김소라 기획 → 선플기자단과 함께 활동

#### (1) 학급 언어개선 이어달리기 활동 기획 및 지도 (2012년 5월~12월)

학교 홈페이지 상에서 이뤄지는 학급을 주축으로 한 '한영 New Wave' 활동으로, 1주일씩 언어개선 활동을 릴레이 식으로 이어가는 활동이다. 격려와 칭찬의 긍정적인 언어 사용, 올바른 언어 사용의 정착화를 목표로 하며,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간 선플러와 학기말 선플러, 언어개선 우수학급상을 시상하기로 하였다. 해당 학급 외에도 전교생이 수시로 언어개선 이어달리기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장을 열어놓았다.

1) 첫 번째 활동은 '선플 휘날리기' 활동으로 그 주의 동아리캠페인 테마와 활동에 대한 칭찬을 포함한 선플을 학급 구성원들이 다는 활동이다.

2) 두 번째 활동은 '언어개선 1대 100' 활동으로 비속어나 부적절한 대화 상황 등을 제시하면 각자 올바른 언어나 적절한 대화로 다시 바꿔봄으로써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하고, 격려와 칭찬의 긍정적인 언어, 슬기롭고 올바른 언어 사용으로 이끌고자 하는 활동이다.

언어개선 활동 해당 기간	언어개선 활동 해당 학급
5월 22일 ~ 5월 25일	1-1, 2-1, 3-1, 3-7, 3-13
5월 29일 ~ 6월 1일	1-2, 2-2, 3-2, 3-8, 3-14
6월 4일 ~ 6월 8일	1-3, 2-3
6월 11일 ~ 6월 15일	1-4, 2-4, 3-3, 3-9, 3-15
6월 18일 ~ 6월 22일	1-5, 2-5, 3-4, 3-10, 3-16
7월 9일 ~ 7월 13일	1-6, 2-6, 3-5, 3-11
7월 16일 ~ 7월 20일	1-7, 2-7, 3-6, 3-12

◀ 1학기 언어개선이어달리기 활동 기간과 해당학급을 지정해 놓은 표, 3학년은 실질적인 활동이 1학기에만 이뤄질 수 있으므로 1학기에만 배치하였음.



▲ 학교홈페이지 첫 화면에 만든 한영 New Wave 배너, 학생들은 이 배너를 누르면 언어개선이어달리기 활동 게시판으로 이동하게 된다.

<필독> 선플다는 방법 안내(제목이나 이름에 꼭 학번 달아주세요) 김소라 | 2012-05-18

조회수 208 | 추천수 1

원래 '선플'은 인터넷 기사에 좋은 글을 다는 것이지만, 한영 New Wave 활동에서의, 즉 이 게시판에서의 '선플'은 그 주의 '동아리캠페인 활동'에 대한 선플입니다. 즉 긍정적인 내용(경려, 응원, 감사 등)의 메시지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선플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번. 제목: '동아리명, 학번, 이름'을 꼭 달아주세요. <예> '아우멘토팀', 10101김소라  
크래아 사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내용: 그 주의 동아리캠페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

3번. 글자수: 40자 이상

▲ '선플 다는 방법'을 소개한 안내 문구

26	5월5번째주 제2호 주간선플러를 발표합니다.	선플기자단 김소라선생님	20
25	5월5번째 학급언어개선이어달리기활동에 올라온 의견 정리입니다.	선플기자단 한서연	20
24	5월5번째 학급언어개선이어달리기활동 통계입니다. [1]	선플기자단 이환비	20
23	6월 3번째 언어개선이어달리기 학급은 1-4, 2-4, 3-3, 3-9, 3-15반입니다.	선플기자단 김소라선생님	20
22	6월 3번째 해당동아리는 철학연구반입니다.	선플기자단 김소라선생님	20
21	5월4번째주 제1호 주간선플러를 발표합니다. [2]	선플기자단 김소라선생님	20
20	5월4번째 학급언어개선이어달리기활동 통계입니다.	선플기자단 송윤석	20

▲ 언어개선이어달리기 해당 학급 소개, 활동이 이뤄진 다음에는 참가한 학생들의 숫자 통계, 의견정리, 주간 선플러 등을 뽑아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 언어개선 1대100에 올렸던 부적절한 대화 상황

## (2) 선플기자단 창설 및 활동 지도 (2012년 5월~12월)

'한영 New Wave' 학급편인, 학급 언어개선 운동의 실질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돕고자 '선플기자단'을 창설, 활동한다. '선플기자단'의 활동은 아래와 같다.

### 1) '선플 휘날리기' 창 담당팀

'선플 휘날리기' 창에 올라온 선플 점검, 통계 내기, 선플이 아닌 글에는 다시 선플을 달아 학생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리고 각 주의 선플 내용을 정리하여 공지사항에 게시, 공유한다.

### 2) '언어개선 1대 100' 창 담당팀

매주 학생들이 생각해볼 미션을 올리고, 좋은 의견 또는 반대로 코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글엔 선플을 달아 학생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각 주의 의견을 정리하여 공지사항에 게시, 공유한다.

### 3) 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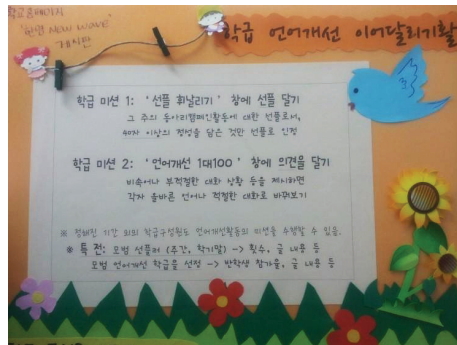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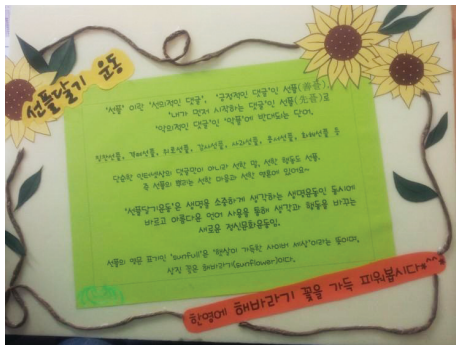
- ① 매주 초, 언어개선 이어달리기 해당 학급에 찾아가 선플의 개념과 목적, 학급 미션 등을 소개한다.
- ② 선플달기를 친근하게 이끌기 위해 선플송과 선플 UCC를 제작하여 캠페인에 활용한다.
- ③ 선플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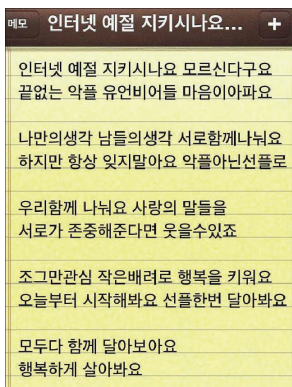
▲ '선플휘날리기' 창에 올라온 선플들과 이에 다시 선플을 단 사진



▲ '언어개선 1대100' 창에 올라온 의견들과 이에 선플을 단 사진



◀ 선플기재단이 제작, 사용한 홍보물들



▲ 선플기재단이 만든 '선플송' 가사



▲ 선플기재단의 캠페인 활동 사진들



▲ 교내에서 찍은 선플송 UCC 한 장면



▲▶ '선플송'을 부르며 선플달기 캠페인을 벌이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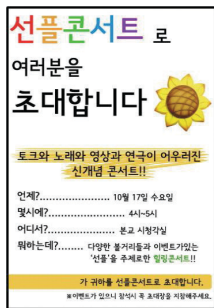


▶ 매주 언어개선이어달리기 해당 학급에 들어가 선플송을 부르며 언어개선 활동을 소개하는 선플기자단 홍보팀 사진

(3) '선플콘서트' 기획 및 공연 지도 (2012년 8월~10월 17일)

'선플콘서트'는 선플기자단들이 선플달기의 기본 뿌리인 '선한 말, 선한 마음'을 테마로 토크, 영상, 노래, 연극을 학생들의 힘만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신개념 콘서트이다. 제1부 상처편, 제2부 희망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로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희망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전교생, 전교사 대상으로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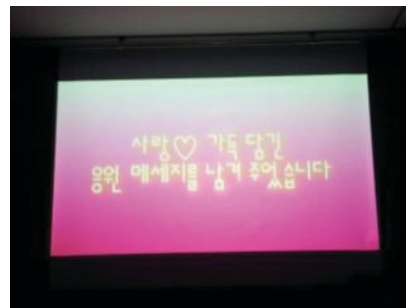
토크팀	보이는 라디오, 희망비행기 (대본쓰기, 토크 진행, 역할극 구성)
영상팀	오프닝영상, 힐링 한마디 영상 (인터뷰 촬영 및 영상 제작)
공연팀	상처송, 희망송 밴드 공연 (노래 연습, 드럼, 피아노, 기타 반주 연습, 율동 등)



▶ 선플콘서트 초대장



▶ 영상 제작팀들을 불러 제작 의도를 물어보며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전파하는 MC들



▶ '힐링 한마디' 영상



▶ 언어폭력으로 상처받는 역할극



▶ 희망송을 부르는 공연팀



▶ 객석에서 날아온 희망 비행기들을 펼쳐 희망 사연을 읽는 사진

(4) 축제기간에 언어문화 개선 부스 운영 및 지도 (2012년 7월~8월 30, 31일)

학교 축제인 '한맥제' 기간(8월 30, 31일)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부스를 기획, 운영하였다.

- 1) 언어개선은 선플송을 타고 : 그동안 선플기자단에서 홍보하고 다녔던 선플송을 인기 TV 프로그램이었던 '쟁반 노래방'과 결합시켜 게임을 하면서 선플송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활동
- 2) 달.빛.바.다. : 학생들의 욕설 언어문화에 대한 쟁점을 제시, 찬반 의견을 묻는 활동, 비속어를 순화시킨 대체어를 제시하여 의견을 묻는 활동, 비속어의 뜻을 물총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익히는 활동 (\*달라지는 나, 빛나는 언어, 바로알고, 다시쓰기)



◀ 선플송  
쟁반노래방 준비,  
활동사진



◀ 달.빛.바.다  
게시판과 학생들  
참가 사진

(5) '윤슬프로젝트' 다양한 캠페인 활동 기획 및 지도 (2012년 9월~10월)

1) 등교 전 교문에 서서, 쉬는 시간 교실을 돌아다니며 '윤슬 프로젝트' 피켓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



- 2) 점심시간에 언어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안내 및 활동 소개 발표문을 전교에 방송하다.
- 3) '윤슬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서명받기 운동을 벌인다.
- 4) 손도장 찍기 활동 및 '나도한표' 행사 활동을 벌인다.



▲ 손도장 찍는 사진



▲ 스티커로 나도한표를 행사한 사진

- 5) 우리말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는 한글 사랑 행사



- ① 한글에 대한 상식 문제를 묻는 '한글 황금종을 울려라' 행사를 실시했다. 미리 출제 문제와 답을 전교 벽에 순차적으로 붙인 후 참가 의지를 돌우고, 흥미를 유발했다.
- ② 한글 글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예쁜 손글씨를 뽐내봐' 행사를 실시했다. 이 때 문구도 옥 대신 쓸 수 있는 대체 문장으로 준비하여 자연스럽게 언어순화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다.
- ③ 한글이 쓰인 옷이나 순 한글 이름을 보여주면 간단한 상품을 주는 '한글을 보여줘' 행사를 벌였다.

(6)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백일장, 표어 및 UCC 공모전 운영 (2012년 5월, 10월)

- 1)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백일장을 5월에 먼저 실시하였다. 언어문화 개선에 대해 전교생이 모두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게 하였다. 글제를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선정하였고,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누어 실시 후 수합하여 여러 선생님들과 수상작을 신중하게 골랐다. 수상작은 2학기 표어 및 UCC 공모전 안내 때 낭송하게 하였다.



### (8) 언어문화 개선 토론회 참가의 체험학습 지도 (2012년 7월)

선플기자단 학생들을 데리고 국립국어원 주최의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토론회’에 참가하여 언어문화 개선의 필요성과 의지를 돋우었다. 또한 토론회 참가 이후에는 토론회 논제였던 ‘청소년 언어 문제인가, 문화인가?’로 동아리 내에서도 찬반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그 논제는 추후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 의견 묻기 활동으로도 활용하였다.



## II.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후 소감

국어 교사로서 10여 년 동안 올해만큼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열정을 쏟아 본 경험이 없습니다. 큐피트의 화살에 맞은 것처럼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무엇이든’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꽃힌 이후로,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여러 활동들의 밑그림들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 후엔 그것들에 대해 ‘선플기자단’ 동아리 학생들과 토론하듯 얘기를 나누면서 구체화하고,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 전교생들과 함께 현실화시키다보니 어느새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어문화 개선 활동은 하면 할수록 바로 우리의 뿌리인 ‘우리말글’살이에 대한 것이라 그런지 애정이 더해지지만 합니다. 어느새 저 자신의 일부, 제 교직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교사로서의 정체성마저 새롭게 변화시킨 이 활동에 대해 정말 성공했구나, 아니면 실패했구나 하고 한 쪽만의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언어생활이라는 것이 단편적으로 평가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지표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점을 찾기가 모호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공’이라는 희망의 껍질을 집어 들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우선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교사인 제가 변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교사 한 명이 변하면 그로부터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교사인 제가 긍정적인 언어, 배려의 언어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같이 활동을 주도하고 실행에 큰 도움을 준 선플기자단 학생들 대부분도 ‘시나브로’ 스스로의 언어생활을 자각하고 반성하며 달라지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활동 따로’, ‘나는 그대로’가 아니라 여러 활동들을 준비하고, 후배들, 급우들, 선배들 앞에 서서 언어문화

개선을 외치는 과정들을 통해 점점 언어개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참여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토론회’에 선플기자단 중 몇을 데리고 참가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특별한 체험을 하러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지금은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언어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모범이 되고자 애쓰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언어개선 활동은 바로 우리 학생들의 영혼을 살리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거친 말, 짧은 말, 가벼운 말 속에는 청소년들의 아픈 영혼이, 덜 자라고 찢긴 영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바쁜 학업 생활에 쫓겨, 이미 까칠해진 마음을 둔 탓에 그 속을 어색하게 비집고 뜨끈한 마음을 꺼내 표현하는 말하기는 너무 느리기도, 비생산적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만져주면, 언어가 달라지듯이, 언어가 달라지면 마음결도 따라 부르르 떨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와 선플기자단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했던 언어개선 활동은 ‘한번 멈춰 서!’, ‘한번 관심을 갖고 봐!’, ‘한번 마음을 살짝 열어 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란 팻말을 과감히 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교내를 건다 멈춰 설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고 지켜볼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무딘 마음을 살짝이라도 열어 줄까?’를 함께 고민하고, 교사 차원의 위에서 아래로의 지시적인 안내를 탈피하여 동아리 중심으로 최대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의 속을 채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게끔 하였습니다. 활동을 주도할 학생이 이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활동을 이끄는 것과 아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어개선 활동을 일회성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 장기간으로 틀을 잡은 점, 학생들의 귀만이 아닌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열게끔 활동들을 기획했던 점을 성공의 요인으로 들고 싶습니다. 또한 활동의 처음, 중간, 끝 모든 단계에도 다 무게를 두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결과물을 내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중간 과정을 중요시함으로써 점점 작은 물결이 일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파도를 만들어 내는 것, 그런 파도들이 한 군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만들어질 때 그것들이 다시 부딪히며 계속 역동적으로 물결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이 없다면 어떤 작은 물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새바람을 타고 한영인은 서서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계속 응답하라, 한영인!

#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이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이 되길 바라며…….

거제 옥포중학교 교사 이영미

2009년 본교에 발령을 받아와서 아이들에게 느낀 첫인상은 ‘교양이 없이 막말과 욕설을 내뿜는다.’는 것이었다. 작은 시골학교에서 착하고 순한 정서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온 나에게 주는 충격은 실로 놀라웠다. 시골 아이들이라고 욕설과 비속어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본교의 아이들은 무슨 영화에 등장하는 조직 폭력배마냥 거친 말들만 사용하였다. 특정 아이들이긴 하지만 몇 명의 아이들은 입 밖으로 내뱉는 말 중 조사 말고는 전부가 비속어와 욕설인 아이들도 있었다. 담임으로서 학교의 국어교사로서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하면서 욕설과 비속어에 대한 지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 수 없었다. 지도를 할 때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안 하는 척할 뿐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본교는 ‘대우조선’이라는 중공업이 있는 섬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주변 환경이 유흥업소가 많고 부모님의 2/3 이상이 조선소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하시며, 노래방, 술집,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신다. 이러한 가정환경, 주변 성장 환경 등으로 어린 시절부터 거친 언어 문화권에 노출되어 자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연스럽게 거친 언어를 습득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사용하며 배우고 자랐다.

새로운 학교에 전근을 와서 학생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 1~2년을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국어 교사로서 이렇게 거칠어진 아이들의 말을 아름답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욕설과 비속어, 은어 등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개선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중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총, 충청북도 교육청’ 주관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 공모를 한다는 소식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반 아이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동의를 얻은 후 공모전에 신청을 하여 선도 교실에 뽑혔다. 처음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방향을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려니 서로 조금 부끄러워하며 소극적으로 행동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실천 활동들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면서부터 변화의 바람은 일기 시작했다. 선도교실의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가 조금 더 넘는 시간 동안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을 운영하며 본 교사와 학생들은 정서적인 면, 인성적인 면에서 많이 성장했다. 선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의 언어와 더불어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욕, 비속어, 은어, 인터넷 용어 등의 사용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생활하는 모습과 행동면에서 모범적으로 변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생각 또한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핵심 변화였다.

특히 본교의 교과교실제 A형 연구학교 운영<sup>1)</sup>으로 인해 선도교실(선도교실 운영 교사의 교실)로 수업을 오는 모든 학생들 또한 선도교실에 게시된 다양한 자료와 활동 누적물을 보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는 언어문화 개선 선도 교실의 영향이 파급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 또한 긍정적 변화라 하겠다. 선도교실의 운영이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과 학교 전체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의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의 사용량이 선도교실을 운영하기 전보다 감소하였고 둘째, 학생들이 다른 학급의 친구들과 선·후배에게 바른 말 사용을 권하는 행동을 하는 바른 말 고운 말 전도사가 되었다는 것과 바른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셋째,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의 사용 빈도가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학교생활 태도 또한 모범적으로 변화하였다. 넷째, 전교생, 전교직원에게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사용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확산되었다. 이는 캠페인이나 계기 교육 등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이 직접 언어문화 개선과 관련된 프로그램 속에서 활동하고, 몸소 체험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진정으로 함께 즐겼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여섯째, 조금씩 조금씩 누적된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 프로그램 활동이 의도된 가시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교육적 파급 효과까지 유도하였다고 생각해 본다. 일곱째, 선도교실의 운영이 학부모님의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참여율을 증가시켰다. 설문지 결과 자신의 아이들은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조금 사용한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본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셨다. 여덟째, 선도교실의 운영이 학교생활 지도와 학생 인성 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선도교실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은 선도교실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며, 학교 전체 교직원의 협조,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교장, 교감 선생님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활동이 낳은 파급적인 효과는 2012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욕설 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 협력진으로 활동하게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 2011년 본교에서 운영한 '선도교실'의 학생들이 연구 과정을 운영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연구 보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도교실 활동의 운영이 모두 원활하고 긍정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 대상의 활동들은 계획과 달리 진행되거나 그 효과나 결과가 예상과 달리 도출되는 경우가 있다. 본 선도교실의 운영에 있어서도 일부 활동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어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한다면 차기에 진행될 언어문화 개선 활동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성공적인 선도교실 운영의 몇 가지 개선 사항, 수행 방안,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 시범학교로 학생들이 교과목에 따라 교실을 찾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받는 형태.

먼저 ‘언어 표준화 자료’, ‘욕, 해도 될까요?’ 동영상 등과 같은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매체 자료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둘째, 선도학교, 선도교실 운영의 중간 점검 및 활동사항 보고 등을 통해 선도학교 및 선도교실 담당자 간의 정보 교류하며 셋째, 설문 조사지, 프로그램 운영 활동지, 학습지, 체크리스트 등의 자료도 체계적으로 제작하여 전체적으로 일괄 보급 및 지원하고 넷째, 캠페인 팸플릿, 계기 교육 자료, 교실 게시 자료 등의 일괄 제작 및 보급하면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프로그램의 운영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외부강사 초청 특강을 위한 외부 강사 인력풀 활용을 위한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며 여섯째, 선도학교 및 선도교실 확산을 위한 워크숍, 컨퍼런스 운영 횟수, 개최 장소의 확대(지역별 운영)하고 일곱째, 동영상 시청 소감문, 실천 후기, UCC, 표어 제작, 만화 그리기 등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영역의 공모전 실시 운영한다. 여덟째, 또한 선도교실 운영 지원금 확대로 더욱 다양한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더욱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에도 2011년에 이어 <학생언어 문화 개선 동아리 ‘맑은 누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 폭력과 언어 폭력을 연계하여 학생 자치회 간부를 중심으로 언어개선 활동을 운영 중에 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미국 텍사스에선 폭풍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처럼 선도 교실을 운영하며 실행한 다양한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지금은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선도교실 학생의 변화라는 작은 일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선도교실의 학생뿐만 아니라 본교의 학생과 교직원,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언어문화가 개선되는 폭풍을 몰고 올지도 모를 일이다.

위의 제언에서 제시한 몇 가지 요소들은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을 한 학기 동안 운영하며 몸소 느끼게 된 결과들이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앞으로의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 선도학교’의 운영이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아니라 학생, 학교, 학부모 모두의 언어문화가 개선되는 아름다운 폭풍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본다.

#### [ 참고 ] 청소년 언어 문화 개선 활동의 성공 사례 실천 활동

##### 가.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 운영 학생 선서

- (1) 기 간 : 2011. 09. 05
- (2) 장 소 : 교실
- (3) 대 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 (4) 내 용
  - 선도교실 2학년 3반 35명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에 안내 후 실시
  - 학생 35명 전원 반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읽고 모두 함께 복창
  - 전자철관을 활용하여 선서문의 내용을 게시

(5) 주요 성과

- 학생 35명과 교사가 함께 9월~11월까지 활동할 ‘언어문화 개선 선도 교실’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 마련
- ‘언어문화 개선 선도 교실’의 학생, 바른 말 고운 말 지킴이 모두가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 마련
-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겠다는 계기 교육의 일환이 됨
- 선서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언어문화 개선 다짐’을 제작

(6) 활동 사진



▲ ‘언어문화 개선 선도 교실’로 바른 말 고운 말 사용을 위한 선서식



▲ 바른 말 고운 말 사용을 위한 선서문 전자 칠판 게시

## 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언어 사용 실태’ 전교생 설문조사 실시

(1) 기 간 : 2011. 09. 05

(2) 장 소 : 교실

(3) 대 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4)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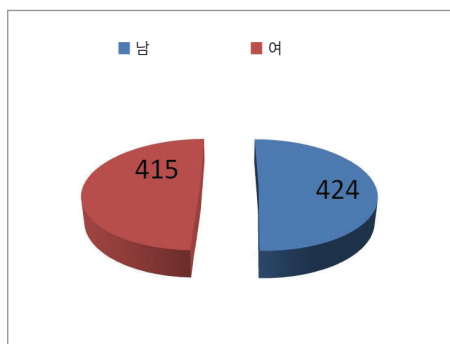
- ‘언어 사용 실태 설문 조사지’ 자체 제작 활용
- 9월 5일 월요일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전교생에게 일괄 배부하여 설문 조사 실시
- 학급 담임 선생님이 통계를 내어 선도교실 담당 운영자에게 결과 집계표를 제출
- 선도교실 학생 및 전교생 사전 언어 사용 실태 파악 자료로 활용

(5) 주요 성과

- 선도교실 학생 35명과 함께 전교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교의 학생들의 언어 사용 실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
- 선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할 기본 자료 제공
- ‘언어 사용 실태 설문 조사’의 실시로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반성하는 계기를 제공
- 통계 자료 분석  
아래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 여 학생을 불문하고 욕을 사용한다. 욕을 빼면 대화를 이어 나갈 수가 없고 욕은 친구와 대화하는 하나의 언어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욕의 사용이 어느 정도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개선이나 규제 정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도 이상 수긍하지 않고 있다. 거친 언어문화권 (유흥업소가 많은 주변 환경, 조선소 현장직, 노래방, 술집, 음식점 운영을 하는 부모님이 많음 등) 속에서 자랐으며 요즘은 더욱이 모든 아이들이 욕, 비속어, 은어 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욕을 자연스럽게 습득해 온 언어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욕의 사용 횟수와 빈도, 개선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학생 스스로의 긍정적인 변화 등 언어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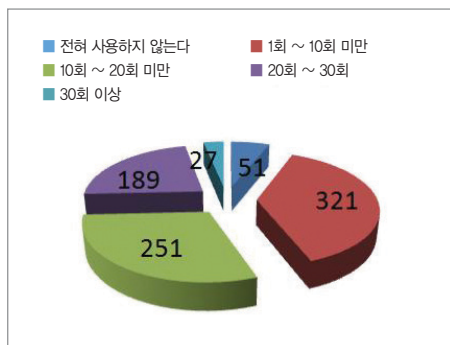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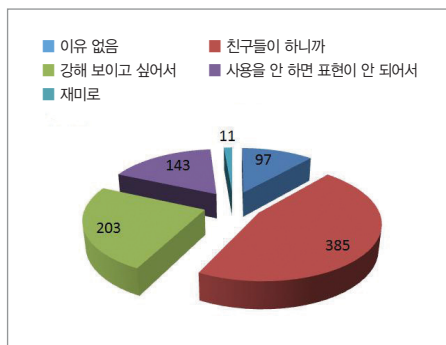
❖ 욕 사용 여부 인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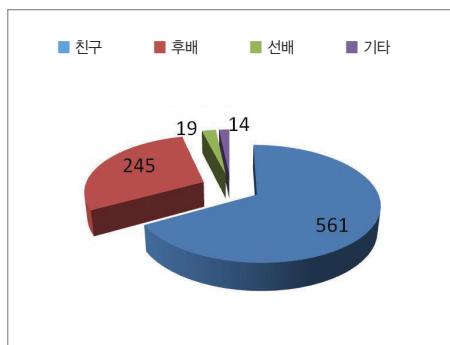
❖ 하루 욕 사용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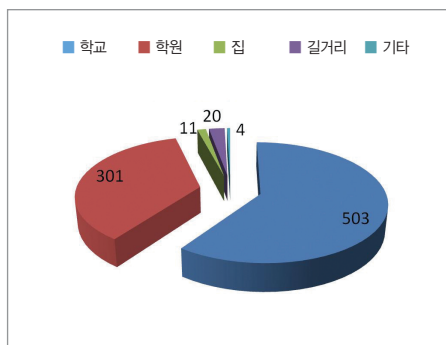
❖ 욕 사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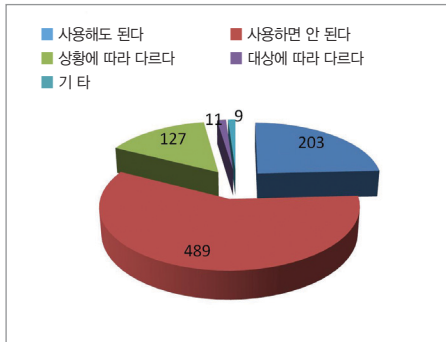
❖ 욕 사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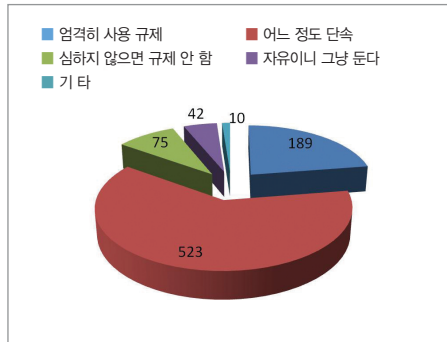
❖ 욕 사용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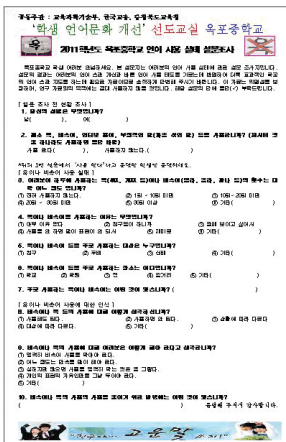
❖ **욕 사용에 대한 인식**



❖ **욕 사용 규제 여부**



(6) **활동 사진**



▲ '언어 사용 실태 설문 조사지' 활동 모습

◀ '언어 사용 실태 설문 조사지' 견본

**다. '바른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칭찬 온도계' 누가 기록**

- (1) 기간 : 2011. 09. 05 ~ 11. 30
- (2) 장소 : 교실
-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 (4)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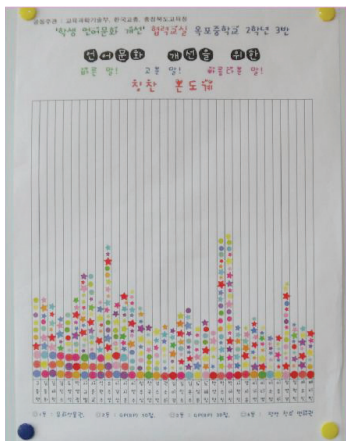
- 바른 말, 고운말,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매일 조·종례 시간에 친구들이 추천
-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칭찬 온도계'에 스티커를 붙여 줌
- '칭찬 온도계'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담임 선생님 상장, 문화상품권, GP 또는 BP(칭찬 점수)<sup>2)</sup>를 부여하여 동기 유발

2) 각 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위해 활용하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으로 GP와 BP 점수 상위 우수자에게 연말에 학교장 상을 주는 프로그램

## (5) 주요 성과

- 바른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 학생의 수와 사용 빈도가 증가
- 선도교실 학생 간 서로 좋은 일을 추천하는 활동 속에 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서로 우애가 돈독해짐
- 실질적으로 바른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려는 학생들의 행동이 현저하게 증가
- 교과교실제<sup>3)</sup>로 인해 다른 학급에서 선도교실로 수업을 받으러 오는 다른 반, 다른 학년 학생들도 참여하고자 함

## (6) 활동 사진



▲ '칭찬 온도계' 점수를 확인하는 학생들의 모습

▶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바른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칭찬 온도계' 게시 모습

## 라. '바른 말 고운 말 지키미' 창단 및 캠페인 활동 실시

(1) 기간 : 2011. 09. 05 ~ 11. 30

(2) 장소 : 교실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8명

(4) 내용

- 학급에서 지원 및 추천을 통해 '바른 말 고운 말 지키미'로 활동한 학생 8명을 선발
- 다양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
- '바른 말 고운 말 사용하기 서명 운동'을 장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동
-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전체 언어문화 개선 분위기 조성의 선도적 역할

3) 선도교실 운영 교사 본인은 2학년 국어(전담)과 3학년 한문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 본 선도교실(2학년 3반)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옴(본교는 2011학년도 ~ 2012학년도까지 교과교실제 A형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학교로 지정)

(5) 주요 성과

- ‘바른 말 고운 말 지킴이’ 학생의 지명을 통해 바른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분위기 정착
-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됨
-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음
- ‘바른 말 고운 말 지킴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바른 말 사용하기, 욕 자제하기 등을 권유하는 ‘바른 말 고운 말 전도사’ 집단을 스스로 형성
- ‘다른 학생들의 본보기와 모범이 되어 ‘바른 말 고운 말 지킴이’를 희망하려는 학생의 수가 증가
- 학교 전체 언어문화 개선 분위기 조성과 확산에 기여

(6) 활동 사진



▲ ‘바른 말 고운 말 지킴이’ 학생 및 학생들 활동 명찰



▲ 한글날을 맞아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캠페인’활동 모습(아침부터 방과 후까지 활동을 함)



▲ ‘바른 말 고운 말 지킴이’ 학생들이 활용한 캠페인 팸플릿

마. ‘행복의 날 7day’의 운영

- (1) 기간 : 2011. 09. 07(1회), 10. 01(2회), 11. 07(3회), 12. 03(4회)
- (2) 장소 : 교실
-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 (4) 내용
  - 매월 첫 번째 토요일 ‘행복의 날’로 지정하여 서로 칭찬 하는 말, 기분이 좋은 날, 즐거운 것만 하는 날로 지정

-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우리 말 바로 알기 O, X 퀴즈’ (9월), ‘네 꿈을 펼쳐라 (10월)’, ‘우리는 하나 (11월)’, ‘Sorry 카드 주기 (12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 우수 활동 학생과 우수한 모둠에게는 선생님의 개별 상품을 증정

(5) 주요 성과

- ‘행복의 날 7day’을 지정하여 서로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등을 해줌으로써 언어습관 개선 유도
- 학생들의 기본적인 언어습관 개선과 학급 전체 바른 언어 쓰기 유도, 학급의 즐거운 분위기 조성, 학급의 단합 등 긍정적인 결과 도출

(6) 활동 사진



▲ ‘우리말 바로 알기 O, X 퀴즈 활동 모습’



▲ 자신의 꿈을 적은 ‘미래 명함’을 게시하고 친구들이 스티커로 우수작을 직접 투표, 친구의 꿈에 대한 희망 메시지 주기



▲ ‘우리는 하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글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구들과 서로 교감하고 협동하는 모습



▲ ‘Sorry 카드 주기’라는 프로그램으로 평소 욕이나 비속어, 부정적인 말 등을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Sorry 카드’ 주고 선생님께 인증샷 보내기 활동 우수자 시상

바. ‘언어문화 개선 협력 교실’ 운영 가정통신문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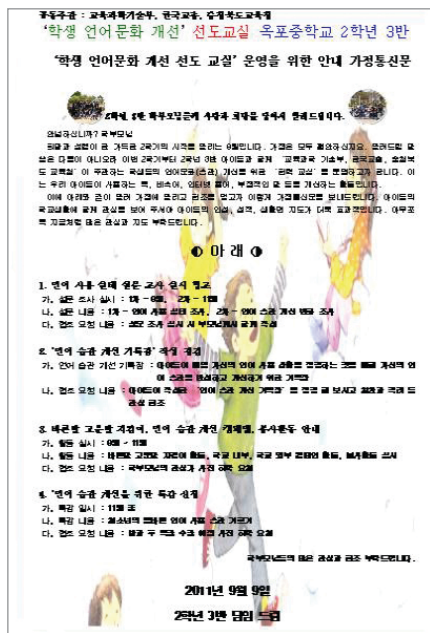
- (1) 기간 : 2011. 09. 09
- (2) 장소 : 교실
-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 (4) 내용

- ‘언어문화 개선 협력 교실’ 운영, ‘언어사용 실태 설문 조사 실시’, ‘언어습관 개선 기록장 점검’, ‘언어습관 개선 캠페인 및 봉사활동’, ‘언어습관 개선을 위한 특강 수강 협조’ 등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가정통신문 제작
- 가정통신문을 직접 학생의 집으로 발송하여 학부모님께 협조를 요청하고 미리 사전에 안내를 통해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가정과 연계하여 운영

(5) 주요 성과

- 학생들이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을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함으로써 학교와 학교 밖의 상황에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 분위기를 조성
- 가정과의 연계지도로 학생들이 실제 언어습관을 관찰하고 그 변화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음
- 학생들이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함께 지도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생각에 언어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통해 그 효과성 검증

(6)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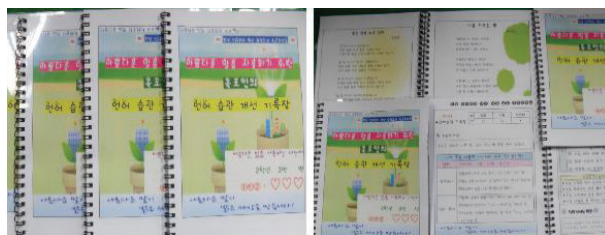
▶ 자체 제작한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의 가정에 직접 발송한 가정통신문 견본

사. ‘1인 1 언어습관 개선 기록장’ 갖기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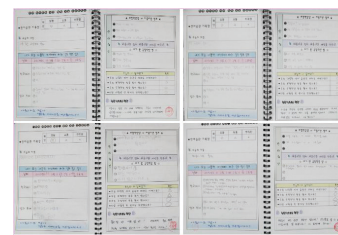
- (1) 기간 : 2011. 09. 09 ~ 11. 30
- (2) 장소 : 교실
-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 (4) 내용
  - ‘언어습관 개선 기록장’을 자체 제작하여 선도교실 학생 전원에게 배부
  - 매일 자신의 언어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 실행, 반성 등을 기록

- 교사는 일주일에 2번 ‘언어습관 개선 기록장’을 수거하여 살펴본 후 ‘담임 선생님 확인란’에 확인 도장 및 조언을 기록
  - 매주 열심히 기록한 우수 학생에게는 ‘칭찬 온도계’에 스티커를 부착
  - 매월 마지막 주에 학생들의 ‘언어습관 개선 기록장’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 ‘언어습관 개선 기록장’ 활동 우수자 학생을 매월 선정(4명)하여 문화상품권 증정
- (5) 주요 성과
- 학생들이 매일 자신의 언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잘못된 언어 습관을 성찰하는 계기 마련
  - 실제 언어습관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언어습관 개선 분위기를 정착
  -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님이 점검하고 선생님이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변화를 실제로 확인 가능

(6) 활동 사진



▲ 직접 제작한 ‘언어습관개선 기록장’ 표지와 속지 견본



▲ ‘언어습관 개선 기록장’ 학생 작성 예시

## 아.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쓰기 다짐 열매 달기’ 활동

- (1) 기 간 : 2011. 09. 14
- (2) 장 소 : 교실
- (3) 대 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 (4) 내 용
  - 학생이 자신의 언어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짐을 적은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열매’를 제작하여 배부
  -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쓰기 다짐 열매’를 각자 발표하고 이를 서로 공유
  -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쓰기 다짐 열매’를 나무에 달아서 교실에 지속적으로 게시
  - 매일 자신의 언어습관 개선을 위한 다짐 열매를 보며 지속적으로 각오를 인식
- (5) 주요 성과
  - 스스로 자신의 언어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짐을 적은 열매를 매일 보며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

- 교실에 게시된 '다짐 열매 나무'를 통해 다른 친구들의 다짐 또한 공유할 수 있어 언어습관 개선 분위기를 확산
- 서로 다짐을 공유함으로써 각자 다짐을 점검하고 반성하게 해줌으로써 동기와 격려를 부여
- 교과교실제로 인해 선도교실(2학년 3반)에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게시된 '열매 나무'를 보며 언어습관 개선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확산

(6) 활동 사진



▲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쓰기 다짐 열매' 모음

▲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쓰기 다짐 열매' 나무 게시 모습과 이를 공유하는 모습

자.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의 다짐 자료 제작 및 계기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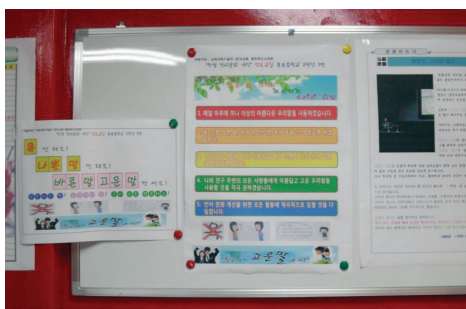
- (1) 기간 : 2011. 09. 14 ~ 12. 30.
- (2) 장소 : 교실
-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및 전교생
- (4) 내용
  -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선서식에서 활용한 선서 자료를 활용하여 다짐 자료로 제작
  - 다짐 자료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계기 교육을 실시함
  - 제작된 자료를 선도교실에 게시하여 언제나 그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함
  - 제작된 자료는 선도교실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전교생이 많이 모이는 각 층 홈페이지 게시란에 부착하여 공유
- (5) 주요 성과
  - 다짐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계기 교육을 함으로써 언어습관 개선의 동기를 부여
  - 함께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한다는 생각이 싹트고 격려하는 긍정적 분위기 확산
  - 제작된 자료는 선도교실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전교생과 공유함으로써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유
- (6) 활동 사진



▲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의 다짐' 교실 게시



▲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의 다짐' 교실에서 학생들의 공유하는 모습



▲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의 다짐' 각 층 흡배이스 게시 모습



▲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의 다짐' 각 층 흡배이스에서 학생들 공유 모습

### 차. '바른 말 고운 말 사용하기 서명 운동'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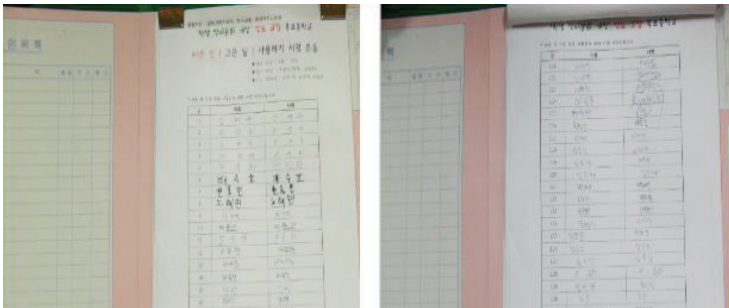
- (1) 기간 : 2011. 09. 14 ~ 11. 28
- (2) 장소 : 교실
-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및 전교생, 전교직원
- (4) 내용
  - 선도교실 학생과 '바른 말 고운 말 지킴이' 8명이 지속적으로 활동
  -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 학교를 다니면서 교직원 및 전교생에게 서명 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음
  - 서명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안내하며, 서명 운동 인원을 정리하고 서명부 누가 기록물을 보관
- (5) 주요 성과
  - 서명 운동 실시를 통해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선행이 학생 스스로에게 긍정적 이미지와 마인드를 심어 줌
  - 서명 운동을 통해 선도교실 및 학교 전체 언어문화 개선 홍보 및 긍정적인 분위기 확산
  - 서명 운동과 그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는 동안 학생들 스스로가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인식전환이 동기를 강화

- 서명 운동에 동참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바른 말 고운 말 사용을 권유하는 '바른 말 고운 말 전도사' 집단 형성

(6) 활동 사진



◀ 서명 운동 활동을 하는 모습



◀ 서명 운동 참가 기록 서명부 모습

### 카. 한글날 기념 계기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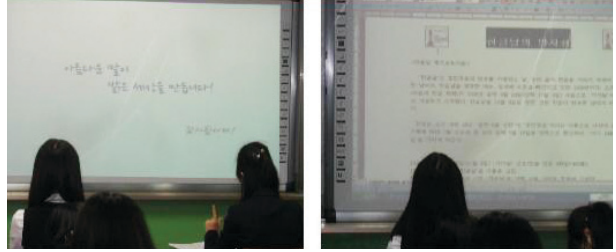
- (1) 기간 : 2011. 10. 10
- (2) 장소 : 교실
-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 (4) 내용
  - 한글날을 기념하여 선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에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대한 계기 교육을 실시
  - '한글날의 발자취(유래, 역사, 변화 등)'에 대한 계기 교육과 학습 활동지 프로그램 실시
  - 한글날 기념 '독서의 날 행사'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글날 노래 빈 칸 가사 채우기', '한글 그 위대한 문자의 탄생' 동영상 시청
- (5) 주요 성과
  -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대한 계기 교육을 통해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
  - 학생들이 '한글날'의 의미와 유래, 역사적 발자취, 변화 등에 대한 계기교육을 통해 한글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계기 마련
  - '한글날 노래 가사 채우기' 활동을 통해 한글날 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
  - '한글 그 위대한 문자의 탄생' 동영상 시청으로 한글의 창작 과정, 우수성과 과학성,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 등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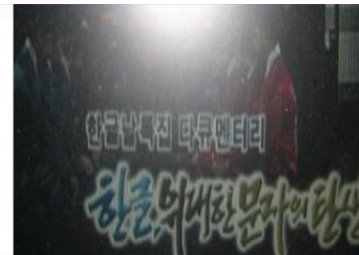
(6) 활동 사진



▲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계기 교육 실시



▲ '한글의 발자취'에 대한 계기 교육 실시 및 학습 활동지



◀ 한글날 기념 '독서의날 행사'에서 '한글날 노래 가사 채우기' 및 '한글 그 위대한 문자의 탄생' 시청

타. 학생·교사 언어 표준화 자료 보급·안내 및 언어문화 관련 학급 문고 도서 구입

(1) 기간 : 2011. 10. 10 ~ 10. 29

(2) 장소 : 교실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및 전교생, 전 교직원

(4)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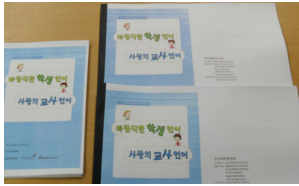
- '학생 언어문화 개선' 홈페이지에서 '언어 표준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컬러 출력물로 30부 출력
- '언어 표준화 자료'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전체 25학급, 학교 쉼터 간이 열람대(5곳)에 배부
- 선도교실 학생들에게 '언어 표준화 자료'에 대한 안내를 통해 모두 읽도록 유도
- 전 교직원에게 '언어표준화자료' 보급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실시
- '바른 말 고운 말 지킴이' 학생들에게 간이 열람대(5곳)에 있는 '언어 표준화 자료'를 유지하고 훼손된 경우 보수하거나 교체하도록 함
- 운영 지원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언어문화와 관련 있는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 학급 문고 도서를 구입

(5) 주요 성과

- '언어 표준화 자료'를 보급하여 아침 독서시간에 학급의 학생들이 둘러보며 읽도록 하여 언어문화 개선 활동에 기여

- 선도교실 학생들이 ‘언어 표준화 자료’를 읽고 난 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 정착
- 언어 표준화 자료’가 만화 형태의 책자로 제작되어 있어 학생들이 흥미 있게 독서를 할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읽음
- 이야기 형식으로 된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를 구입하여 학급 문고 도서로 확충하여 돌려 읽음

(6) 활동 사진



▲ ‘언어 표준화 자료’ 책자 형태 제작 견본



▲ ‘언어 표준화 자료’ 책자 학급문고 보급 및 게시



▲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 학급문고 도서 확충



▲ ‘언어 표준화 자료’ 교실에서 독서하는 모습



▲ ‘언어 표준화 자료’ 책자 각 층 쉼터 간에 열람대 게시 및 독서하는 모습

파. 창의적 재량(체험) 활동을 활용한 전교생 학년별 ‘욕 해도 될까요? 1부, 2부’ 동영상 시청 및 학습 활동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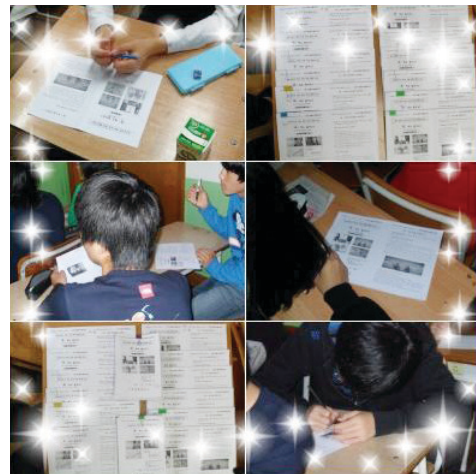
- (1) 기간 : 2011. 10. 15 ~ 10. 29
- (2) 장소 : 교실
-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및 전교생
- (4) 내용
  - 각 학년별로 토요일 창의적 재량활동(체험활동) 중 3시간을 확보하여 운영
  - 1교시 ~ 2교시 중간 1부 동영상 시청 ⇨ 1부 학습 활동지 ⇨ 퀴즈 ⇨ 시상
  - 2교시 중간 ~ 3교시 중간 2부 동영상 시청 ⇨ 2부 학습 활동지 ⇨ 퀴즈 ⇨ 시상
  - 각 학급별 우수 활동 학생 담임 시상 및 상품 증정
  - 우수 활동지 학교 홈페이지 게시
- (5) 주요 성과
  - ‘욕 해도 될까요? 1부, 2부’ 영상 시청을 통해 전교생 모두 ‘욕’의 심각성과 자신의 언어습관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 제공
  - 동영상 시청과 함께 제공된 학습 활동지를 함께 함으로써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동기 유발

- 선도교실 학생 및 전교생, 전 교직원 모두 스스로 언어문화 개선을 실천하겠다는 분위기 확산
-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활동 사진, 우수 활동 학생 시상 및 우수 학습 활동지 게시 등을 통해 지속적 관심 유도

(6) 활동 사진



▲ '육 해도 될까요? 1부, 2부' 동영상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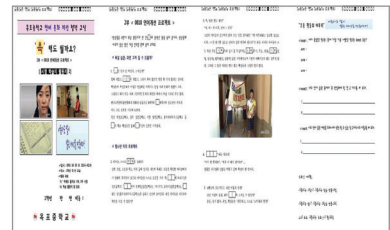
▲ '육 해도 될까요? 1부, 2부' 학습 활동지 활동 모습



▲ '육 해도 될까요? 1부, 2부' 학습 활동지 견본



▲ '육 해도 될까요? 1부, 2부' 학습 활동지 견본



▲ '육 해도 될까요? 1부, 2부' 학습 활동지 우수 작품 모습

하. 언어습관 개선 실천수기 및 '육 해도 될까요?' 동영상 시청 소감문 대회 실시, '언어문화 개선 공모전' 작품 응모

- (1) 기간 : 2011. 10. 17(대회) / 10. 30(응모)
- (2) 장소 : 교실
-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및 전교생 중 희망자
- (4) 내용
  - 10월 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언어습관 개선 실천 수기 공모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10월 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육 해도 될까요?' 시청 소감문 대회 실시 안내 및 홍보
  - 교내 대회를 실시하여 학생의 작품을 수거 후 우수 작품은 시상
  - 우수 작품은 '학생 언어문화 개선' 홈페이지에 작품 응모



(6) 활동 사진



▲ '10대 육에 중독 되다(1부) 시청' 모습



▲ '10대 육에 중독 되다(2부) 시청' 모습



나-1.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강사 초청 특강

- (1) 기간 : 2011. 11. 11
- (2) 장소 : 교실
-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 (4) 내용
  - 학교 외부 인사 중 언어문화 분야에서 저명한 외부 강사를 섭외
  - 인근 지역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sup>4)</sup>을 모시고 선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강의를 실시
  - 방과 후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 강의 종료 후 간식 지급 등을 통해 초청 특강을 운영
  -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 전체의 협조를 통해 외부 강사 초청 특강 실시
- (5) 주요 성과
  -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과 의지를 독려하는 기회를 제공

4) '경남 지역 학생들의 표준발음을 위한 연구' 대회에서 수상, 다문화 가정에서 한글의 가르치시며 다문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20.11. 조선일보사가 뽑은 올해의 스승상 수상 외 다수의 경력이 있음.

-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의 외부 강사의 정적·동적 활동이 고루 포함된 강의는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상승, 주의 집중력이 높음
- 욕, 비속어, 은어 등의 사용에 대한 개선과 예방의 효과가 증대
- 학생들의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사용에 대한 인식이 상승

(6)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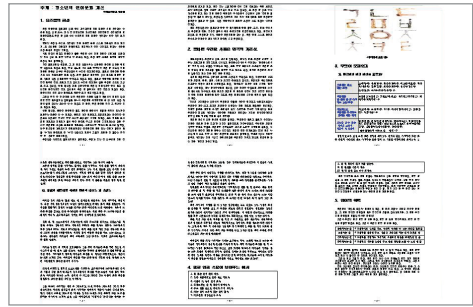
▲ 외부 강사 초청 특강 모습 1



▲ 외부 강사 초청 특강 모습 2



▲ 외부 강사 초청 특강 모습 3



▲ 외부 강사 초청 특강 원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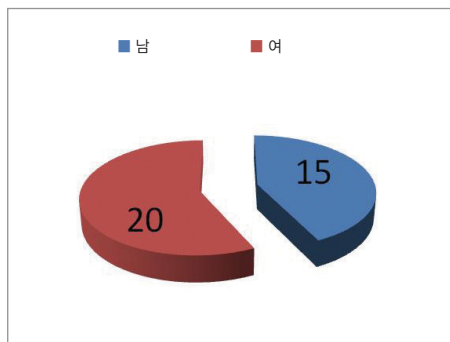
다-1.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 운영 전·후 언어 사용 실태 변화 설문 조사 실시

- (1) 기간 : 2011. 11. 28
- (2) 장소 : 교실
-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 (4) 내용
  - ‘언어 사용 실태 변화 설문 조사지’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
  - 11월 28일 자기주도적 학습 시간 선도교실 학생에게 설문 조사 실시
  - 문항별 집계를 통해 언어 사용 실태 변화 결과 도출
  - 선도교실 학생 언어문화 개선 변화 파악 자료로 활용
- (5) 주요 성과
  - 선도교실 학생 3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언어문화 개선 선도 교실’ 운영의 효과성 검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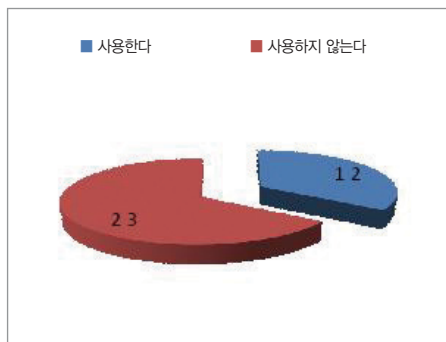
- 선도교실 운영으로 변화된 학생들의 언어 습관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 자료
- ‘언어 사용 실태 설문 조사’의 실시로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습관의 변화를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
-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선도교실의 마무리 및 점검 활동
- 통계 자료 분석

아래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욕을 사용하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하루 동안 사용하는 욕 사용 횟수, 감소한 횟수를 실감하는 학생 수, 욕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정도, 욕 사용 규제에 대한 인식 등이 선도교실 운영 전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실태 설문 조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욕이나 비속어, 은어, 인터넷 용어 등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나쁜 줄을 알지만 개선의 의지나 나쁘다는 인식의 정도가 낮고, 하루 사용 횟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말만큼 고착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도교실을 운영한 후 언어문화와 습관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통계 분석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검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성별에 따른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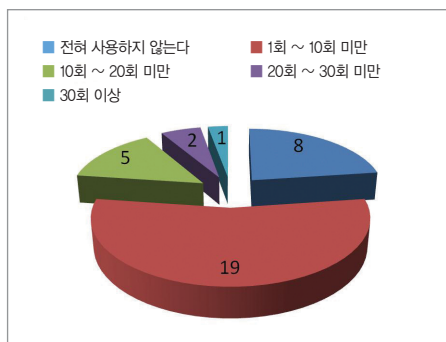
❖ 욕 사용 여부 인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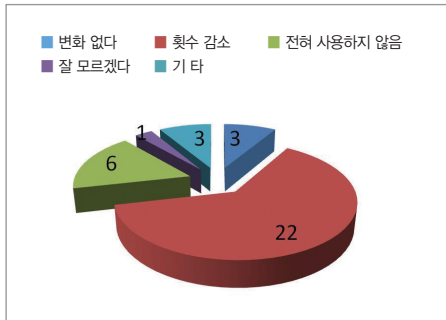
❖ 선도교실 운영 전(前) 하루 욕 사용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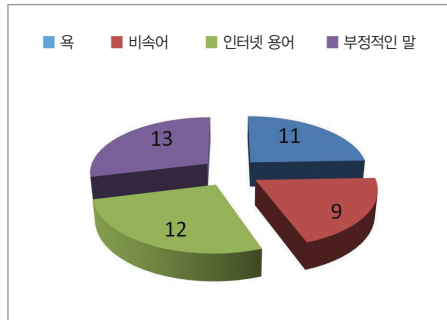
❖ 선도교실 운영 후(後) 하루 욕 사용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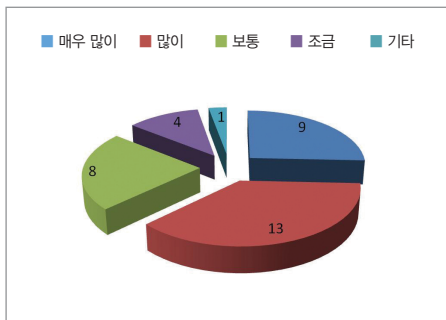
❖ 하루 욕 사용 횟수 감소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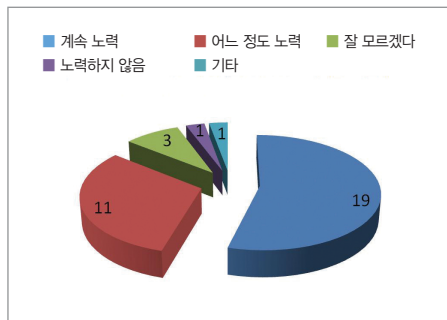
❖ 아직 개선되지 않은 언어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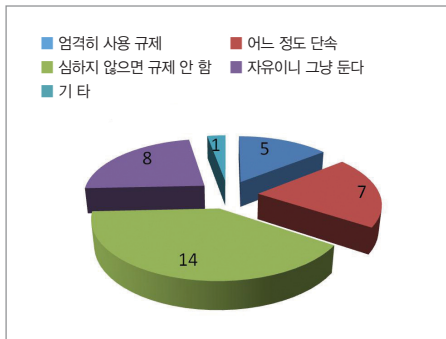
❖ '언어습관 개선 기록장'의 영향



❖ 욕 사용 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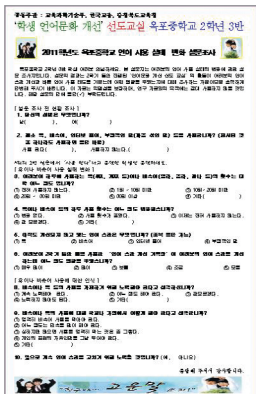
❖ 선도교실 운영 전(前) 욕 사용 규제 여부



❖ 선도교실 운영 후(後) 욕 사용 규제 여부



(6) 활동 사진



▶▶ '언어 사용 실태 변화 설문 조사' 모습

◀ '언어 사용 실태 변화 설문 조사' 견본

## 라-1. '우리말 바로 알기' 퀴즈 활동 실시

- (1) 기 간 : 2011. 12. 03
- (2) 장 소 : 교실
- (3) 대 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 (4) 내 용
  - SBS에서 제작한 CD '사랑해요 우밀'과 KBS '우리말 달인'의 퀴즈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말 바로 알기 퀴즈'를 자체 제작
  - 등교하는 토요일 자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퀴즈를 진행
  - 개인, 모둠으로 나누어 문제를 풀며, 그동안 선도교실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기 교육을 통해 습득한 실력을 겨룸.
  - 문제를 잘 푼 학생과 모둠에게 교사가 상품을 수여함.
- (5) 주요 성과
  - 잘못 알고 있던 우리말, 은어, 비속어, 표기 등 바로 알아야 할 우리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
  -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기 교육을 통해 배운 올바른 언어문화를 퀴즈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흥미와 참여도 증대
  - 올바른 우리말을 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시 인식하는 활동
- (6) 활동 사진



▲ '우리말 바로 알기 퀴즈' 문제 풀기



▲ 퀴즈 풀이 우수 학생 및 우수 팀 상품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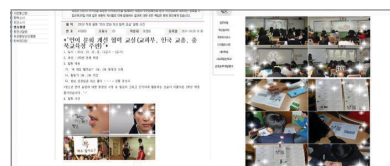
◀ '우리말 바로 알기 퀴즈' 문제

### 마-1.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 운영 활동 내용 학교 홈페이지 탑재

- (1) 기간 : 2011. 09. 01 ~ 11. 30
- (2) 장소 : 학교홈페이지
- (3) 대상 : 선도교실 학생 35명 및 전교생
- (4) 내용
  -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 운영 내용 중 홈페이지 탑재 자료 선정
  -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 등)에게 사전 동의 협조
  -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 등 교육 공동체 모두 활동 내용 공유
- (5) 주요 성과
  - 홈페이지를 통한 선도교실 운영 내용과 활동의 안내 및 홍보
  -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언어문화 개선 공유 및 효과 파급
  - 홈페이지 탑재를 통한 언어문화 개선 활동의 지속적 분위기 조성
- (6) 활동 사진



▲ '자율활동' 영역에 선도교실 활동 관련내용 홈페이지 게시



▲ '학교앨범' 영역에서 선도 교실 관련 사진 자료 홈페이지 탑재



▲ '학교앨범' 영역에서 선도 교실 관련 학습 활동지 홈페이지 탑재

# Farewell, Bad Words!

## - 성포 CLEAN Project를 전개하며

안산 성포고등학교 교사 김신표

5월이다. 수목에 푸른 물이 활기차고 운행하고 시원한 바람이 대지를 감싸며 숨결로 호흡하는 날들이다. 조용한 교무실이다. 모두들 교실로 들어가신 것일까? 아직 점심시간은 아닌데……. 망중한일까? 잠시 정적이 흐르는 시간이 지나간다. 6명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 앞 쪽에 젊은 여선생님이 한 분이 앉아 계시고, 다른 분들은 수업을 들어가신 모양이다. 이 때이다. 마침 종이 울린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뛰쳐나온다. 우리 교무실 옆이 미술실이라 아이들이 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양이다. 갑자기 차마 형언하기가 어려운 언어들 이 크게 문밖에게 들린다.

“야 존나. 야 \*\*\*\*\* 이번 시간에 졸려서 야 \*\*\* 죽는 줄 알았다. \*\*\*”

“야 \*\*\* 맞아. 정말이다. \*\*\*\*\*! 맨 뒷자리 맡아 뉘라 \*\*\*\*\*”

나는 얼굴이 화끈하여 견딜 수가 없다. 역시 민망했는지……. 젊은 여선생님은 문을 박차고 나가시더니 소리를 지르신다.

“야 너희들. 교무실 앞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쌍욕을 하고…….”

이거 뭐야! 어서 안 들어가!”

그러자 아이들 두 녀석이 후두둑 미술실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렇게 요즘 쓰는 용어가 거칠고, 욕이 많이 대화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 탓일까? 아님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많아서 그럴까? 아마도 현대 사회의 각종 언론매체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지난 5월에 우연히 모 인터넷 방송채널을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다. 깜짝 놀랐다. 정말 내 귀를 의심케 하는 적나라한 속어와 욕설들이 방송의 형태로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흔히들 공공 방송에서 금기시 되었던 성에 관련된 욕들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그것이 솔직하고, 직선적인 개인 감정의 방출과 사회 풍자적인 면모로 일말의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직접적인 충격과 폭력성에 우선 경계를 늦출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었다. 우선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경각심이 생긴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을까?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유명 연예인, 방송인 등의 거침없는 화술과 표현이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스트레스의 탈출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너무나 낮이 간지러운 면이 있는 것이었다. 한 개인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은 사회적, 국가적 측면에서도 체감온도가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마침 이런 시기에 적당히 말 맞추어 한 장의 안내문이 공공문서란 이름으로 날아왔다. 곧, 교총에서 ‘학생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학생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에 실린 첨부물은 이런 나의 느낌이 수치로 활자화되어 나타나 있는 것이었다. 주된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즉 ‘학생들의 절대다수가 초등학교 저학년(22.1%)과 고학년(58.7%)때 욕설을 배우거나 시작하며, 교원 66.1%는 ‘학생들 대화의 반 이상이 조사를 빼 놓고는 욕설과 비속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정부부처가 공개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및 건전화 방안’ 보고서 발표(2011년)에서는 ‘이런 청소년 생활 전반에 욕설 등 불건전 언어 사용은 사회 일탈화와 연계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현상은 반대 방향으로 학교 선생님의 언어 사용에서도 그 모양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역시 그 보고서는 보여 주고 있었다. 경기교육청의 학교학생 문화 설문조사(2010년) 결과, 학생들도 ‘선생님의 언어폭력을 ‘거의 매일 경험’ 7.8%, ‘일주일에 1~2회 이상 경험’ 21.2% 정도를 경험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나 있었다. 이것은 곧 교원들도 부지불식간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학교 교육의 다른 한 축인 부모님들의 언어 사용 면모도 역시 도마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쓰는 용어 속에서 욕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다.

급기야 교육과학기술부·충청북도교육청·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는 “바른 언어가 우리 아이를 지킨다!”라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하게 된 것이었다. 좀 때늦은 감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이른 때이다’라는 경구를 생각해 본다면 참 적당하고 효과적인 때를 선택했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이 선언문은 학생, 교사, 학부모,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교육이 주체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각성과 결심,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 교총은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 언어문화 개선”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공문을 시행하게 되었다. 5월 어느 날 그 공문은 우리 부서로 내려 왔고, 나는 찬찬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참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와 그 방편이 있는 것은 ‘사회 진화’의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다. 한국 교총은 단위 학교별로 학생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긍정적인 개선과 파급효과를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 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있는 충일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 그것은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런 사회적 흐름에 공감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공통된 지평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는 며칠 동안 생각을 정리하며, [Farewell, Bad Words! – 성포 CLEAN Project](#) 라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교총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쪽으로의 역학을 가진 프로그램을 구성하라는 것이었다. ‘아래에서 위로!’ 새삼 여러 가지의 용어가 생각난다. 이것은 학습, 종교, 철학적 문제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구성요소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 부분이 전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것이 여기에서도 개인과 사회와 인류의 원리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원리로서의 낱실과 씨실로 작용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간 고민을 해왔던 철학적 종교적 원리가 이렇게 단위학교의 이런 프로그램에서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도 깨달음의 일환인 양 전율에 가까운 묘한 파동을 느낄 수 있었다.

불교 철학에서는 금강계 만달라 도상에서 위로 오르는 수행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토미즘에서도 ‘이성의 기능’은 은총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음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언어습득과 평가의 이론에 있어서도 Top - Down 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Bottom to Top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집합이론에 있어서도 ‘부분과 전체’의 개념은 중요한 것이다. 새삼 요즘 사회의 개혁과 정치의 화두가 생각난다. 바로 ‘아래서부터의 개혁의 드라이브’ 현상이다. 작금에 많이 나타나는 모마일 투표방식, 선거인단 제도 시행 등도 모두 이런 Bottom to Top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 아닐까? 나는 이 원리를 언어 순화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보기로 했다. 그 절차는 일반적인 종교-철학적인 원리를 임차하여 보는 것이었다. 먼저 학생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고 내적 내공의 강화- 자기 표현 내적 프로그램- 외적 작용 프로그램 등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보는 것이다. 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을 “Farewell, Bad Words!-성포 CLEAN Project”라고 명명했다. CLEAN은 ‘깨끗한, 청결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것을 Clean Language Educational Activities in Net-network의 두문자어(abbreviation)로 풀이하기로 했다. 수행 방법으로 4 En-ing Activities를 설정했다. 구체적 수행방법으로는 Enlisting - Enlightening - Enforcing - Enlarging의 활동이다. 이른바, 4 En-ing 활동으로서 동아리의 구성원들이 지도교사, 학교의 행정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언어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내적인 깨달음의 내공을 쌓고, 역량을 강화하여, 그 역량을 타인에게 작용시켜 보자는 당당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나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한 축인 학생들의 자생적 동아리 즉 Task Force를 구축하고자 했다. 교사가 언어순화 운동을 집행하기 위해 나서는 것보다는 학생 스스로 자정노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집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공감대를 자아내기가 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약 16명의 동아리 구성원을 선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먼저 학생들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학생회 임원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또한 방송을 통한 홍보 및 UCC 동영상 제작이 필요할 것 같기에 방송반도 2명 섭외했다. 또 아이디어가 좋아야 하므로 시사적 문제 의식과 분석력이 좋은 아이들도 2명 찾아보기로 했다. 또 표현력이 좋아야 그 내용을 글로, 문어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분석력이 좋은 아이들을 물색해 보기도 했다. 학년 간의 편제가 맞아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1, 2, 3학년이 골고루 배치되도록 구성했다. 또 교우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잘 이용할 것 같아서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대표에게 요청했다.

언어 개선운동의 방향성이 ‘향상문’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므로,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자율권과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 활동의 영역을 크게 나누어서 그 대표 학생 한 명씩을 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몇몇씩, 각 영역마다의 전문위원들을 대표학생이 선발하고 섭외하도록 자율권과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해 주기로 했다. 아이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어떤 녀석들은 대학입시 때에 포트폴리오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어떤 학생들은 활동 실적을 한 페이지 에듀팻에 남기기 위해, 어떤 학생들은 그 활동 자체가 멋져 보이고 보람이 있어 보여 참가하겠다는 등 반응도 다양했다. 또 어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학업에 좀 더 치열하게 충실하기 위해 에너지의 소비를 자제한다는 반응들도 나타났다. 나와 호흡이 잘 맞아 보이는 아이들, 대표성이 있는 아이들 16명으로 마침내 동아리가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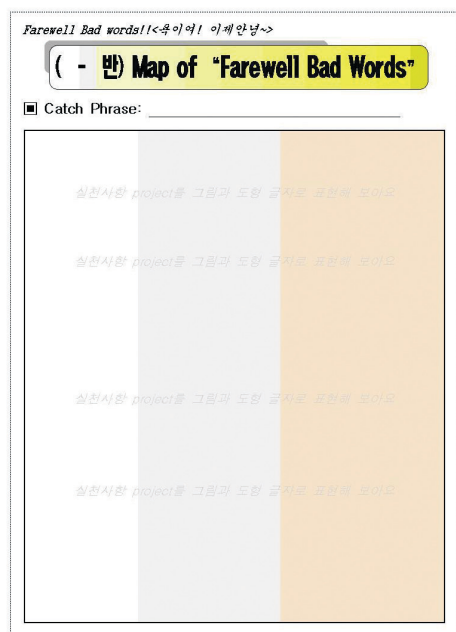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대고 활동 내용들을 브레인 스토밍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주로 활동 내용의 골격이 충실하도록 구성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런 구조가 되게 했다. 먼저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교내에 홍보하는 활동, 교내 학생 참여활동, 조사 연구활동, 사이버사이트 활동,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연계활동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수행의 방향성으로 보자면, 4 En-ing가 되게 엮어 보았다. ‘-을 하게 만들다’의 ‘En-’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내가 영어교사라 조금은 자신감이 서는 것 같았다. 기반조성의 의미인 ‘Enlisting’에,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언어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사회 언론 매체 영향 분석, 교육기관에서 발행되는 언어관련 통계조사를 배치했다. 계몽활동의 의미인 ‘Enlightening’에 홍보 포스트 부착, 명상의 시간 이용, 언어순화캠페인, 자치적응활동을 통한 계도, 언어클린 학급운영 반별 프로젝트 등을 배치했다. 개선 강화활동이 의미인 ‘Enforcing’에 언어개선 표어, 포스터 대회, UCC 제작 대회, 교내 논술 토론회 개최, 언어개선을 주제로 하는 웅변대회의 개최 등을 배치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확장활동인 ‘Enlarging’의 영역에 언어 개선을 주제로 삽입한 교외 웅변대회의 개최, 교사·학부모 연수, 대언론 기관 의견서 전달, 학교 홈페이지에 ‘Farewell Bad Words’ 코너 설치, ‘비속어 연구집’ 제작 등을 배치했다.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비가 일부 지원된다는 것이 견인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행사에 욕심을 내다보니, 간식비 책정 같은 것은 아예 할 수도 없었다.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도 그 혼한 음료수 한 병 먹여주지 못한 것이 참 안쓰럽고 마음 아픈 부분으로 남는 것이다.

마침내 교총에서 일차로 100개 동아리 안에 드는 작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한 것이다. 야심찬 계획을 이제 시작하는 전체 회의를 가졌다. 각 영역별 대표학생은 2, 3학년으로 하고, 골고루 역량 있고 의욕 있는 아이들로 배치했다. 가능하면 일이 힘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학생을 동아리 대표로 선임했다. 아이들은 힘찬 출발을 자축하여 크게 박수와 환호를 질렀다. 지원된다는 예산 70만 원을 각종 대회에 상금으로 쓰자는 야심찬 계획과 함께…….

시작은 장밋빛 청사진이 있으므로 의욕으로 불타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의 신분으로 우선 급한 것이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것이었다. 아이들도 교사인 나 자신도 시험 준비와 출제로 정신이 없었고, 프로그램을 멋있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욕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물리적인 제약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느낌이었다. 간단하게나마 각 영역별 활동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먼저 Enlisting 활동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우리 전문위원 학생들이 모여, 설문을 준비했다. 이것도 일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다. 문항지 작성이 가장 어려웠다. 여러분들은 “어떤 욕을 사용합니까” 혹은 “어떤 욕설에 가장 화가 납니까” 등이 설문은 정말 쓰기가 민망하여 \*\*\* 등으로 처리하고, 첫 자음만 따서 ‘ㄱㅅㅍ’ 등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교사들에 대한 설문도 어려운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비어를 수업 중에 사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선택문을 달기가 정말 어려웠다. 이것은 선생님들에 대한 자존심과 솔직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또한 민감한 부분이었다. 학생들과 합의하여 우리는 선택문에 ‘ㅅㅍ’, ‘ㄱㅅㅍ’, ‘ㅅㅍ’ 등의 형태로 표기하기로 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설문을 시행했고, 설문팀 학생들은 통계 내는 작업을 시행했다.

학생 대상으로 1,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결과는 의외로 건전하게 나왔다. 선생님들이 교육적으로 쓰는 ‘이 새끼’ 정도의 비어는 용인할 수 있다는 통계가 눈에 띄었다. 또한 선생님에게 욕을 듣는 것은 생각보다 이해의 폭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하급생에게 욕을 듣는 것을 가장 못 참는다는 통계를 얻을 수가 있었다. 선생님들에 대한 설문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남자 선생님들은 다수 욕의 강도가 높다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났다. 역시 ‘이 새끼’ 정도까지는 사용한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솔직한 것인지, 다소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막 단계인 ‘이 새끼’에 해당되는 항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실이지 교사로서 나 자신도 그 욕을 하고 싶은 때가 있지만, 입 밖에 내지는 못하는 욕인 것이다. 여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 자식’ 정도가 ‘이 새끼’보다 많은 것으로 나왔다. 상대적으로 임용고시 시험을 막 보고 오신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언어가 거칠지는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부모 대상 설문은 수거가 충분이 되지 않아 통계작업을 하기가 힘들었지만, 교사가 쓰는 비어의 강도와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사회 언론매체 영향 분석과 교총 자료집 분석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단계이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작업을 하겠다고 하니 믿어 볼 따름이다.

계몽 프로그램인 ‘Enlightening’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먼저 명상의 시간을 통해 언어프로그램 담당 부서장인 나 자신이 3분 메시지를 전달했다. 교내에 포스터를 자체 제작으로 부착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 영성한 것이지만, ‘나는 욕을 언제 하나요?’로 시작하는 문구에 아이들의 눈길이 쏠리는 것 같았다. 학생 자치회 활동을 통한 ‘욕 안 하기 캠페인’은 상당히 효과를 본 활동이었다. 역시 학생회장의 역할이 큰 것 같았다. 아침마다 학생회 학생들은 정문 지도를 한다. 어느 날인가, 어깨띠를 두르고 ‘비어를 쓰지 맙시다’, ‘Clean 성포를 만들시다’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이들도 열심히 참가하고 있고, 학생부 아이들이 먼저 나서니, 파급효과가 큰 것 같았다. 더러 더러, 들어오는 아이들이 키득 키득 했지만, 학생부 아이들이 외치는 의미를 알기라도 하는 듯, 농담 속에서 진의를 전달 받는 느낌이었다.



적용활동을 통한 ‘반별 언어 개선 프로젝트’에는 아이들이 기를 쓰고 참여하는 것 같았다. 먼저 교직원 회의를 통하여 몇 차례 전달했다. 먼저 적용활동 시간을 통하여 반별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했다. 학급회의를 통하여 한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반원들끼리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학급회장이 사회를 하고, 서기가 칠판에 적고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다. 모두 열심히 참가한다. 보기가 참 좋았다.

둘째 시간이 되었다. 공지한 대로 각 반 아이들은 파스텔, 크레파스 등을 가져와서 Mind Map을 작성한다. 미술부원이 있는 아이들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 같았다. 역시 상금이 효과적이다. 학년당 1등 8만원, 2등 4만원, 3등 2만원의 현금 상금을 걸었다. 정말 담임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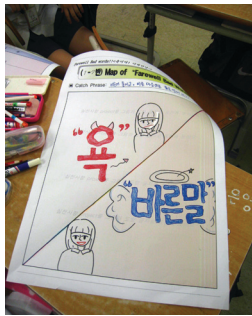
이하 44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Mind Map을 작성하며 ‘비어를 쓰지 말자’는 기운이 두 시간 내내 감도는 것 같았다. 그 시간이 끝났다. 당연히 심사는 동아리 학생들의 몫이다. 담임 선생님이 각자의 반의 작품을 가져와서 심사위원 동아리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아이들은 마치 대단한 권력을 가진 양 우쭐하며, 심사를 한다. 그리고 각자의 점수를 내어 통계를 내고, 종합 발표를 하고 바로 홈페이지에 순위대로 게시했다. 동아리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기 이를 데 없다. 반별로 회의에서 반응이 나타났다. 앞으로 욕 없는 반을 잘 실천하여 기필코 1등 상을 받는 운동이 일어났고, 심지어 경어쓰기 운동까지 생겨나며, 바로 시행한다는 반도 생겼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다. 어떤 선생님의 “참 좋은 아이디어이다. 그런데, 왜 순수 우리글로 하지 영어를 그렇게 썼느냐?”라는 조언도 있었다. 나는 “아... 그게 저, 제가 영어 선생이라 그랬나 보네요.”라고 응수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좀 겸연쩍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 계획안과 Mapping을 40% 반영하고 11월 말에 실천사항 presentation을 60% 반영하여 종합 성적을 매기고 시상한다고 공지했다. 여학생들이 대회에는 앞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1, 2학년 공히 1등 반은 여학생들 반이다. 나 혼자 씩씩히 생각했다. ‘요즘에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나 역시 마찬가지로이니까. 연수나 시험을 보러 가서 여선생님을 이겨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Farewell Bad words!! <용이여! 이제안녕>

**( - 반) 언어개선 project**

■ Catch Phrase: \_\_\_\_\_

내용	내	공
구분		
우리 반의 목표	*	*
	*	*
개선방향	*	*
	*	*
심사 단계 세부 사항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와의 약속	◆	◆
	◆	◆



다음 날이었다. 모두 프로젝트와 Mind Map을 각자의 반으로 수거해 가서 게시하고 연말까지 실천해 달라고 공지했다. 상위 등위에 속하는 반은 아이들이 정성스레 수거하여 코팅까지 하여 부착했지만 어떤 반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도 했다. “역시 언어순화운동도 상장/상금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면서 동아리 위원 아이들도 재미있다고 박장대소한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뿌듯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보는 것이 또한 재미있는 일이었다.

교내 강화 프로그램인 Enforcing의 활동으로 교내 토론대회를 열었다. ‘선생님들의 교육 언어는 존대어를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설정했다. 예선은 논술과 주장의 형태로 실시했다. 우리 부서 국어교사와 본 교사가 대담자가 되어 학생 팀과 토론을 했다. 1학년 팀은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논리로, 2년 팀은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평어 및 가벼운 속어 정도는 써도 된다는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결선에서의 토론이 불 만했다. 결국은 2학년 팀이 이겼다. 당연히 심사위원장은 토론연구회를 이끄시는 인근의 토론 전문가 교사를 모셨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진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은 ‘교사는 수업효과를 위해 때때로 평어 및 낮춤말 혹은 약간의 속어를 써도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1학년들은 그것이 자칫 교사가 욕설을 해도 괜찮다고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사들의 수업 언어에 대한 토론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했지만



비교적 솔직하게 토론해 주어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당연히 심사위원은 동아리 전문위원들이 했다. 심사위원장을 모시고 열심히 경청하면서 심사에 참가하는 동아리 아이들이 대견스럽게 보였다. 당연히 토론의 전 과정이 생중계되어 전교 1, 2학년 28개 교실에 방영되었다. MBC의 100분 토론을 방불케 하는 학생 토론에서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학생들에게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Enforcing의 또 하나의 활동으로 교내 영어 응변대회의 주제로 Abuse of Bad words를 넣었다. 생각보다 ‘비어의 남용’에 대한 주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다. 역시 1, 2학년 전교생들에게 방영되었고, 각자의 원고를 프린트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 시청각실에는 또 우리 학교의 특색사업 중의 하나인

‘LETE’(Let's Enjoy Through English) 프로그램 학습 참가학생과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시청각실을 가득 채우고, 각반 교실에서는 모니터로 시청했다. 모두가 자기 친구들이 나와서 영어로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동아리 전문위원들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물론 영어에 실력을 발휘하는 아이 몇몇이 객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영어로 언어폭력의 심각성,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등을 설파하는 학생들의 각오가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영어 말하기로써 우리말 언어의 폭력성을 지적한다는 것이 더욱 새롭게 우리말 언어의 욕설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았다.

Enlarging의 활동으로, 우리 학교가 위치한 안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의 주제 중 하나로 ‘Bad Words’를 넣어 지역의 학생들에게 언어순화에 대한 파급효과를 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말하기 대회는 공교롭게도 내가 부서장으로 있는 ‘인문사회부’에서 내가 고집을 피워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대회이다. 이번이 1회가 되니 계속하여 진행해보겠다는 것이 나의 최초의 계획이었다. 안산시의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안산시장 및 안산시의회 상장을 부여하기 위해 시청과 의회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후원의 명칭 사용에 관하여 엄청난 공을 들인 끝에 대회를 성사시켰다. 교육청의 협조를 얻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아마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본 대회를 역시 야심차게 준비했다.

놀랄만한 일은 지역의 중학생들에게도 ‘언어의 폭력성과 예방’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다는 것이었다.

30% 정도의 지원자 학생들이 그 주제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 동아리 학생들도 놀랐다. 예선을 인터뷰 형식으로 치르고, 본선에서 올라온 10명 중 2명이 언어폭력의 심각성과 그 퇴치에 대해 역설했다. 고난도의 영어 연설 관계로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고, 옆에서 취재와 경청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미리 인쇄된 원고를 통해 중학생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욕설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Farewell, Bad Words!-성포 CLEAN Project”의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의 Clean Project 코너의 활성화와 교사 및 학생들의 더 관심어린 참여이다. 현재 또 시험 준비기간이라 활성화 되지 않는 분위기라 몹시 안타깝다. 현재 전문위원들이 ‘홈페이지 - 동아리 방 - 성포 Clean Project’에 열심히 topic을 올리며, 학생들은 ‘욕설을 추방합시다.’의 댓글을 달고 있다. 가장 많이, 잘 쓰는, 가장 빈번히 방문하는 on-line writer 에게 상품을 수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가장 관심 있게

topic 글을 올려 주시는 교사에게도 우수 writer의 상품을 걸었다. 물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관심 있게 글을 써 주시며 욕설퇴치 운동에 참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다. 한편 모든 활동의 동기 유발의 측면에서 상품이 연관되는 것 같아 좀 진지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상품은 작은 동기에 불과하며, 쓰는 과정에 진지함이 묻어 날 수 있다고 우리 동아리 학생들과 나는 믿고 있다.



한편 지원금 70만 원을 전액 다 동기유발적 차원에서만 집행하기로 했으니, 우리 학생들은 고픈 배를 움켜쥐거나, 갈증이 생길 때면 물로 해결해야하는 면이 또한 없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면에서 그 상품에 대한 예산의 100% 지출이 오히려 진지함을 물어날 수 있게 하고 순수한 의도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때때로 나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간식비를 안 잡았으니,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는 응당 내가 저야할 십자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한 것이다.

11월이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정은 이제 언어로만 많이 했던 활동에 덧붙여, 표어를 그리고 포스터를 그려 보는 활동, 동영상으로 UCC를 제작하여, 그것을 전교생에게 게시하며,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남았다. 또한 전번에 했던 반별 언어 개선 project의 결산을 해야 하는 작업이 남았다. 어떤 반에서는 벌써부터 결의에 차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Project 계획안에 점수를 좀 낮게 받은 반에서는 60%를 차지하는 수행결과 presentation에서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반별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5월에 이어 11월에 다시 한 번 설문을 시행하여 보는 것이다. 얼마나 이런 “Farewell, Bad Words!-성포 CLEAN Project”이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수치로 파악해 보는 것이다. 욕심이 있다면 11월 말에 하는 설문조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언어를 순화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결과를 보고 싶은 것이다. 또한 그간의 수고와 결과들을 정성스럽게 편집하여 기억의 메모렌덤, 활자화된 자료집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의 즐거웠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다. 물론 아직은 모두 ing 진행형들이지만……. 동아리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대도 힘들었고, 대부분 우수한 학생들이라 불러 다니는 데도 많고 또한 학업에도 신경을 써야 해서 모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심사를 하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계획을 잡고, 일정을 만들어 갈 때의 학생들의 눈빛을 보노라면, 마치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언어순화개선 활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 밀려오는 감동을 느낀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짜임새 있게 다해 낼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학생들도 두려하고 나 자신도 두려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하여 애써 볼 것이다. 때때로 찾아오는, 대충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싶은 충동을 쫓아 내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도록 내 자신을 다잡을 것이다.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모습은 이것이다. 열심히 참여 해 준 동아리 학생들과 짜장면 그릇을 돌리면서 경험담을 얘기하며, 부쩍 성숙해진 자신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대견해 하는 학생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

한국교원연합회의 ‘언어문화 개선 동아리 운영’과 더불어 국립국어원의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공모전’은 나에게 적지 않는 기쁨과 깨달음을 준 것 같다. 풀려질 것 같은 나의 마음을 다 잡은 계기가 된 것 같다. 벌써 10월 말이다. 언뜻 언뜻 본 프로그램을 대충 마무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다잡아 보고자 한다. 깨끗한 언어, 단정한 언어, 품격 있는 언어를 쓰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알차게 마무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명중한 뇌와 따뜻한 가슴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열정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좀 쉽게 가고 싶은 한 사람의 교사에게 샘의 근원이 되는 큰 저수지가 있음을 알려 주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샘은 실개천에서, 실개천은 큰 저수지에서 수액의 흐름을 공급 받게 되니 훈훈하고 따뜻하고 시원한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물은 흘러야 한다. 받은 대로 말이다. 나도 우리 아이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샘이 되기 위해 오늘도 마음의 고삐를 다 잡아 본다. ‘교육의 힘은 위대하다’라고 되뇌이면서 말이다.

# 청소년의 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데

인천 북인천여자중학교 교사 장덕자

## 1. 들어가는 말- 말이 열인데, 살 날이 먼 아들이 왜 이러나?

친구와 다투었던지 정은이는 복도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다. 멀리서 지켜보다 못해 “정은아, 말이 왜 그러니?”라고 물어보니, “전 원래 그런 애예요.”라며 사라진다. 15살 나이의 고운 피부, 예쁜 입에서 나온 저 험한 말들을 어찌하리오.

방송에는 연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기사가 쉴 틈 없이 나온다. 말에 상처입고, 폭력에 멍든 아이들이 삶의 생기를 잃고 심지어는 저 세상으로 간다.

무엇이 문제일까?

아이들의 고운 입에서 왜 남을 억압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언어가 끊임 없이 흘러나오는 걸까?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인생을 결정하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의 입버릇을 바꿀 방법이 없을까?

수업 중 자투리 시간이 있어 아이들에게 공모를 했다.

너희들이 잘 쓰는 ‘존나, 재수 없어.’라는 말을 들어서 기분 좋은 말로 바꾸어 보자고, 제일 좋은 말은 초코파이 3개라며……. 초코파이 3개에 여러 의견이 나왔다. 말 상황 앞뒤를 살펴 “아이고, 재수 좋다.”, “좋은 경험 한 거야.”로 변신 하였다.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발음을 하더니, 상희가 낸 의견을 조금 수정하여 “아싸, 재수 좋다.”로 바꾸어 여러 번 반복해서 발음을 했다. 각자가 여럿이서 쓸수록 기운 나고 신바람이 나는지, 아이들 표정도 금세 밝아졌다.

“아싸, 재수 좋다.”

“아싸, 재수 좋다.”

## 2. 활동 사항: 선생님, 우리들의 언어 습관은 우리가 개선할게요.

우리 청소년스스로지킴이 동아리들은 수업 시간에 한 말 바꾸기에 용기 내어 자기네가 쓰는 일상 언어를 신바람 나는 긍정의 언어로 바꾸어 자기네 교실 앞에 붙여 놓았다.

“존나, 피곤해.” → “오늘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짱, 짜증나.” → “정말, 관심 가져야겠어.”

“존나!” → “좋아해.”

“씨발” → “사랑해.”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 운명 아름답게 만들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다정스런 말은 시원한 물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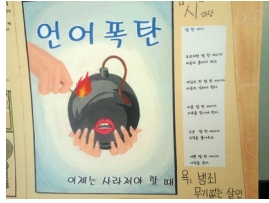
“말이 씨가 된다.”

“남을 욕하면 자신은 저주 받는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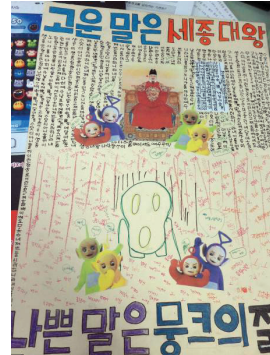
자신들이 바꾼 말들을 앞 게시판에 게시하는 학급이 늘어갔다. 그렇게 써 붙여 놓으니, 친구들의 호응이 좋아 기분 좋아했고, 친구들의 입버릇이 좋아짐에 따라 자신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듯했다. 이것에 힘입어 다달이 월별과제와 포스터를 복도와 눈에 띄는 곳에 전시 및 게시하는 손길이 분주했다.



▲ 계단 게시 - 작은 실천이 아름답다



▲ 시화 작품으로 게시



▲ 포스터 제작 게시



▲ 포스터 제작 게시

동아리 학생들은 모둠을 나누어 이른 아침 7시 40분부터 교문 앞 등갯길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고운 말 사용하지는 표어와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오늘도 고운 말 쓰는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 겸 구호를 외쳤다. 그런 예쁜 동아리 아이들의 흐뭇한 광경을 지켜보며, 학교 앞 빵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각형 빵이나 피자빵을 캠페인 활동한 학생들에게 안겨 주는 것이 교사의 몫.



▲ 5월 등갯길 캠페인 활동



▲ 6월 등갯길 캠페인 활동



▲ 9월 등갯길 캠페인 활동



▲ 10월 등갯길 캠페인 활동

동아리 학생들은 조사하여 발표하는 수업에 자신들이 관심사인 친구들의 언어 실태를 조사해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발표한다. 친구들과 논의하여 설문지를 만들어 돌리고, 통계 내어 자기네 반 아이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욕설도 조사하고 왜 그런지 이유도 모둠원끼리 토의하였다.

예빈이네 모둠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쓴 욕설은 ‘씨발’, ‘존나’, ‘짜증나’, ‘떨어’, ‘미친년’ 등이 우리 학교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욕이다. 열심히 욕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욕을 몰랐던 아이들은 이런 험악한 말이 있었나하고 놀란다.

지수네 모듬은 욕을 하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물어 통계를 내서 보고서를 썼다.

‘짜증나서’,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남들이 쓰니까’, ‘친구들이 만만하게 볼까봐’ 등이 나왔다.

무엇이 힘드니까 ‘학교에 오고 가고, 학원가고 늦게 끝나고’ 하고 ‘싫은 일이 너무 많아서’ 등이 압도적인 이유로 나오면서 아이들은 공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구동성 요약해서 말한다. 교사로서 이해가 안 가는 건 ‘남이 만만하게 볼까봐 거친 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다. 아연실색, 고운 꿈을 가지고 생활해야 할 아이들의 생활 영역이 너무 척박해질 것 같아 마음이 저려오기까지 한다.

욕의 어원을 아느냐는 스티커 설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르는 채 ‘친구가 쓰니까’, ‘어른들이 사용하니까’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82%에 가까웠다. 어원을 알려 주니, 입을 딱 벌리는 아이도 많다. 의미도 모른 채 사용했다니…….

국어수업 단원에 대화하기 단원이 나와 토론 수업을 했다. 욕의 좋은 점과 단점에 대해 자료 조사를 해 오게 하여 가위 바위 보로 자기네 모듬이 원하는 주장을 선택하게 하고 그 주장을 주어진 시간 안에 논리적으로 주장하게 했다. 모듬 대표가 나와 자기네 모듬의 의견을 이끌어 수행평가 점수를 얻는 것이라 듣는 사람은 개인별 수행평가를 의해 학습지에 주장 사항을 메모하게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게 하였다.

반드시 높임말을 쓰도록 했고, 주어진 시간 안에 상대방 말이 끝난 후에 반론을 펼쳐야 했기 때문에 토론을 보며 욕설에 대해 깊이 있게 느끼게 되었다. 어찌나 준비를 잘 해 왔던지 일본 물 연구학자의 실험결과를 예로 들면서 초등학교 때 한 양파 실험 이야기도 했다. 그랬더니, EBS에서 본 욕 먹은 밥과 칭찬들은 밥 얘기를 하며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마지막 반론을 하는 하영이네 조도 있었다. 욕설을 하는 긍정적인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심한 욕을 쓰면 친구들이 기 썬 아이로 인식해서 만만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대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정글의 법칙인 듯 했다.

반론은 그것은 잠시의 기분 좋음이며, 결국 습관이 되어 욕을 자신의 운명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반론을 펼친다.



▲ 9.10. 모듬대표 참가하여 열띤 토론 벌이는 수업 장면



▲ 9.6. 언어문화 개선 논술문쓰기



▲ 9.5. 욕해도 될까요 동영상 시청 장면



▲ 9.15. 욕의 어원 보여주며 거리 캠페인 활동

특히 아이들은 자신이 설문 조사한 결과에 예로 들며 욕설의 피해자는 욕을 한 당사자라는 점을 인식시켰다.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할 때, 나의 몸도 마음도 다 화를 내고 있을 테니까? <아래 설문 내용의 일부>

- ★ 자신의 말 중 거친 말, 저속한 말, 욕설 사용 빈도를 평가한다면?
- ★ 욕설, 거친 말, 저속한 말, 은어 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 ★ 욕설, 거친 말, 저속한 말, 은어 등을 듣고 상대방에게 한 행동은?
- ★ 욕설이 오갈 때 최종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교내에서 활동자료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부평 문화의 거리나 부평역 광장으로 들고 가 거리 캠페인을 나선다. 같은 학교 아이도 아니고,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설문을 부탁하고 서약서를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옆에 친구가 있기에,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 동아리 친구가 있어 용기 내어 말을 붙여 본다. 그 어색한 관계를 깨고 말을 붙여 설문에 응하게 한 동아리 아이들의 표정은 금세 밝아진다. 그리고 “설문에 응해주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사탕을 건네준다. 남에게 주는 것이 좋은 성은이. 정성껏 적어 주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에 용기 내어 다시 지나가는 청소년에게 “들어서 기분 좋은 말 3개 정도 적어 주세요.”라고 부탁한다.



▲ 4.7. 동아리 친구들과 바른말 캠페인



▲ 5.26. 부평문화의 거리 들어서 기분좋은 말 캠페인



▲ 6.9. 부평역광장에서 욕하는 이유 설문 받는 모습



▲ 9.15. 고운말 쓰기 서약서 받는 모습

캠페인 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발표하는 나현이. 나현이는 발표하는 내내 우리 청소년이 바른 생각을 갖고 고운 말을 쓰기를 희망하리라. 나현이는 발표 체계도 잘 잡았다.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청소년이 미운 말, 드센 말을 쓰면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의 운명까지 예언을 한다. 이 아이는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진정 가슴으로 받아들여 평생 고운 말 쓰기에 앞장 서리라.

학생들에게 언어가 얼임을 알려 주기 위해 9월 7일 국립국어원을 탐방했다. 오전 체험학습으로 지쳐 있을 법한 아이들이 우리말의 원리와 과학성을 설명하는 학예 연구사의 설명을 잘 듣고 메모하고 질문하는 모습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 아이들 좋아하는 빙과류도 입에 물리며, 2층에서 ‘고운 입 미운 말’ 동영상 보고 함께 토의도 하고 소감문도 쓰면서 미운 말을 하면 우리의 뇌가 호르몬을 분출하여 결국은 자신의 몸이 망가짐을 확인하였다.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는 그래도 즐거운 듯 웃으며 이야기하는 아이들 웃음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듯 흐뭇했다.



▲ 6.22.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을 통해 차이 인정 언어습관 중요함 터득



▲ 9.7. 국립국어원방문 한글의 우수성 체득



▲ 9.7. 국립국어원에서 청소년 언어실태 영상보면서 토의



▲ 7.9. 대학로 연극감상 '우동 한 그릇'보고도 언어의 소중함 피력

올해 동아리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힘입어 인성 주간에는 배려하는 언어 습관이란 주제로 6차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활동위주의 수업 진행과 모듈별 토의를 통한 발표 수업으로 마당을 깔아주니,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자신들이 변해야 함을 말한다.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하라고 시키면 반항하고 거부할 아이들도 자신들의 표현을 통해 나온 안건이고 대안이므로 말의 책임감을 갖는 듯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 저속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입에 달고 있던 아이들도 바른 청소년 문화를 창출해 내리라 믿는다. 이런 소기의 성과가 전교생이 함께 한 언어문화 개선 논술대회와 쪽 글쓰기에서 나타났다.

나도 욕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욕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니 충격이다.  
욕을 사용할 때 마다 이렇게 내 머리가  
나빠지고 내 정신건강에도 해롭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에게 얽잡아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던 욕이...

1학년5반 김00 영상 시청소감 일부

#### 쪽 글쓰기(( ) 채우기)

1. 청소년의 언어란 (바람) 이다.  
왜냐하면 바른 언어를 사용하면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상대방의 기분도  
좋고, 욕을 사용하면 태풍처럼 기분도  
나빠지고 내 미래도 나빠지기 때문이다.

- 1학년 5반 김00

#### (앞부분 생략)

둘째, TV, 라디오 등 우리에게 전달되는 매체에서  
욕을 쓰지 말아야 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집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다. 청소년들은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매체에서 본 욕을  
보고 멋있다고 따라 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들의 욕설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  
더 많은 청소년들의 뇌가 점점 파괴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한글과 마음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나쁜  
욕설.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욕설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욕설로 오염된 청소년의 입’  
논술문 일부 1학년 6반 정00

#### 쪽 글쓰기(( ) 채우기)

1. 청소년의 언어란 웃음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언어습관이 좋아지면  
우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생기기 때문이다.
2. 좋은 말은 날개이다.  
왜냐하면 ‘웃이 날개다’ 라는 말처럼  
좋은 말을 하면 얼굴이 아무리 못생겨도  
이뻐보이기 때문이다.
3. 힘을 주는 말은 피로회복제이다.  
왜냐하면 힘을 주는 말을 들으면 기운이 나고  
더 듣고 싶어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이다.
4. 학교폭력은 뾰족한 바늘이다.  
왜냐하면 바늘에 찔리면 아픈 것처럼  
학교폭력도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5. 학교폭력은 캔이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멀쩡한 것이 밟히고  
밟혀서 찌그러지기 때문이다.

언어문화 개선 쪽글  
1학년 6반 이00, 홍00, 양00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을 보면 흔히 볼 수 있게 교복 치마나 바지를 줄이고 짧고 딱붙게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눈살이 찌푸러지게 하는 모습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언어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언어들을 보면 욕설이 담겨지지 않는 말이 없다. 이런 행동들이나 기사, 동영상 같은 것을 보면 청소년들 모두 다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하지만 그런 실태를 보고도 쉽게 고쳐기가 어려울 정도로 욕설들이 습관이 되고 입에 붙은 청소년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살아왔을 청소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욕설을 배워서 우리 청소년들이 타하게 만든 원인을 나는 알고 싶다.

1학년 차00 활동 소감 일부

우리는 친구들과 동일감을 느끼기 위해, 또는 습관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들은 욕을 쓴다. 욕을 쓰지 않는 아이들도 인터넷, 또는 학교와 같은 곳에서 쉽게 접하며 욕을 배워나간다. 인터넷은 어떤 정보든지 빛의 속도로 전파한다. 예를 들어 채팅사이트와 같은 경우에 어떤 대화든지 욕이 들어간다. 채팅을 통해 욕을 배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나는 인터넷보다는 친구들과 사이의 대화가 더 문제인 것 같다. 서로 수많은 욕이나 자신들이 만들어낸 언어로 대화를 하면서 모한 기쁨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욕은 청소년들의 지능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충동적으로 일을 한다거나 협동심이 떨어지고 언어 능력까지 감소하게 된다.

1학년 조00 활동 소감 일부

#### ♥♥♥♥ '우동 한 그릇' 연극관람 소감 한마디

-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됨을 깨달았다.
-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을 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 남에게 희망의 말을 해 주면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고 또 다른 희망이 생겨 더 열심히 살아감을 알았다.
- 아무리 주문을 적게 하여도 손님의 처지를 마음으로 이해하며 왕처럼 섬기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가게가 잘 된다는 것을 알았다.
- 영화와 다르게 연극은 공감이 잘 되고 실감나서 재미있었다.
- 슬픈 장면에서 배우들이 슬프게 눈물 흘리며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눈물이 나왔다
- 연극 배우들이 해설까지 하면서 연기를 해 주어 이해가 더 잘 되었다.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나눠 먹는 모습을 보니, 매일 엄마께 반찬 투정만 했던 내가 창피해졌다.
- 영업이 끝났는데도 손님을 위해 우동을 다시 만들어 준 주인 내외의 마음씨가 대단한 것 같았다.
- 힘든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는 나는 더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함을 느꼈다.
- 희준언니랑 대학로 탐방까지 해서 색다른 세상을 보았다.

<http://cafe.daum.net/ypatrol> 탑재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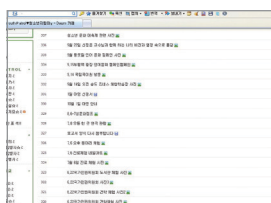
♥♥♥♥ 9.15 설문조사 통계 결과 (많은 순)

- |  |   |
|--|---|
| <p>1) 욕설 사용하는 이유는?<br/>상대방이 내 기분 나쁘게 해서 &gt; 화난 내 기분 풀려고 &gt; 습관적으로 &gt; 세보이려고</p> <p>2) 욕설을 들었을 때 반응은?<br/>반응 보이지 않기 &gt; 같이 욕하기 &gt; 더 심하게 욕하기 순.....욕을 들었을 때 대부분 반응을 보이지 않음을 통해 만연화 되어 있음을 파악</p> <p>3) 욕설 퇴치 방법은?<br/>벌금내서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 사기 &gt; 친구들이 때려주기 &gt; 친한 친구끼리 좋은 말 쓰자고 약속하기 &gt; 선생님이 벌점 주기..... 청소년 언어는 청소년이 해결해야 함이 나타남</p> <p>4) 자신은 언제쯤 욕을 하지 않을까?<br/>과연 그런 날이 올까&gt; 상급학교에 들어가서 &gt; 직장 입사 &gt; 자기 자녀 키울 때..... 욕이 습관화되어 고쳐지지 않을거라 봄</p> | <p>5) 자신이 흔히 쓰는 저속한 말은?<br/>*나 &gt; 짜증나 &gt; *발 &gt; *같아...</p> <p>6) 자신이 저속한 욕을 쓰는 이유는?<br/>습관 &gt; 남들이 사용하니까. 기타 &gt; 센 척 &gt; 공부 압박 순</p> <p>7) 욕이 오갈 때 최종 피해자는?<br/>욕하는 상대와 욕하는 본인이 수가 같음</p> <p>8) 욕하고 싶을 때 참는 방법?<br/>내 뇌가 오염되지.... 3초 참기</p> |
|--|---|
- <http://cafe.daum.net/ypatrol> 탐재 자료임

- 차0빈 - 국립국어원이 우리말에 대해 연구하고 바른 언어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라는 걸 알았다. 또 청소년들의 욕에 관련된 동영상 보고 내 주변이 생각났다. 자랑스러운 한글을 저속하게 만들기 말아야겠고, '\*발' 대신 '사랑해', '\*나' 대신 '좋아해' 등으로 바꿔 쓰면 좋겠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른 배움과 언어가 중요함을 생각하는 좋은 기회였다.
- 최00 - 지루할 거라 생각했는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한글이 나오게 된 배경, 만든 원리가 입안 구조들을 고려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 문자라 한다. 동영상 보면서 욕이 나쁘다는 걸 알고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 장00 - 평소 욕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욕을 사용해도 지금 나처럼 생각되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욕 줄여야겠다고 결심이 들었다.
- 임00 - 우리 한글의 위대함 즉 훈민정음이 세계 기록문화 유산임을 알았고, 우리에게 책과 수첩 등 많은 선물 주셔서 좋았다.
- 김00 - 국립국어원은 관람하는 데가 아니고 연구하는 곳이라 떠들면 안 됨을 알았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임도 알았다. 동영상 보면서 욕 들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 소리 끊기는 게 많아 우아 우리가 저렇게 욕을 습관처럼 씀이 느껴졌다.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표현이 중요함을 알았다.
- 차0진 - 훈민정음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특히 동영상을 2층 회의실에서 볼 때 내 입이 욕 때문에 막 더러워지는 느낌으로 내 입이 부끄러워짐을 느꼈다.
- 황00 - 욕을 쓴 아이들에게 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이 나빠진다고 말해 주어 욕을 줄이게 해야겠다.

- 최00 - 우리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았으며,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해야겠다. 우리가 우리말 더럽히면 결국 내가 더러워지니까.
- 박00 - 세계에 7천 개 언어가 있다니... 그 중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도 많고 국립국어원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중요한 일을 하심을 알았고, 나는 이 나라 국민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 김00 - 나는 국립국어원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탐방을 통해 우리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가꾸기 위해 우리 청소년이 어떤 말을 써야 할지 알았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글이 만들어지는 걸 보았는데 설명을 들으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라고 한다. 다음에 와서는 훈민정음으로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다.
- 양00 - 한글이 인체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비속어 사용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게 되었다. 나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우리말과 글을 오염시키는 일을 줄여 갔으면 좋겠다.
- 윤00 - 청소년의 엄청난 욕이 얼마나 나쁜지 다시 알게 되었고 나부터 예쁜 말 고운 입을 만들어야겠다.
- 이00 - 처음에 국립국어원 간다는 말에 지루할 거라는 생각했다. 이곳에 와서 동영상을 보며 청소년 시기 때 욕을 사용하면 뇌가 발달되는 시기여서 뇌가 욕으로 가득 차서 언어사용 능력이 저하됨을 알았다. 줄여야겠다.
- 주00 - 욕의 뜻을 제대로 알고 욕을 사용하면 안 됨을 알았다.
- 최00 - 욕을 배우는 시기가 점점 낮아지는데, 3살 버릇 여든 가는데 큰일이다.

<http://cafe.daum.net/ypatrol> 탑재 자료임



▲ <http://cafe.daum.net/ypatrol>에 카페 운영으로 소통



▲ 9.1. 토론회 참가



▲ 9.15. 부평역광장 언어문화 설문 조사



▲ 10.27. YMCA에서 사례 발표 모습

이런 바른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학교 축제에서 3학년 1반 교실 전체에 부스를 설치하여 들어오는 학생에게 설문을 하게 하고 바른 말 쓰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퀴즈에 통과한 아이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주어, 많이 학생들이 찾는 인기 있는 부스 운영을 했다. 자신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즐거워 전교생에게 홍보하며 으스스해하는 모습,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세종대왕님의 흐뭇한 표정을 읽었다. 축제날 정신없이 부스 운영을 하는 동아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올 한 해 최소한 우리 동아리 아이들만이라도 자신들이 쓰는 말에 자각을 하고 소중하게 여긴 사실에 고마워하며 온 세상을 가진 듯 축제 내내 행복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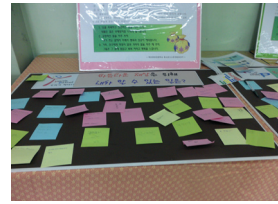
▲ 10.24. 학교축제에서 고운말 쓰기 서약서 쓰는 장면



▲ 10.24. 축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방문함에 즐거워하는 모습



▲ 손등에 받은 스티커를 어디에 붙일까 고민하는 모습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일은? 이란 질문에 한 마디씩 써 붙인 모양

### 3. 나오면서 : ‘선생님, 저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말에 눈물 주르르

아이들과의 함께 한 등굣길 캠페인, 점심시간 활동, 거리캠페인 등과 체험과 견학을 통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목표로 한 작은 실천으로 올 한 해 바쁘게 보냈다. 동기만 부여했을 뿐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청소년스스로지킴이(YP)’ 동아리 학생들이 내겐 너무 소중하고 기쁨을 주는 존재들이었다.

동아리 아이들은 11월에는 화장실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좋은 시나 말의 소중함을 느끼는 글을 써서 코팅해서 붙이자고 한다. 똑같이 욕을 즐겨 하던 동아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활동의 방향과 마당을 제시했을 뿐인데, 그들은 영특한지라 해결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한다.

심지어 “선생님, 너무 진지한 것 친구들이 안 좋아해요. 재미있는 활동해요.”라고 종알거리고 비아냥거리던 아이들도 함께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했다. 말의 묘미, 말의 소중함을 활동을 통해 스스로 터득한 걸일까? 신비롭기만 하다. 매사에 부정적이던 아이들이 함께 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언어 표현에 변화가 생기고, 생활에 변화가 생기고, 친구와 함께 긍정적으로 변모되는 모습을 보면서 언어문화 개선 활동의 효과를 절감한다.

부모 팔아 친구 사는 중학교 시기의 아이들은 또래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성향을 활용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동아리원들이 단합될 수 있도록 교사가 진심을 다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활동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동기유발만 잘해주면, 청소년들은 넘치는 열정을 쏟아 부으며 활동하며, 친구들에게 피력하며 즐겁게 참가하고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여 학교문화를 서서히 바꿔간다. 매사 부정적이던 아이 입에서 “선생님, 저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들으며 기뻐하는 사람이 교사이지 않을까 한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 이해인, ‘나를 키우는 말’-

# 작은 실천으로 만드는 바른 말 세상을 꿈꾸며

충주 용원초등학교 교사 장문각

## 1. 언어문화 개선 동아리 활동, 이렇게 시작됐어요.

2011년 여름, 학생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 및 선도학교 공모 공문을 처음 접했다. 조금은 생소한 느낌의 학생언어문화 개선.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고민이나 행동으로의 실천은 전무하던 나에게 새로운 과제가 부여된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아이들이 욕설을 사용할 때마다 지도와 훈계를 해오긴 했지만 뭔가 체계적인 지도 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회성에 그쳐 온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언어문화 개선 선도교실 활동은 활동 기간이 다소 짧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게 했다. 또한 소인수 학급의 특성으로 인해 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문화 개선 활동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으나, 효과면에서 조금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 이에 2012년 학생언어문화 개선 학생동아리 공모에 선정되어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의 전개를 모색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물론 학생동아리 선정의 여부가 학생언어문화 개선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나 학생들에게 느껴지는 활동의 책무성과 자긍심의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활동의 내실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계획과 언어문화 개선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의 용이성과 활동 예산 지원을 통한 활동 역량의 강화 측면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의 바른 언어생활습관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학생동아리 담당 교사로서 언어문화 개선 및 바른 언어생활습관 형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속적인 실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밑바탕을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였다.

언어습관형성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장기적인 실천 과제이다. 때문에 학생 중심의 실천력 강화를 통한 활동의 모색과 적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그동안 실천한 활동이 뚜렷한 성과와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어려울지 몰라도 실천하지 않고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작은 변화를 위한 실천이 알차게 이뤄진다면 언어문화 개선과 바른 언어생활습관 형성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가지며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대중매체, 게임, 또래 집단으로부터 욕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무비판적, 반성적 사고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줌은 물론 자기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그동안의 언어문화 개선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 2. 이렇게 활동했어요.

올바른 언어생활은 올바른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지도와 당부의 말은 그 효과가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잘못된 언어생활 습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이를 고쳐나가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언어문화 개선활동을 모색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실천 중심의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였다.

2011년에 이어 2012년 학생언어문화 개선 동아리 공모에 선정되어 4, 5, 6학년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바른말 누리단'이라는 언어문화 개선 동아리를 조직, 구성하였고,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운영하였다. 전교생이 8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의 특성상 20명의 동아리 활동만으로도 전교 차원의 파급효과가 크리라 기대하며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본교가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청지정 언어문화 개선 시범학교로 선정, 운영됨에 따라 언어문화 개선 활동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과 동시에 연구학교 운영 과제 수행에 있어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언어문화 개선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된다.

학생동아리 활동은 연구학교 운영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유기적인 조합을 꾀하며 운영이 되는 것과 동시에 자체 예산을 활용한 개별화, 특성화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특성을 갖게 되어 그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 가.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동아리 협의회 구성 운영

바른 언어생활습관의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실천을 중심으로 한 활동의 모색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전교어린이회의와는 별도로 동아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동아리 협의회 회의는 2주에 1회씩 운영하여 2주간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실천 계획에 대한 협의회가 이뤄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교사 주도의 활동 방안의 모색과 함께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학생 스스로 모색하고 실생활에 실천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협의회는 실천 기획부, 실천 홍보부, 실천 활동부로 3개의 부서로 구성하여 구성원의 역할 분담을 하였으며, 부서 간의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학생들 역시 처음 접하는 동아리 활동이어서 초기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활동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였지만, 언어생활습관의 형성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들만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실천 방안을 학생들이 실천함에 따라 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활동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전체적인 틀은 교사가 제공하였으며, 세부적인 실천 내용을 학생들이 작성하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 나. 바른 언어 사용 서약서 작성 및 서약식

‘바른 언어 사용 서약서 작성 및 서약식’의 실시였다. 바른 언어 사용 서약서 작성 및 서약식은 5월 4일에 동아리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월에 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약식을 실시하였지만 동아리 활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형성과 책임감 부여를 위해 동아리 구성원 20명을 대상으로 바른 언어 사용을 다짐하는 서약서 작성 및 서약식을 실시하여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였다. 서약서 작성 서약식의 실시는 학생들에게 바른 언어사용의 실천 분위기 조성은 물론 책임감 있는 활동 전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동아리 구성원이 4, 5, 6학년 학생 대부분인 특성 상 학생들 스스로가 누가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지, 누가 바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에게는 반성과 수정의 계기가,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에게는 지속적인 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였다 여겨진다.

#### 다. 착한 언어 생활본 작성



착한 언어 생활본은 언어문화 개선 활동 관련 내용을 한데 묶어 학생들의 바른 언어 실천 생활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수록 내용으로는 ‘바른 언어 사용 서약서’, ‘바른 말 사용 매니페스트’, ‘멘토·멘티 활동 기록지’, ‘우리말 순화 활동 기록지’, ‘바른말 글짓기’, ‘바른 언어 사용 만화 그리기’, ‘실천사례 쓰기’ 등이다. 착한 언어 생활본의 작성은 학생들의 실천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하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속적인 작성 활동은 언어문화 개선 및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형성시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한다.

#### 라. 바른 말 지킴이 활동



‘바른 말 지킴이 활동’은 고학년 학생을 바른 말 지킴이로 선정하여 1인당 2주간 학교 내에서 욕설을 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모니터링 하도록 한 활동이다. 물론 고학년 학생 역시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바른 말 지킴이로 선정되고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신의 욕설 사용과 언어습관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활동에 대해 다소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점차 자신의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2주간의 활동 기간 동안 이뤄진 결과를 바른 말 지킴이 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여 활동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개선 계획을 정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바른 언어생활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바른 말 지킴이 일지 작성은 학생 수준에서의 활동 계획, 활동 반성, 앞으로의 계획 등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최소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량은 자유롭게 정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일지 작성은 활동 내용을 자신이 기록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학생들의 바른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생각한다.

#### 마. 바른 언어 관련 동영상 시청 및 소감문 작성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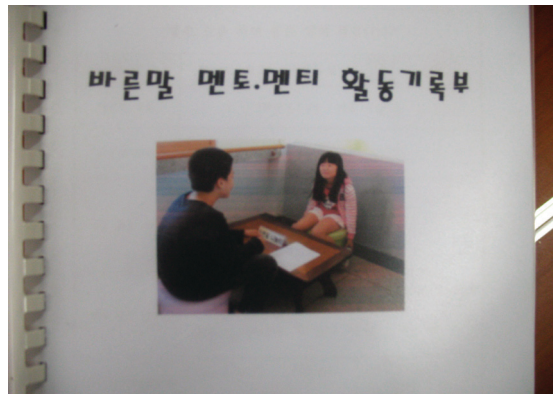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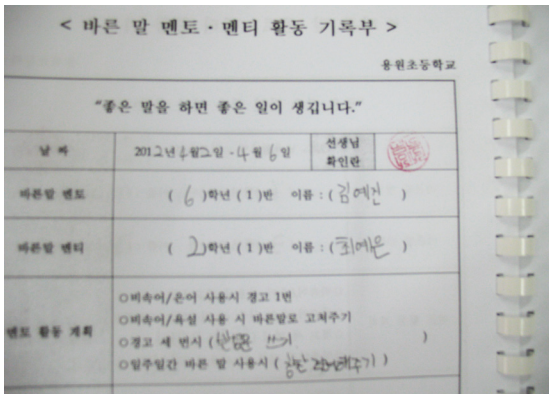


‘바른 언어 관련 동영상 시청 및 소감문 작성’ 활동은 KBS와 EBS에서 제작 보급한 동영상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활동이다. 2주에 1회씩 동아리 협의회 시간을 활용하여 시청하고, 동영상의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의견 나누기, 소감문 쓰기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잘못 사용하고 있던 말, 바르지 못한 말을 고쳐 보는 등의 언어 순화 활동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욕설 사용 실태와 언어오염의 실태를 분석한 동영상 자료의 시청 및 소감문 작성은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언어오염 및 욕설 사용 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하고 언어문화 개선 활동에 대한 동기와 의지를 부여해 주는 데 효과를 거두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은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 다른 학생들이 함께 읽고 생각해보도록 하였으며, 작성이 잘 된 소감문을 대상으로 시상을 실시하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바. 바른 말 멘토·멘티 활동

‘바른 말 멘토·멘티 활동’은 바른 말 지킴이와 그 성격과 내용에서 유사하나 일대일로 멘토·멘티를 정해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학생끼리의 지도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활동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자 전개한 활동이다. 고학년을 멘토로 저학년 멘티로 선정한 후 쉬는 시간, 등·학교 시간 등을 활용하여 일대일 상담의 방식으로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홍보하고 멘토·멘티 상호 간의 언어사용습관에 대한 상호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을 전개하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모르는 저학년 학생에게 오히려 욕설을 알려주는 문제점도 생겼지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멘토라는 인식의 형성으로 인해 자기의 언어생활을 먼저 반성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칭찬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칭찬받을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칭찬 역시 의미 있는 칭찬이라는 생각이 멘토·멘티 활동의 또 다른 목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 사. 칭찬의 말, 사랑의 말 목록 작성 활동

‘칭찬의 말, 사랑의 말 목록 작성 활동’은 동아리 구성원에게 작은 메모지 묶음을 제공해 주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사용한 바른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적어 보도록 한 활동이다. 활동의 주목적은 의도적으로라도 바른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과 습관의 형성을 유도하는 데 있다. 활동 초기 어색함과 쑥스러움으로 인해 활동의 효과가 미약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경쟁적으로 바른 말을 사용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경쟁적인 측면에 치우쳐 활동 본연의 의미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언어문화 개선의 가능성을 발견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 아. 선플 달기 활동

‘선플 달기 활동’은 일주일에 1회씩 컴퓨터실에 모여 학교 홈페이지 게시글, 각종 포털 사이트의 게시글을 읽고 바른 말로 댓글을 다는 활동이다. 활동 초기에는 장난으로 댓글을 다는 학생들이 많았으나, 자신의 글에 선플이 달리고, 서로가 칭찬하는 댓글이 많이 올려지면서 자신의 장난을 고치고, 착한 댓글을 올리는 학생의 수가 늘어남을 볼 수 있었다. 활동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선플 달기 활동을 통해 바른 말 사용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자.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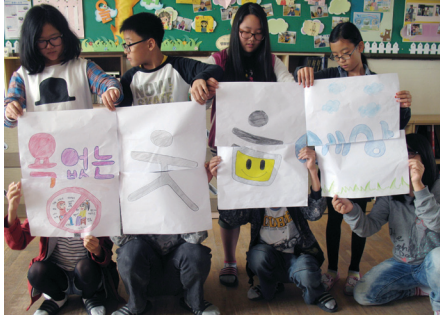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 활동’은 동아리 구성원을 4인 1조로 조직하여, 등교 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한 활동이다. 바른 말 사용과 관련된 구호가 적힌 어깨끈을 두르고 등교시간 교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른 말 사용 구호를 외치며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홍보하였으며, 점심시간 역시 5,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10분간 저학년 식사 시간 동안 바른 말 사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별로 1주일의 기간 동안 활동을 하였으며, 사용할 구호는 학생 스스로 정하고 외치도록 하여 바른 말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소규모 학교의 특성 상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활동의 효과를 거두기 쉬웠으며, 학생들이 외치는 구호를 다른 학생들이 따라 외치게 됨에 따라 언어문화 개선의 공감대 형성에 큰 효과를 보았다.

### 차. 언어 정확의 날 운영

언어 정확의 날은 매월 1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욕설이나 바르지 못한 말을 종이에 적어 버리게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나쁜 언어, 욕설을 버리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어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형성시켜 주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매월 1회 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교 차원의 언어문화 개선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여겨진다. 학생들이 적어 버린 종이는

각 반 담임 선생님과 동아리 구성원이 모아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 카. UCC 제작 활동



‘UCC 제작 활동’은 동아리 자체 내에 UCC 제작 소모임을 결성하여 바른 언어 사용과 관련된 학생들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내용의 UCC를 제작하도록 한 활동이다. 5월에는 주 1회 1시간씩 UCC 제작 방법에 대한 학습활동을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 본격적인 UCC 제작 활동을 진행하였다. UCC 제작을 위해 동아리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 내기, 대사 및 대본 작성, 촬영 등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으며, 교사는 전체적인 지도와 편집을 담당하였다. 초등학교의 수준을 감안해 기술적이고 질 높은 작품의 제작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UCC 제작 활동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2주에 1개 정도의 UCC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개그 프로그램 패러디, 광고 패러디, 역할놀이를 활용한 UCC 제작 등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UCC 제작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에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제작을 거듭할수록 제작 방법에 익숙해져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이 제작되었다.

학생들이 제작한 UCC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영되어 언어문화 개선활동의 홍보와 함께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7월에 전교생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친구사랑 예절캠프’에서 UCC 상영회가 진행되어 UCC 제작을 통한 동아리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언어문화 개선 노력의 성과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UCC 제작에 흥미를 보인 학생들은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20여 편의 학생 제작 UCC 작품이 만들어졌다. 활동을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으며, UCC 제작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언어문화 개선의 실천의지가 다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타. 바른 말 수호천사(마니또) 활동 전개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재미와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활동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 끝에 학생들이 재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마니또 게임을 활동에 적용하였다. 이른바 ‘바른 말 수호천사’라고 불리는 이 활동은 20명의 동아리 구성원을 대상으로 4, 5, 6학년 학생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임의로 고르게 하여 자신이 선택한 학생을 대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른 말 사용 및 선행을 베풀도록 하는 것이다. 바른 말 수호천사 활동은 매달 1회, 2주간 진행하였으며, 자신이 선택한 학생이 자신이 바른 말 수호천사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 채 2주가 경과하면 상품을 받도록 하였다. 바른 말 수호천사 활동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마니또 게임을 적용한 것으로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상대방이 모르게 바른 말을 사용하고 선행을 베풀게 됨으로써 친구와의 우정을 돈독하게 함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바른 말을 많이 사용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좀 더 재미있는 게임 방식을 제안하는 학생이 나오는 등 활동 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판단된다.

#### 파. 학예활동을 통한 언어문화 개선 인식 및 공감대 형성

언어문화 개선 활동에 홍보와 인식의 형성을 위해 월 1회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동아리 학예활동을 전개하였다. 4, 5, 6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만큼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작품의 질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만든 활동 결과물은 교내 복도에 전시하여 전교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포스터 그리기, 표어 만들기, 홍보 만화, 바른 말 글짓기 등 학생 수준에 걸맞은 다양한 학예활동의 전개는 언어문화 개선 활동에 대한 홍보 효과와 함께 바른 언어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동아리 학예활동은 자연스럽게 각 학년별 활동으로 이어져 언어문화 개선활동의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 3. 우리 아이들 이렇게 달라졌어요.

5월부터 진행된 학생언어문화 개선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에게 언어생활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물론 실천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평소 욕설,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던 고학년 학생들이 바른 말 지킴이, 바른 말 멘토로 활동함으로써 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욕설과 비속어 사용의 자제로 이어졌다. 활동에 대한 자기 점검표 및 자기 평가를 통해 살펴본 학생들의 언어생활은 활동 초기보다 많이 향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스스로가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줄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수치상의 결과보다 훨씬 의미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한 학교생활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언어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쳐주는 모습은 활동의 효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난 사례라 판단된다.

UCC 제작, 바른 말 수호천사 활동 등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참여한 활동에서는 활동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자율적인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자체 설문 조사 결과 55% 이상의 학생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나타냈다. 55%라는 수치는 절반가량의 학생이 아직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하지만 절반가량의 학생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앞서 55%의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언어생활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것은 언어문화 개선 활동이 점차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문화와 바른 언어생활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 4. 활동 결과 평가

2012년 5월부터 진행된 학생언어문화 개선 동아리 활동은 바른 언어생활습관 형성과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 실천이 내실 있게 이뤄진다면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활동의 계획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바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실천과 활동에 대한 책무성 부여였다. 늘 생활하면서 접하게 되고 혹은 사용하게 되는 욕설과 비속어이지만 정작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지 몰랐던 학생들이기에 학생언어문화 개선 동아리 활동은 그 활동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소 욕설을 자주 사용하던 학생이 바른 말 지킴이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에 다소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던 모습,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사용할 때 만들어지던 어색하고 쑥스러운 분위기, 자신은 정확히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변화해가는 학교생활 모습 곳곳에서 발견되던 변화의 모습들이 학생언어문화 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생각한다.

## 5. 활동 반성 및 개선 방안

학생언어문화 개선과 바른 언어생활습관의 형성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 때문에 활동 결과를 토대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언어문화 개선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의 고민을 통해 차후 이어질 언어문화 개선활동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동아리 활동의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사용하는 욕설을 인지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진행됨으로 인해 욕설을 아예 모르고 있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오히려 욕설을 무의식중에 알려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때문에 언어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문화 개선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저학년과 고학년간의 멘토·멘티 활동은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바른 말 지킴이 활동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욕설의 사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바르고 고운 말을 가르쳐 주는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둘째, 소규모 학교의 특성으로 인해 동아리 구성원의 활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캠페인 활동의 경우 1주일 단위로 4인 1조가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매주 진행되는 캠페인 활동이 아닌 월 4회로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셋째, 언어문화 개선 활동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언어생활은 학교뿐 아니라 모든 생활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가정과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지속적인 활동 홍보,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자료 보급 및 시청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동아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실천 위주의 행동 중심으로 진행하여 평가 결과를 수치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때문에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 위주로 실시하였다. 이에 동아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자기 평가와 상호 평가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자기 평가는 실천 수기 작성과 개인 평가 기록지를 활용하였으며, 상호 평가는 함께 생활하면 경험하고 느낀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여 서로가 평가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과 언어사용습관에 대해 인식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 의지를 다지고 언어문화 개선 활동의 효과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의 특성상 효과를 명확하게 검증하기가 어렵지만 언어문화 개선과 바른 언어사용습관의 형성을 직접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이뤄진다면 좀 더 효과적인 활동 방안의 도출로 연계되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6. 학생언어문화 개선 학생 동아리 운영 소감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번 언어문화 개선 학생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과 바른 언어생활습관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운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활동 내용과 학생들의 실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 방안의 모색이 이뤄진다면 욕설 없는 바른 말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교는 올해부터 2년간 언어문화 개선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학생 동아리 활동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에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큰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수많은 구호와 계획을 외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작지만 알찬 실천이 언어문화 개선과 바른 언어생활습관 형성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생 동아리 운영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언어생활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늘 현장에서 언어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경험하고, 욕설 사용 자제와 바른 언어 사용을 지도하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한계를 느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바른 언어문화의 형성과 바른 언어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픈 바람을 가져본다.

기 획 | 김선철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박주화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

2012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시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

인 쇄 | 2012년 12월 15일

발 행 | 2012년 12월 20일

발행인 | 민현식

발행처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 02)2669-9722

전송 : 02)2669-9727

제작 · 인쇄 | (주)계문사 Tel.725-5216

---